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2025 선배들의 진로 이야기



2025 선배들의 진로 이야기



2025 선배들의 진로 이야기

발행인 조용수 학부대학장
발행처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우 2198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자유관A 604호
전화 032-749-3124

편집위원 한봉환, 손은경, 진은영, 최기영
학생편집위원 신민섭, 여의주
제작 상상크리에이티브
발행일 2026년 1월

2025 선배들의 진로 이야기

CONTENTS

문과대학 06

01	영어영문학과 김단	06
02	독어독문학과 김민지	12
03	불어불문학과 소보현	20
04	사학과 이충민	25
05	철학과 이진아	32
06	문헌정보학과 이시은	37
07	심리학과 김남은	44

상경대학 50

08	경제학부 정호영	50
09	응용통계학과 이수아	55

경영대학 60

10	경영학과 오은지	60
11	경영학과 김시은	65
12	경영학과 이현종	71

이과대학 75

13	물리학과 신해민	75
14	화학과 최민정	81
15	천문우주학과 김연수	86
16	대기과학과 이수윤	93

공과대학 98

17	화공생명공학부 지현욱	98
18	전기전자공학부 강현진	103
19	전기전자공학부 나인열	109
20	전기전자공학부 이지훤	115
21	도시공학과 채지원	120
22	기계공학부 김정준	126
23	신소재공학부 김동원	132
24	신소재공학부 이준호	137
25	산업공학과 송지섭	142
26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이승찬	147
27	디스플레이융합공학 신향아	153

생명시스템대학 159

28	시스템생물학과 김수린	159
29	생명공학과 유행승	164
30	생명공학과 김경은	169

인공지능융합대학 176

31	컴퓨터과학과 이하람	176
32	인공지능학과 고현진	181

신과대학 187

33	신학과 이광호	187
----	---------	-----

사회과학대학 191

34	행정학과 권태진	191
35	사회복지학과 임재혁	197
36	문화인류학과 박규현	202

생활과학대학 208

37	의류환경학과 오늘온빛	208
38	실내건축학과 정태윤	213
39	아동가족학과 우연수	217

교육과학대학 223

40	교육학과 이주영	223
41	교육학과 최현서	229



나 그대가 있어 연세를 사랑하노라

＊

영어영문학과 22학번 김단

1

영어영문학, 과연 무용한 학문일까요?

처음 본 이들에게 전공을 밝히면 ‘처음부터 영문과에 오고 싶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심심찮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언어학과 문학을 좋아해 왔고 대학에 지원할 땐 언어학과와 영어영문학과만으로 원서를 작성해 그중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영문과’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햄릿’과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문과에서는 문학을 공부하지만, 영문학은 영어영문학과에서 배우는 학문의 반쪽입니다. 영어영문학과에서 배우는 학문은 크게 시, 소설, 희극을 읽는 영문학과, 음성학, 어원론,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등을 배우는 영어학으로 나뉩니다. 저는 둘 중 영어학이 재미있어서 영어학 수업들을 집중 수강하다가 심리언어학 수업을 접하고 큰 흥미를 느껴 심리학과 복수 전공까지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영문학은 단순히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외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졸업 후 셰익스피어의 글을 떠올릴 일이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문학은 무용한 학문일까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문학은 단순히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는 학문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

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층위가 담겨 있는 역사와 감정의 데이터베이스인 문학을 읽고 사유하며 학생들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닌 ‘사고의 틀’입니다. 영어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영어의 사고 구조, 논리와 표현 방식을 해부하고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 일할 때 문화적 코드와 담론을 읽어내는 사고력으로 이어집니다.

텍스트를 읽고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력,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구조화하는 비판적 사고, 나아가 이를 언어로 정확히 전달하는 글쓰기와 표현력. 영문학 전공자가 훈련 받는 위 세 가지 능력은 모든 지식 노동의 핵심 역량입니다. 컨설팅, 외교, 마케팅, 언론, 연구 등에서 영문학과 출신 선배님들이 유독 빛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가 글을 쓰고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이는 지금의 시대엔 맥락과 서사를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문학의 가치는 “직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보다 “모든 직업의 바탕이 되는 사고력과 감수성을 키운다”는 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어영문학과를 선택해 공부하게 될 후배님들, 가장 근본적인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2

대학 생활

나 그대가 있어 연세를 사랑하노라!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교환 학생 이야기부터 해 보려 합니다. 저는 3학년 2학기에 미국 워싱턴 D.C.로 반년간 교환 학기를 다녀왔습니다. 후배들이 교환 학교를 고르는 게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왜 가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환 학기의 이유는 여행, 공부, 휴식, 인턴 등 저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가, 지역과 학교 선택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교환 학생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엔 다소 확실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사회를 벗어나 '다양성'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그 중에서도 수도인 워싱턴 D.C.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게 미국에서의 교환 학기는 세상이 넓다는 당연한 말을 체감하고 동시에 내가 속했던 곳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때의 경험이 더욱 완벽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4학년부터는 학회 활동을 시작했고 4학년 2학기인 지금은 연세대학교 유일 인지과학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깊어진 신경과학과 인지언어학, AI 언어모델 등에 대한 흥미에 기반해 학회를 선택했습니다. 첫 학기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간단한 코딩과 자연어 처리를 배우며 좋아하는 인지언어학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이후 여름 방학에 인턴 활동을 하며 배웠던 디자인 툴과 마케팅 경험을 살려 학회 두 번째 학기인 이번 학기에는 홍보디자인부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홍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학술 세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험으로 연결할 기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하 사진들은 각각 제가 작업한 학회 로고와 이번 학기 제 개인 발제 발표 자료 표지입니다.

남들 다 하는 학생회도 동아리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제 대학 생활에 매우 만족합니다.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성취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행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느낍니다. 저는 운 좋게도 송도에서 생활하며 마음의 결이 맞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친구는 비즈니스'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만큼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던 소꿉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많이 의지하는 친구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학교를 이렇게 아끼고 좋아할 수 있는 이유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나 그대가 있어 연세를 사랑하노라!"



3

진로계획

해맨 만큼 나의 땅

앞서 이야기했던 학회에서 LLM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잠깐 배웠던 코딩이 도움이 되어 지난 여름에는 IT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사업개발 인턴으로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역지로 배우다시피 했던 코딩 경험이 인턴 합격에 도움이 되었듯 전혀 연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후에는 모두 나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기업 취업, 방송사 입사, 자격증 시험, 로스쿨, 해외 취업... 다른 학부들에 비해 길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인문계열 학과들의 단점으로 생각되지만 그만큼 여러 방향으로 길이 열려 있다는 면에서 저는 장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저의 경우처럼 경영학, 경제학, 언론홍보영상학, 컴퓨터공학 등 많은 선배들이 정말 다양한 학과를 복수 전공하기도 합니다.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영문과에서

배운 텍스트 해석 능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나아가 다양한 분야를 탐구할 수 있다는 영문과의 매력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양귀자)” 양귀자의 책 ‘모순’ 속 문장이자 제가 늘 잊지 않고 새기려고 노력하는 몇 문장들 중 하나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그저 되는 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며 순간마다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따르려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저는 이 문장을 해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선으로 두고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머리를 싸매고 가만히 앉아 고민해 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차라리 용감하게 저지르고 다가올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실패로 느껴지는 무엇도 사실은 이후의 더 큰 크림 속 최선을 위한 초석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무언가 저질렀던 기억들은 어린 날의 추억으로 미화되어 더 큰 용기의 바탕이 됩니다.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겁낼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낭만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젊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디!

새삼스러울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많은 경우에 매우 보잘 것 없어서 자칫하면 지나치거나 잊기 쉬운 것들입니다. 크고 반짝거리는 것들이 눈에 띄기에 중요해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런 착각에 빠져 살기에는 삶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연희관 앞 목련이 어제까진 꽃봉오리였는데 오늘 드디어 꽃이 피었네.’ ‘이 카페 커피잔 너무 귀여워.’ ‘의자도 진짜 멋져.’ 온갖 것에 하나하나 감탄하고 감동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사로운 것들에 더 많이 슬플지라도 그만큼 더 자주 기뻐합니다. 무덤덤하고 재미없는 어른이고 싶지 않거든요!



과정을 사랑할 것: 대기업 취업, 창업 성공, 국가고시 합격... 모두 나름대로의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성공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굳건한 생각입니다. 어떠한 달성의 한 순간만을 위해 거기까지의 여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성실히 나아가되 사사로운 것들을 소중히 하며 작은 것들에 새삼스럽게 기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들을 아끼면 과정을 사랑하게 됩니다. 과정을 사랑할 수 있다면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죠. 슬픈 나, 서툰 나, 미운 나도 나름대로의 과정임을 알고 오히려 그 순간의 사랑스러움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있더라도 지금 있는 곳,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음미하자.’,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을 완성시키자.’ 삶을 살아내는 것은 미래의 무언가가 아닌 정직한 하루하루의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매일이 모여 나를 만들고 또 실천한다는 것을 기억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게 되든 담대하게, 또 새삼스럽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채운다면 언젠가 그런 미래가 자연스레 제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내일을 가진 여러분 축하합니다! 또 응원합니다! 영어영문학과 파이팅!

📷 인스타그램 @daankeem

✉ 이메일 dahnshere@yonsei.ac.kr

2

나의 대학 생활

1학년 - RC 공동체 속에서의 성장

연세대학교는 1학년 전원이 송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는 모든 학생이 1년간 생활하는 공간이자 학문과 공동체가 결합한 하나의 작은 사회, 실험적인 교육의 장입니다. 각 학생들은 10개 중 하나의 하우스에 배정되어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1학년 동안 약 50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RC 창의 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창업부트캠프입니다.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한 창업 기초 과정을 수강하면서,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장조사, 고객 페르소나 설정, 프레젠테이션 작성 등 실제 창업 프로세스를 배우며 기획력과 분석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문학 전공생으로서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이 창업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프로젝트 기획과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하우스 친구들과 진행한 독서 토론과 봉사활동, 하우스별 축제와 세미나 등을 통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배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1학년 때 국제 캠퍼스 총학생회 대외국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교내외 행사 홍보와 협력 업무를 맡으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행사 기획서 작성, 홍보 콘텐츠 제작, 예산 검토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바꾸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직접 운영을 담당하며 보이지 않는 곳의 준비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들은 무엇을 하든 결국 사람과의 협력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RC 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기숙사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3인 1실로 생활하며, 서로의 생활 습관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생활 방식이 달라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공용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거나 시험공부하던 밤, 서로의 전공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하던 시간은 제 대학 생활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독일어 단어장을, 누군가는 미적분 문제집을 들고 각자 공부하면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송도에서의 1년은 제 대학 생활의 출발점이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배운 가장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인문학과 기술의 만남

1학년 겨울 방학에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이 주관한 '윈터 워크스테이션(Winter Workstation)'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팀은 대학가 배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앱'을 기획했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서비스 구조 설계와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실제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회용기를 쓰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가격·편의성·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환경 보호' 구호보다는 '경제적 혜택'과 '참여 경험'을 결합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앱의 구조는 사용 횟수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지역 카페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QR코드로 반납을 추적하고, 사용 현황을 시각화해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기술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설계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팀은 최종적으로 우수상을 받았고, 동시에 인문학과 기술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인공 지능을 더 공부해 보고 싶다고 느꼈고, AI 융합 심화 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I 융합 심화 전공은 본 전공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연세대학교의 융복합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인공 지능 개론 및 응용', '인공 지능 프로그래밍', '자연어 처리와 ChatGPT', '딥러닝 개론 및 응용' 등 총 6개 과목 중 5개를 이수하면 심화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저는 그중 자연어 처리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

니다. 인간의 언어를 수치로 표현하고, 의미를 벡터로 계산하는 과정은 마치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또 다른 방식 같았습니다. 독일어 문법에서 배운 구조적 사고가 코딩과 알고리즘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텍스트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문학과 공학이 맞닿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후 시와 언어의 경계에 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기술이 인간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제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인문학적 시선을 바탕으로 기술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려 합니다.

2학년 - 실천의 시기

2학년이 되어 신촌 캠퍼스로 올라온 뒤, 저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찾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전환점은 용재 하우스 RA(Residential Assistant)로 활동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RA는 1학년 신입생의 생활을 돕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리더입니다. 제가 맡은 주요 역할은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용재를 찾아라'라는 행사에서는 기숙사 곳곳에 QR 미션을 숨겨두고 신입생들이 조를 이뤄 탐험하도록 기획했습니다. 게임처럼 즐기며 기숙사의 지리를 익힐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재 요리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주방 공간과 재료의 제약, 안전 관리 등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팀워크와 실행력으로 행사를 완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리더십의 본질은 '경청'과 '신뢰'임을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수를 감싸주며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RA로서의 경험은 저에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학년 여름 방학에는 감사하게도 학과 선배이신 박은관 시몬느 회장님(독문 75)의 지원으로, 독일 뮌헨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한 달간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독일 땅에 내렸을 때의 설렘과 긴장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읽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 버스 시간표를 이해하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며 사용한 독일어는 책에서 배운 문법보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수업은 독일어로만 진행되었고, 교재 대신 일상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구성되었습니다. 언어의 리듬과 억양, 그리고 문화적 맥락이 섞인 표현을 몸으로 익히면서, 교실 밖에서 배우는 살아 있는 독일어를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친구들과 함께 마리엔 광장을 걷고, 박물관 거리를 구경하며 서로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현지 친구 중 한 명이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 저는 언어와 문화는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학과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툴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독일어로만 대화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뿐 아니라 진정한 우정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제게 '어학 공부의 장'이자 언어와 인간,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살아 있는 '인문학의 현장'이었습니다.

3

진로 계획

저는 현재 금융권 IB(Investment Banking) 분야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독어독문학과와 금융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두 분야는 모두 '세상을 읽는 일'이라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문학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읽듯, 금융에서는 기업의 가치와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AI 융합 전공에서 배운 데이터 분석 기술은 이런 해석에 객관성을 더해줍니다. 저는 언어의 논리성과 데이터의 정밀함을 함께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학년 때 참가한 금융부트캠프였습니다. AI 기술이 금융 분석에 활용되는 사례-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평가, 시장 예측, 리스크 관리-를 접하면서, 인문학적 통찰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금융인의 역할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투자 은행의 IB 부문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일이 아니라, 기업의 서사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자면, 2학년 겨울 방학에는 독일어 B2 자격증(Goethe-Zertifikat B2) 취득을 목표로 어학 공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3학년 여름 방학에는 금융권 인턴십에 참여해 현장의 흐름과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3학년 2학기에는 독일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금융 시장과 기업 문화를 몸소 배우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투자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에서 ESG 및 데이터 기반 투자 분석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로 사람을 이해하고, 데이터로 세상을 해석하는 인문학적 분석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독문학과와 AI 융합 전공을 함께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대학 생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길을 걷고, 그 길은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하면, 언젠가는 쓰인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시작했던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총학생회 활동으로 배운 소통력, RA로 길러진 지도력, 창업 교육에서 얻은 기획력, AI 공부를 통해 쌓은 분석력-이 모든 경험은 각기 다른 조각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도전 역시 언젠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요즘 시대에 영어를 잘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 3 외국어인 독일어를 꾸준히 공부하는 일은 분명한 차별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독일어는 유럽의 철학과 예술, 기술의 언어이자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AI가 인간의 언어를 흉내 내는 시대일수록,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독어독문학과는 언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통찰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쌓는 문학적 감수성과 논리적 사고력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분명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도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한 과정이고, 그 경험이 쌓여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결국 대학 생활의 모든 순간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언젠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길이 문학이든, 기술이든, 혹은 그사이 어딘가이든, 여러분의 시간과 경험이 모두 의미 있는 문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Instagram @minz_kim

이 전공은 다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 속에서 세상을 탐구하고 생각하는 일을 즐기신다면, 이곳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일은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어는 특히 문법이 까다롭고 발음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를 익히면서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경험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와 세계를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싶다면, 불어불문학과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3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복수 전공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제 진로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직업을 위한 공부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온 이후로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려고 노력했고, 이를 위해 2학년이 되고 신촌에 와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ESEC(UN의 인정을 받은 국제 리더십 학생협회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15개 대학에 설립되어 있으며 인재관리, 마케팅, 협력



▶AIESEC에서 담당했던 오픈버스 모습

등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제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경영학 복수 전공을 결심했습니다. 사람과 생각을 이해하는 학문인 불어불문학과에서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을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영학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고 그저 느낌으로만 아는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학이 제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었다면, 경영학은 그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두 전공의 결합은 저에게 감성과 이성, 개인과 사회, 언어와 숫자 사이의 균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를 찾는 과정’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절대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이 느리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계속 생각하고, 시도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AIESEC 행사 참여 모습

첫째, “이 일을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나는 이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가?”.

만약 이 두 가지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선택에는 언제나 '왜 이것을 하는가'라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결정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마주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어불문학과로의 진학은 저에게 단순한 전공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저를 이해하기 위한 첫 시도였습니다. 언어를 배우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문학을 통해 타인의 삶을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영학을 통해 제가 배운 그 시각을 세상 속에서 실현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 위에서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 그리고 그 답을 찾아 천천히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Yonsei, where we make HISTORY

✱

사학과 21학번 이충민

안녕하세요, 사학과 21학번 이충민입니다. 책자를 통해 전공과 진로에 관해 사학과 선배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들려드릴 기회가 되어서 영광입니다.

1

사학과에서 배우는 게 과연 '역사'일까?

사학과에 진학하신 분들은 크게 두 부류, 곧 정말 사학에 깊은 관심이 있는 '마니아'이거나, 아니면 그저 점수 맞춰서 온 사람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반반씩인 것 같지만,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네요. 초점을 명확히 하자면, 이 글은 후자를 위한 것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기 갈 길을 잘 가시리라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후자에 해당하는 분 가운데는 저처럼 역사에 어느 정도 흥미가 있기는 하지만, "역사 연구자가 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사학과 나와서 뭐 해 먹고 살아야 하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학생이 많겠지요? 저는 이 글에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사학과는 한국사와 동양사, 서양사가 '사학'이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이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이자 장점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2

Curriculum Vitae: 세 마리 토끼-학점관리와 동아리와 교환학생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박사과정이 결혼이라면, 연구 실적은 재산이고, 학점은 얼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미시간 대학교 어드미션 커미티에 계셨던 한 교수님께 들은 말도 이와 비슷한데, 3.7/4.0 이하는 '웬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냥 탈락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 매 학기 수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학점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절대 '후회할 학점'은 받지 마세요. 비단 대학원 진학이 아니라도, 취업 시장 또한 학점이 중요하지 않나요? 한 번 망가진 학점을 복구하는 데는 그 갑절의 노력이 듭니다. 고학년 때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은데 학점 복구까지 하느라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관리하기 바랍니다.

저는 학회는 하지 않았고, 테니스 동아리와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했습니다. 학회의 경우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같은 학회 출신 선배와의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학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모 대기업에 합격한 제 친구나,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아는 선배 또한 학회 경험이 따로 없었음에도 합격했으니까요. 학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역량과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의 경우 운동이나 오케스트라와 같이 예체능 관련 분야로 활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미국 조지아에서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한 선배가 제게 평생 해야 하는 것 세 가지로 영어 공부와 요리, 운동을 꼽았을 만큼, 운동의 중요성은 영어 공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거나 체력을 기르는 것 이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하나쯤 만드는 것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아도 전혀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중앙동아리는 다양한 학과 출신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데다, 대회를 나간다가나 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학과를 넘어선 인맥과 정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테니스 대회에 나갔던 경험이나 OB-YB 교류전에

한국사 세부전공이지만 중국 근세사나 유럽의 문화와 예술과 같은 과목들도 수강하여 교양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후배님들도 특정 세부전공에 매몰되어 그 과목만 듣지 말고, 때로는 저처럼 다른 세부전공의 과목도 한두 개 들어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국사는 근현대사나 중근세사에 관계없이 주로 발표와 토론 참여 등으로 수업이 구성되는데, 저는 이 발표 및 개인 연구, 발제문 작성에도 꼭 참여하도록 권합니다. 전공에 관한 이해는 차치하더라도, 어떤 주제에 관해 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 선행 연구를 찾아 정리하고, 그로부터 유도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야말로 사학과에서 4년 내내 훈련하는 것의 정수이자, 여러분이 졸업 후 사학이 아닌 다른 길로 가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학'이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내내 배워왔던 '역사' 과목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사학과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인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할 것인지의 종합적인 사고 체계를 배우는 학과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글로써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역량이나,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 모든 인문학의 근간입니다. 사학은 여기에 수 세기에 걸친 시간의 축을 더함으로써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틀이 어떻게 달라져 왔고, 왜 달라져 왔으며 지금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까지 논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사학 연구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사학' 그 자체로서는 우리 진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학이 한켠으로 밀려나도 괜찮은 학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언급한 것처럼 사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지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 기존 연구로는 충족되지 않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그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를 더 상세히 훑아보고, '빠진 고리'를 나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다른 전공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메우는 것이야말로 오직 사학과에서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를 익혔다면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또 다른 주제의 학문을 복수전공해서 '사학과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서 80, 90년대 학번 선배님들과의 경험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즐거웠던 지난 날의 한 컷을 여전히 차지하겠지요.

교환학생에 관해 말하자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 사실 이 책자를 모두 교환학생 이야기로 채우고도 부족한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후배님이라면 제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 경우, 여행과 특히 외국 유학의 생각이 있었던 만큼 현지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한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Festina Lente: 진로 계획

저 역시 사학과에 오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에 기본적으로 흥미가 있었던 만큼 막연하게 계량사학과자 같이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과 통계학의 이론 및 도구를 활용하는 교수가 될지 고민은 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신입생 때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하며 대학원 진학, 로스쿨 진학, 고시, 창업, 취업 등 가능한 모든 진로를 떠올리며 그것을 위해 내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 리스크, 가능성 등을 분석했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도 아직 무엇을 하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저처럼 가능한 모든 진로를 떠올려 보고 하나씩 험량해 보는 작업을 해 보기를 권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우선 학계에 남고자 목표를 세웠고, 사학을 기반으로 여러 방법론적 연구를 응용하는 교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응용통계학을 복수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통계학 분야로 미국에서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박사, 그중에서도 통계학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과목 일 것입니다. 저는 학부 때 통계학 복수전공으로서 여러 전공선택 과목 뿐 아니라 해석학과 같은 수학과 과목들도 수강했습니다. 나아가 대학원 진학 계획이 있었던 만큼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현지 대학원 과정을 미리 수강하기도 했고요. 사학과 수업의 경우, 발표와 질의응답이 많다는 특성상 실제 사료분석에 초점을 두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 이 글을 읽는 후배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처럼 사학과는

전혀 다른 분야로 복수전공 혹은 전과한 뒤 유학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저는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시작한 '사학'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만이 가진 고유한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로에 관해 방황하는 후배님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야를 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나는 무조건 이 길로 걸어야겠다는 일념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도 여전히 연습 기회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실제로 학부 4년 내내 로스쿨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제 친구는 정작 로스쿨에 합격한 뒤 학교를 쉬며 컨설팅 등 학부생 때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인생에 로스쿨은 전혀 없을 것만 같던, 사학을 그만두고 수학을 다시 전공하던 한 선배는 결국 돌아서 지금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을 들었던 사학과 선생님 중에서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 지금 연구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하되, 조금함에 쫓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4

후배에게 한마디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세요. 대학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험 한 번으로 표준점수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명확하게 정해졌던 고등학생 시절과는 달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는 것처럼 '공정'하고 '분명'한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든, 대학원에 진학하든 여러분 앞에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며, 심지어 그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한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가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학과 및 동아리 선배, 학사지도교수님과 전공 지도 교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이 인턴을 하면서 만나는 어른들도 계시며, 더 나아가 Linked In과 같은 온라인에서는 내가 쌓고자 하는 커리어와 비슷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또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각종 장학금 지원, 학업 계획서 첨삭 등 많은 부분을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았습니다.

선배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스스로 정보를 찾는 것 역시 익숙해야 합니다. 평소 별 생각 없이 넘기기 쉬운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조차 내게 꼭 필요했던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과 게시판이나 대학 공지 게시판도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장학금이나 유용한 인턴십 정보가 공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학부생들을 교수님과 매칭해 리서치 기회를 열어주는 활동이나 학과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는 학부 연구생, 혹은 다른 취업 박람회

등에 직접 발품을 팔며 참여하였는데, 그 결과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 있던 학교의 통계학과 연구 인턴으로서 추천서를 받고, 경제학과 석좌 교수님이 주최하시는 세미나에 참석하며 네트워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미국 현지 취업박람회에서 이력서를 내고 몇 차례 인터뷰를 보기도 했구요. 비록 촉박한 기한 내에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걸려서 실제 산업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쉽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소재목은 '후배에게 한마디'이지만, 어쩌다 보니 수십 마디가 되었습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 이만 줄입니다. 혹시라도 복수전공이나 교환학생, 해외 유학에 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후배님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Linked In** <https://www.linkedin.com/in/chungminjlee/>
 **이메일** chungminlee08@yonsei.ac.kr
 **인스타그램** @real_lee.chungmin



▶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여행을 다니며>
긴 겨울의 어느 날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던 중



▶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여행을 다니며>
그랜드 캐니언 여행



▶ <테니스 동아리>
양구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대회에서 팀원들과



▶ <오케스트라 동아리>
정기 연주회 포스터

특별하지 않은 일상, 특별한 대학 생활

＊

철학과 23학번 이진아

안녕하세요. 철학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이진아입니다. 저는 특별할 것 없이 보냈지만 지나고 보니 특별했던 저의 대학 생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학 생활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나를 찾아가는 송도에서의 하루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내향적인 성격 탓에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동기들과 1년 동안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송도에서 유일했습니다. 특히 국제 캠퍼스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라디오에 사연 보내기,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 파크를 누비기, 텃밭 가꾸기와 같은 크고 작은 활동들이 여전히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 을 앞두고 특별한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평범한 순간들, 반복되는 일상에서 발견된 작은 기쁨들이야말로 대학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추천 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보내보셨으면 합니

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조용한 기숙사 방에서 책을 읽거나, 캠퍼스를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들을 통해 내면의 힘과 정신적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송도에서 보내는 새내기 생활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관심사를 탐색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자 환경입니다. 현재의 저 역시 1학년 때 형성한 자아와 쌓아온 습관들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관계를 돌보는 시간 또한 대학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제 캠퍼스 한강 작가님과의 만남

평범함 속 빛나는 뜨거운 순간들

2학년이 되고, 저는 본격적으로 과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연세



▶ 2024 연고전



▶ 2023 아카라카

대학교의 합동 응원전이나 연고전처럼 땀과 열정으로 가득한 순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웠던 송도에서의 제가 한층 성장하여 과 MT, 고려대학교와의 합동 MT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그것은 소속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단단히 묶어주었으며, 저를 어엿한 연세인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 동안 했던 소소하지만 꾸준한 참여가 결국 나 자신과 공동체를 이해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진로의 방향성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기계적이고 단절된 형태의 학문 공부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조금씩 헤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우들과 함께 기쁨과 고민을 나누는 경험이 저의 소극적인 성향을 많이 바꾸어주었고, 그로 인해 복수 전공이나 교환 학생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회와 학교 행사 활동은 친목 도모와 소속감 형성, 학업 및 진로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도전에 힘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니 망설이지 말고 다신 오지 않을 순간들을 뜨겁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2

전공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나만의 철학을 만드는 공간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꾸준히 독서 논술에 다니면서 여러 책들을 읽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와 글 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계열로 대학을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철학을 선택한 이유는 철학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게 합니다. 이러한 사고력과 성찰력은 어떤 분야든지 적용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흔들림 없고 튼튼한 핵심 역량이 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에는 매년 다양한 강의들이 열립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논리학, 정치철학, 사회철학, 윤리학, 여성철학 등 여러 분과를 가르치시다 보니 전공 수업만으로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철학 강의를 접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넓어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 삶을 깊이 성찰하고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학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 됩니다.

물론, 철학과에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지만, 많은 선배들은 전과하거나 복수 전공을 통해 취업에 더 유리한 길을 찾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는 한문 그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철학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대학 생활이 깊어질수록 철학이라는 학문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철학을 깊이 경험해본 이들은 자신만의 비판적 사고와 자기성찰 능력을 갖추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막연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철학과에 오셔서 선배와 동기들의 세계를 경험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철학이 주는 지적 자극과 성찰의 기쁨으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철학적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철학과 경영, 나만의 길을 잇다

대학 입학 전까지 진로에 있어 혼란을 겪었던 저에게,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행복들이 결국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옳음과 그름',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며 깊은 내적 성찰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나만의 인문학적인 해답들이 세상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다운 기업 윤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철학과 경영학이 융합된 길은 저에게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철학과 경영학의 결합은 일상에 녹아 있는 가치와 최종적으로 인간이 실현해야 할 가치가 만나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진로 계획은 없지만

송도에서 쌓은 삶의 경험과 학교 행사에서 얻은 협력 정신, 그리고 학업을 통해 키워진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성은 분명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년부터는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성적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2학년 겨울 방학에는 앞서 말씀드린 배경과 시 윤리 자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담아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복수 전공에 성공했습니다.

이외에 대학 생활 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교환 학생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3학년 겨울 방학 때 TOEFL 시험에 응시하고 4학년 2학기 때는 교환 학생을 신청하여 견문을 넓혀 가고 싶습니다.

3

후배들에게 한마디

올타리를 넘어 첫걸음을 내딛다

1학년 때 RC101 담당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라는 올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세요!”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자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터전입니다. 송도에서의 자기성찰과 학교 행사에서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복수 전공이라는 도전은 모두 이 올타리를 넓혀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용기 내어 연세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회에 도전하면서 값진 경험과 성장을 이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학교 안에서 받는 지원과 경험은 졸업 후 혼자 준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학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 인간관계는 졸업 후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을 견디고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특별한 것만을 추구하며 무거운 부담 속에 살아가지만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쌓은 소소한 행복과 삶의 단서들이 결국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헌정보학과 궁금해?



문헌정보학과 23학번 이시은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 23학번이자 현재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이시은입니다. 우선 제가 소개할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최근 공개된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 Library & Information Management에서 국내1위, 세계3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본교 내 단일 전공 순위 6위의 기록입니다. 후배님들에게 이러한 문헌정보학과 대학 생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왜 문헌정보학과일까?

저는 사서 교사가 되기를 목표로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에 자주 갔기에 도서관이 친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서 교사 되기를 결심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서 교내 봉사를 했는데, 도서관에 오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학생이 아무도 오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자주 오는 학교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서 교사가 되어 이를 실현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서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대학 생활

다음으로 문헌정보학과의 대학 생활을 전공 수업, 동아리, 대외 활동, 인턴십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대학 생활은 주변의 도움과 함께였습니다. 교직 이수를 준비할 때, 같은 과 선배의 조언 덕분에 교직 이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었고 인턴십 지원 시에도 같은 기관에서 먼저 활동했던 선배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생활임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지: 전공 수업

본 전공은 문헌정보학과, 복수전공은 경영학과입니다. 또한 현재 3학기째 문헌정보학과 교직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의 전공 수업은 크게 도서관학과 정보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학은 분류, 목록,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등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배우며 정보학은 정보기술론, 정보검색론 등 코딩에 집중해서 학습합니다. 문헌정보학과 전공 필수 과목은 문헌정보학 입문과 정보기술론 두 과목뿐이기에 학생들은 도서관학과 정보학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합니다. 저는 사서 교사를 염두에 두고 있고 교직 이수를 하고 있기에 도서관 과목들을 많이 수강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전공 수업은 분류와 목록 수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분류는 분류 기호 작성법, 목록은 MARC 데이터 작성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해당 과목들은 도서관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배우는 과목들이며 실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들입니다. 실제로 인턴십을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과목이기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과목입니다. 이는 뒤에 인턴십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직 이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교직 이수는 2학년 1학기에 신청 가능하며 전체 학과 인원의 10%만 선발합니다. 1차는 교직 소견서 제출, 2차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문헌정보학과의 교직 이수 인원은 한 학년당 3명이며 교직 이수를 하면 사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헌정보학과를 진학했을 때부터 사서 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교직 이수에 지원하였고 교직 이수 대상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교직 이수를 하면 전공 50학점 이상, 교직 22학점, 교육봉사 60시간, 교생 실습, 인적성 검사 및 심폐소생술 교육 수강 등 교직 이수 요건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교직 이수를 하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하기에 학과 내에서 꾸준히 교직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교직 이수를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했던 교육봉사 활동입니다. 교육봉사 담당 선생님이 현직 사서 교사였기에 사서 교사가 하는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캡슐뽑기”라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쓰기, 광고문 만들기 등의 활동지를 제출하면 캡슐 뽑기권을 제공하여 뽑기 형식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주 동안 꾸준히 책을 읽어야 했기에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만약 사서 교사가 되어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이와 비슷하게 기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직 이수와 함께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시작했으며 현재 2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중급회계(1), 회계원리(1), 경영정보시스템을 수강했으며 현재 마케팅, 조직행동론, 회계원리(2), 중급회계(2)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진로로 금융공기업도 고려하고 있기에 경영학과 전공 중 회계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지: 동아리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며 학술 동아리를 주로 했습니다. 제가 했던 동아리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아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TEDxYonseiUniversity는 연세대학교 워크스테이션에 소속되어 있으며 TEDx에서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받아 진행하는 강연 기획 동아리입니다. 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활동했으며 2024년 1학기에는 임원진을 맡았습니다. 1년 동안 기획행정팀에서 물품 협찬을 담당하며 조구만 스튜디오, Snowfoxflower,

Grape Lab, Seedkeeper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TED 규정상 물품 협찬의 대가로 금전 지급은 금지되어 있기에 컨택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물품을 협찬받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제안서 작성과 소통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협력과 소통 방식을 깨달았으며 이는 추후 대외 활동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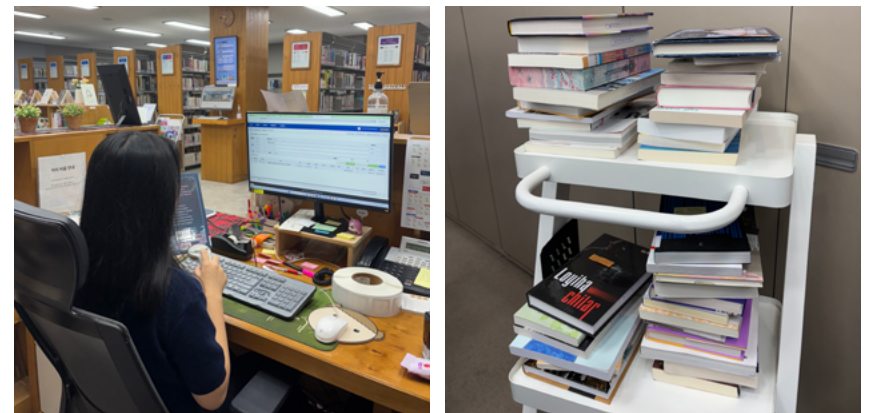
하고 싶으면 해야지: 대외 활동

1학년 때부터 봉사 활동이나 멘토링 대외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했던 대외 활동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인 “2024 서울청년기획봉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대외 활동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들과 함께 진행했으며 모교에서 환경을 주제로 체험형 부스를 열었습니다. 해당 활동은 기획안 작성, 장소 섭외, 물품 발주, 예산안 작성, 홍보 영상 및 포스터와 굿즈 제작,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등 모든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팀장을 맡아 약 5개월 동안 활동을 총괄하고 모교 선생님, 서울동행 담당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행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직접 기획한 활동을 실행까지 할 수 있어 보람차고 뿌듯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활동을 진행했기에 아직도 추억으로 남은 활동입니다. 저는 봉사나 멘토링 대외 활동을 주로 했는데 대외 활동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후배님들도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대외 활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인턴십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8주 간 연세대학교 인문예술진흥사업단에서 주관하는 2025 인문인 하계 인턴십에 참여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인턴십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전문도서관에서 진행한 인턴십은 문헌정보학과의 전공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무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단행본 서지 정보 업데이트와 실물도서 관리였습니다. 납본도서, 구입도서, k/wave(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플랫폼) 요청 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단행본 서지 정보를 번역전문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했습니다. 등록된 도서 중에 실물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호 및 MARC(기계가독형목록) 데이터 작성, 레이블 및 등록번호 부착,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스캔, 배가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며 문헌정보학과의 전공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예컨대 문헌정보학과 전공 수업인 목록 수업에서는 MARC(기계가독형목록) 데이터 작성법을 배운다면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실제 도서의 MARC(기계가독형목록) 데이터를 작성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이템 등록, 장비 작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인턴십은 사서 교사를 진로로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인턴은 실제 직업을 갖기 전에 실무를 경험하고 해당 직업이 나의 성향에 적절한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3

진로 계획

현재 사서 교사와 금융공기업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자 직업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적으로 워라밸이 잘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서 교사는 매우 적은 임용고시 채용 인원과 교권 침해 문제, 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순환근무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사서 교사는 고등학생 때부터 생각하던 진로였지만 평균 0명~2명 내외로 임용고시 채용 인원이 매우 적기에 다른 진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용 채용 인원이 아예 없던 해도 있었기에 사서 교사만을 목표로 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2학년 2학기 때 하면서 사서 교사를 하지 않았을 때의 미래의 직업을 진지하게 고민했

습니다. 문과 계열의 직무 중에서 성향상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은 직무를 제외하고 도전할 수 있는 직무를 고민하다가 “회계”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2학년이 끝난 겨울방학에 중급회계를 따로 공부하며 흥미를 느꼈고, 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직무를 생각하다 금융공기업 경영직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사서 교사와 금융공기업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둘 중 무엇을 할지는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1학기 교생 실습을 다녀온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직 이수와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모두 하고 있기에 졸업 학점이 약 180학점 정도로 평균 졸업 학점보다 매우 많은 편입니다. 또한 초과 학점을 들으면서 동아리, 대외 활동, 과외를 병행했습니다. 힘든 적도 있었지만 다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기에 후회가 남지는 않습니다. 대학 생활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후배님들도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모두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 교직 이수, 복수전공, 동아리, 대외 활동, 인턴십 등 대학 생활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후배님들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 인스타그램 @si_eun._0626

📧 이메일 angeleun0510@yonsei.ac.kr

심리학? 너도 할 수 있어!

*

심리학과 23학번 김남은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23학번 김남은입니다. 저는 현재 2학기를 마치고 휴학 중이며, 임상심리사를 목표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글을 쓴다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작은 경험이 앞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할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처음부터 심리학을 전공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좋아하고 남의 일에도 쉽게 마음이 가는 편이었는데 흔히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죠.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 돕곤 했습니다. 힘겨워 보이던 표정이 웃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을 좇아 행동해 보니 자연스럽게 약한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일이 좋았고, 그래서 처음엔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 즈음 우연히 TV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서 성격 심리학 관련 강연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과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 이런 이야기를 더 깊이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때부터 저

는 단순히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에서 '이해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각이 점점 커졌고 이후 심리학을 교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저의 진로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심리학 수업 중에서 정신 병리와 심리 치료 단원을 배우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변화와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심리상담사나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시기에는 심리상담 동아리에도 가입하며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 또래 상담 대화 속에서 적용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어려운 만큼 보람과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하지만 사람 일에 심리를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양한 학문과 접목이 가능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기에 다른 학과는 고민도 않고 심리학과만 지원하여 이렇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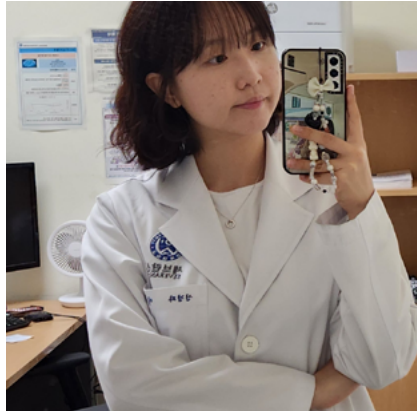


2

나의 대학 생활

1학년에는 수업과 RC 자기주도활동, 사회 참여 등 필수적인 것들만 했습니다. 심리학 전필 과목은 1학기에 열리는 심리학개론 하나여서 전공 수업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개론 수업은 매주 다른 심리학 분야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 나와 맞는 분야는 무엇인지 탐색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임상심리랑 사회심리 분야가 재밌었습니다.

1학년 생활을 되돌아 볼 때 학업과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동아리나 과 소모임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실 그때는 완벽주의 성향도 좀 강해서 ‘어설피게 할 바엔 아예 하지 말자’, ‘자신 없는 건 시작하지 말자’라는 마음 때문에 도전해 보려는 의지가 늘 짓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고민에 빠져 주저하던 사이 잡을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배님들은 저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 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공부하는 것이든, 노는 것이든) 걱정 말고 일단 바로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학년이 되어 신촌 캠퍼스로 온 후부터는 거의 전공 수업만 들었던 것 같아요. 분야가 워낙 많으니 개설되는 전공과목도 많고, 2학년부터는 마일리지로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심리학 전공과목은 맥스가 12 마일리지라 최대한 넣기만 하면 확정이어서 거의 전공과목만 들었습니다(물론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직전 학기 총 이수 학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촌에 와서도 전공 필수 과목인 ‘심리학의 실험 연구 방법’이 있는데 이 수업이 심리학개론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건 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배운 뒤 연구 설계부터 통계 분석, 논문 작성까지 시도해 보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통계 분석이 많이 어려웠는데 계속 공부하니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학술 활동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학업은 당일에 배운 내용들 복습하면서 잘 따라갔는데 1학년 때와 같은 대외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뭐든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신청한 활동이 연세심리학회입니다. 연세심리학회 임상심리 분과로 신청하여 강연도 들으며 논문 분석과 사례 연구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짧게 배운 내용이 전

부인 저에게는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활동들이었는데 같은 조 3, 4학년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잘 따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례 연구 활동에서는 선배님들과 같이 환자의 히스토리를 통해 R/O(Rule Out)도 해봤는데 진단이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연세심리학회에서는 학회원과 임원진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참여하다 보니 6기 연세심리학회에서는 학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원진들과 학회 운영에 대한 회의도 하고 학회원분들 앞에서 짧게 워크숍 강의도 해 보고 부족함이 많지만 막상 해 보니 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전하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5년도 여름 방학 때부터 좋은 기회가 생겨 신촌 세브란스 신경과에서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에게 실습을 받고 있는데요.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스캔 업무를 돕기도 하고 인지검사 참관을 하며 실제 검사 과정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검사를 직접 실시해 보며 치매 환자분들이나 파킨슨 환자분들의 인지 기능 변화를 관찰하고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적 양상과 정서적 반응을 정리하며 학부 수업 때 배운 것 이상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주 재밌게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임상심리사 하면 정신과에서만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습을 통해 신경과 임상심리사도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발전해 있으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도전해 보고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2학년 생활은 나름 만족스럽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3, 4학년 생활도 임상심리사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3

앞으로의 진로 계획

임상심리사는 심리평가와 치료를 통해 개인의 마음 건강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전문직으로, 그만큼 이론적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적 경험이 모두 요구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해 보고자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 진로를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연

세심리학회 학회장으로 활동하며 학회원들과 연구 워크숍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는 실습을 통해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의 평가 및 검사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워크스테이션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CBT(인지행동치료) 기반 디지털 치료제 프로젝트에 임상심리 연구자로 참여하여 심리적 개입이 기술과 결합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교환 학생 준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심리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배워 보고자 합니다. 현재에는 이 정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공 교수님 연구실 조교도 신청하여 실제 연구 설계와 데이터 분석 과정을 배우고 더 많은 임상심리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실무 역량을 넓혀 가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전 아무래도 임상 연구실에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 랍실마다 조교를 받는 곳도, 안 받는 곳도 있으니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RA모집 공고를 찾아보거나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 면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꼭 맞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며 배우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지금의 시간들이 결국은 제가 꿈꾸는 임상심리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4

후배들을 위한 당부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은 ‘부지런히 교류하라!’입니다. 교류의 대상은 예를 들면 과 동기, 선배, 지도교수님, 혹은 재밌게 들었던 강의의 교수님일 수도 있죠. 나에게 배움이나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학 입학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제 대학 시절의 가장 큰 행운은 진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북돋아 준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일들에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또 따뜻한 위로로 전해 준 친구들과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진로 준비에 필요한 방향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는 곳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배운 것들이 제 대학 시절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배님들도 꼭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전하고 싶은 말은 진로에 대해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고민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임상심리사를 꿈꿨던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 속에서 조금씩 길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학과 수업이나 학회 활동, 세브란스 실습, 디지털 치료제 프로젝트까지,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군가와 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길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대화가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도움을 청하고 함께 고민해 보세요. 진로는 혼자 끙끙 앓으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충분히 좋은 대학에 왔으니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부담감보다는 ‘이곳에서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주세요. 실패해도 괜찮고 방향이 조금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만남의 순간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언젠가 대학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의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구나!”하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경제로 세상을 읽고, 꿈을 키우다 기자를 향한 첫걸음



경제학부 23학번 정호영

1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분야의 책을 읽을 때, 문학이나 과학 관련 서적들보다 사회과학 분야(예를 들어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에 큰 흥미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저자의 사회과학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저는 '사회과학'의 가장 큰 매력인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결해준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과학 분야로 경제학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독서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의 행동을 잘 설명해주는 분야가 경제 분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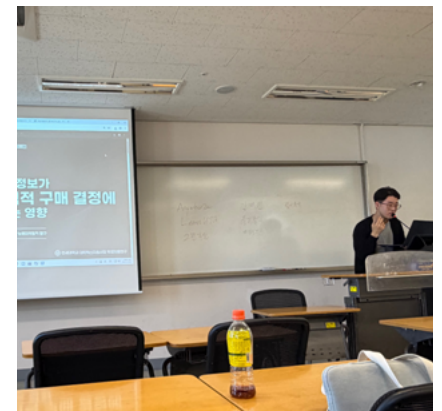
또한 저는 이러한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 나아가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국가들이 가지는 특성에 '경제'라는 영역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력을 결정하는 큰 변수라는 것을 많은 역사책과 사회과학 책들을 바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과 자료, 그리고 지식들을 접해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내가 경제학을 전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관련 이슈, 세금 관련 이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

는 개별 경제 행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화적으로 배워나간다면, '인간'의 행동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학문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나 자신을 이해하여 나아가 타인의 행동과 의사결정 방식을 파악하고자 저는 대학에 진학한다면 경제학을 전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 현재 전공 과목으로 거시경제원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원론은 한 국가의 경제 전체를 다루는 과목인데, 이 수업을 통해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이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며, 경제학의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적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학이 사회 현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 사고를 훈련하는 데 매우 유용한 학문임을 느꼈습니다.

2

나의 대학생활

저에게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즉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의 대학 생활'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꿈에 그리는 대학 생활의 로망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의 대학 생활은 단순히 학업 능력 강화 및 학과 친구들과의 추억 쌓기를 넘어, 진로 탐색과 공동체 생활, 그리고 20대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진로 방향성과 대학을 이해하는 더 넓은 관점을 배워나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의 심화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도 좋았고, 특히 교양 과목에서 있었던 팀 프로젝트는 저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나



와 다른 생각을 가진 조원들과 입장 차이를 줄여가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가 가진 장점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이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들은, 다양한 RC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1학년 지도 교수님과의 만남을 자주 가질 시간이 많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기숙사별로 나누어진 여러 하우스에서 주관하는 RC프로그램을 통해, 하우스 내 동기 RC들과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배려와 협력을 터득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C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마다 필요한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해 어떤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들, 전공 과목 수강 커리큘럼, 그리고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 및 교환 학생과 관련된 정보 등처럼, 반드시 알고 가야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로 혼란스러울 때, 1학년 지도 교수님께 방문하여 면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 최고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 사정으로 신입생 새내기 배움터에 참석하지 못하여 전공 과목 수강 커리큘럼을 비롯하여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었지만, 1학년 지도 교수님께 자주 찾아 뵈어 상담을 받으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3

진로 계획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이후에는, '경제'라는 분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경제'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경제 생활을 할 때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저는 '경제'를 알고 싶지만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또는 '경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시사 상식 및 경제 관련 이슈들을 알아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경제부 기자'가 되고 싶다는 진로를 목표로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복수 전공으로 언론홍보영상학과를 선택하여,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본 전공인 경제학의 경우 전공 기초 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으로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발판으로 삼아, 다양한 경제 심화 선택 과목들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과정을 거쳐 경제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 및 미디어와 관련된 학회 또는 경제학과 관련된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특히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한 좋은 지식을 많이 알려주는 교내의 <상경논총>에서 활동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라는 직업은 단순히 글쓰기 능력만 좋은 것이 아닌, '사람'과 직접 만나서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교내·외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인턴 활동 및 교내 근로 등을 통해 사람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저는 후배님들께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보내는 대학 생활 1년이 단순히 대학 생활의 4분의 1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 대학 생활의 3년을 내가 원하는 진로 방향 또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또는 다른 친구들은 이루었지만 나는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값어치 있는 대학 생활 1년을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어볼 모든 후배님들의 앞날이 창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응용통계학과 25학번 이수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25학번 이수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셀 수는 있지만, 셀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알게 된다면 향후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빅데이터가 유망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통계에 대한 막연한 관심'입니다. 사실 저는 응용통계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타 대학 경제금융학부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들은 전공과목이라고는 '경제학 입문'과 '수리 경제 입문'뿐이었지만, 경제학 입문 과목은 입문임에도 알아야 할 생소한 용어도 많고 내용도 많아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기에 힘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수리 경제 입문은 고등학교 때 배운 미적분과 기하의 심화 내용에 더해 행렬까지 배웠는데, 이 과목은 시험기간이 아닐 때도 잘하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경제학과보다는 조금 더 수학을 많이 하는 통계학과가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산업공학과에 관심이 생겨 통계학과 관련된 내용을 꽤 찾아본 적도 있어,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정도는 대강 알고 있던 점도 응용통계학과에 대한 저의 관심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운이 좋게도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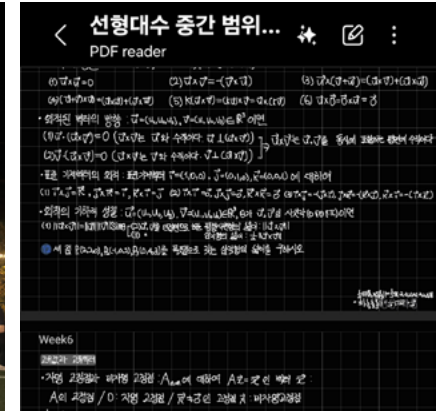
1

대학 생활

저의 대학 생활은 크게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생활과 '응용통계학과' 학생으로서의 생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 저는 국제저 산하 자치 단체인 '연세 글로벌'이라는 동아리에서 두 학기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연세대학교로 교환 학생 파견을 온 학생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며 교류하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교환 학생들과 MT도 함께 가보고, 클라이밍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고는 함께 밥을 먹으며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이 어떤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거의 매주 만나며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현재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까지도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연세 글로벌은 학기 당 세 번의 정기 모임이 있어 한국인 부원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학년 2학기쯤 교환 학생 파견을 갈 예정인데, 동아리 부원분들 중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셔서 다양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거나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동아리를 추천드립니다!

응용통계학과 학생으로서 저는 학과 소모임인 '일레스틱'이라는 밴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소 밴드 음악을 즐겨 듣긴 했지만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없었는데, 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베이스와 드럼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기마다 정기 공연을 하는데, 첫 공연이 끝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방학 때 따로 드럼 레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평소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악기 하나쯤은 다루어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대학 밴드에 로망이 있으시다면 일레스틱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 생활의 꽃은 동아리라고 하지만, 사실 핵심은 대학 공부죠? 이제 응용통계학과는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시다.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권장되는 전공과목은 '미분적분학', '통계학 입문', '선형대수', '통계 방법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적분' 과목을 수강하셨다면, 미분적분학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새로 배우는 내용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엔 기말고사 범위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급수'에 대해 훨씬 깊게 배워서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수학 과목은 버락치기가 안 통하니, 꾸준히 복습하셔야 좋



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1학년 1학기 때 통계학 입문 기말고사를 전날 공부했다가 점수를 절반도 맞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과목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아서 2학기 때는 꾸준히 복습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잘 맞는 공부법은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교수님들의 PPT도 매우 좋고 이해하기 좋지만, 직접 쓰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주 차가 끝나고 복습을 할 겸 직접 쓰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시험 기간이 닥쳐서 광범위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서 좋겠죠? 아래 사진은 제가 이번 선형대수 과목 중간고사 공부를 위해 단권화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성적이 나온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강의 자료를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대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진로 계획

제가 두 번째 문단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아직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UN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3

마지막 한마디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면 전공 서적뿐 아니라 교양 도서들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한 학기마다 한두 권씩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생성형 인공지능(Chat GPT 등)에만 의존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고,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가 종강하고부터는 한 달에 책을 적어도 한 권, 많으면 세 권까지 읽는 중입니다. 또 학교에서 오는 홍보 메일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통해 유명 작가 강연이나 진로 관련 특강 소식을 자주 접했는데, 신촌에서 열리는 강연이 대부분이라 송도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법한 강연이 정말 많아 보였습니다. 더불어 언어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어 학당의 언어 교환 프로그램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겨울에 독일로 한 달 정도 살 예정이라 독일을 공부 중인데, 말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던 참에 한국어학당에서 공부 중인 독일인 학생과 언어 교환을 하였습니다. 이 독일 친구에게 가볼 만한 독일 여행지나 한국과는 다른 독일의 문화를 추천받았고 유용한 회화 표현들도 배웠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연세대학교에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주변을 보면 메일 수신 거부하는 등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꼭 적극적으로 찾아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나중에 진로를 정하거나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짧지만,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생으로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글을 쓰며 저의 대학 생활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은 다양한 강의를 원하는 대로 수강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탐구할 수도 있고, 각종 동아리나 학회에 참가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기회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즐거운 대학 생활 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 빈곤 종식, 기아 종식, 지속 가능한 도시 등의 목표를 포함하는 세계의 공동 목표입니다. 이를 ‘국제 개발협력’ 분야라고 하는데, 현재 이 분야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해당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1학년 1학기 때 기아 자동차에서 주관하는 베트남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당시 아무런 스펙도 없이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학 자격증 공부를 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 분야는 금융권입니다. 올해 1월에 좋은 기회가 있어 을지로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본사에 가서 금융 교육도 받고, 미래에셋증권 면접관 출신 담당자님과 질의응답을 가진 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일하는 비밀 공간을 잠시 동안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 광경이 매우 멋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응용통계학과에 온 제가 금융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다소 모순될 수 있지만, 방학 동안 경제 관련 지식을 나름 쌓으려고 노력하니 영원히 어려울 것만 같던 경제와도 다소 친해졌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관심이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분야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분야인데, 바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이름부터 제 첫 번째 관심 분야와 두 번째 관심 분야를 섞어놓은 분야인 것 같지 않은가요?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국제금융기구에는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금융 기구로 세계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저소득국 지원 등을 통해 세계 경제 안정에 이바지하는 IMF(국제통화기금), 38개 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며 세계 경제 발전 및 각국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를 매년 주관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저도 아직 1학년 수준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동 시간마다 ‘grounded news’, ‘NPR’ 앱을 통해 영어로 된 세계 뉴스를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국제 정세 파악과 영어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연세에서의 발자국은 길이 된다



경영학과 20학번 오은지

안녕하세요, 지난 학기 학교를 막 졸업하여 사회로 첫발을 내딛은 졸업생 오은지입니다. 그동안 연세대학교를 다니며 대학 안팎으로 쌓은 제 여행의 발자취를 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1

진로 길잡이가 되어 줄 나의 전공, 경영학

저는 국어보다 수학을, 영어보다 화학을 즐겁게 공부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평범한 이과 학생의 이야기 같지만 문제는 제가 이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 공대 혹은 자연대에 진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수학을 언어처럼 활용하는 상경대 진학을 고민하던 중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선택의 폭을 가장 넓힐 수 있는 경영대를 추천한다는 선배의 말에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선배의 말처럼 경영학과는 진로에 대한 가장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할 때 이미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

고 전공을 결정했겠지만 사실 진로 고민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은 기업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재무, 인사, 마케팅, 전략 등 수많은 실용 학문을 한데 묶어 놓은 학문인 만큼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 주고 또 방향을 바꿔야 할 때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2

한 학기의 신촌, 5년 반의 연세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대부분 동기와 송도에서 즐겁게 1학년 생활을 하다가 2학년 혹은 그 이후부터 신촌 캠퍼스에서 선배들과 함께 지내게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평범하고 활기찬 대학 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학년은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본가에 머무르며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삼삼오오 모이는 동기들을 보며 이렇게 대학 생활이 끝나 버리지는 않을지 조바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 집은 서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대신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꼭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했습니다.

2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코로나가 심각했습니다. 몇 개의 학과는 대면 강의와 블렌디드 강의를 시작했지만, 경영학과는 2학년부턴 전공에 진입하기에 들 수 있는 전공 수업은 전부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강의였습니다. 이에 저는 3학년 1년을 독일에서 교환 학생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한 학기 휴학을 한 후 과외와 실내 놀이기구 안전 요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교환 학생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난 동료들과 취미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기도 하고 대학 입학 후 잠시 잊고 있던 독일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3학년 1년은 계획했던 대로 독일 베를린으로 교환 학생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한

국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어 멘토링을 하며 즐겁게 언어 교환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밥을 매 끼니 해 먹는 것도, 교통비가 부족해 파리까지 12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녀왔던 기억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교환 학생을 다녀와서는 또다시 1년 반 동안 휴학생으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보니 정말 긴 시간 휴학 생활을 한 것 같네요. 그사이에 1년은 송도에서 RA로 지내며 수많은 새내기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장애 학생 생활 개선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했던 과정과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디아스포라 영화제 측과 연락을 주고받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한 학기는 본격적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 CPA 공부를 해야 하나 싶어 기본 강의 몇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와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 솔루션 공모전에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참가하여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4학년 1학기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신촌 생활 새내기인 첫 학기가 제 졸업 학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연 동아리에 들어가 국악 관현악을 누구보다 열심히, 즐겁게 배웠습니다. 동아리방에 살다시피 하며 오래 활동한 부원은 아니지만 많은 동아리원과 친해질 수 있었고, 제게도 대학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궁중문화축전 자원봉사자인 '궁이동이'로 활동하며 고궁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공연장 안내원으로 행복하게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도 진로를 확정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제가 목표로 하는 것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졸업 직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3

앞으로 채워갈 백지 지도

저는 현재 졸업 직후 모 연구소의 HR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연구소 특성상 처음부터 HR로 지원한 것은 아니었고, 경영관리직을 통합하여 선발하는 전형에 합격해 입사 후 현 부서로 배치 받았습니니다. 인사 직무는 기존 경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인사 분야의 진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인사 분야는 차치하고, 이렇게 졸업 직후에 일을 시작하게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경영학과라면 대다수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턴 경험이나, 학회 경험도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사실상 제대로 된 캠퍼스 생활을 누린 시간은 한 학기 남짓으로 매우 짧지만, 연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내내 어떤 경험을 하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활동했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스펙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만 1년 간의 RA 활동으로 문제 해결력과 적극성을, 교환 학생 경험으로 국제적 역량을, 그리고 공연장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소통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본전공이 아니더라도 호기심이 생기는 과목은 적극적으로 찾아 들었기 때문에 조기 졸업 요건을 채울 수 있었고, 비교적 긴 휴학 기간에 대해 우려하는 면접관들에게 성실성을 어필할 수도 있었습니다. 휴학 중 취미 삼아 자격증-취직과 직결되는 난도 높은 자격증이 아닌, 한국사처럼 취미 삼아 공부하면 금방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공 기관인 연구소에 취직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진로이지만, 미리 한국사와 토익을 취득해 두었던 덕분에 별다른 준비 없이 곧바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자신의 길을 찾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 업무에 적응 중인 막내 중의 막내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기대되는 나날입니다.

4

이제 막 여행길에 오른 후배들에게

어쩌면 4년 내내 치열하게 한 갈래의 길을 향해 나아간 선배의 이야기를 기대한 분들께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 의아함과 궁금증만 더해준 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글을 쓰며 생각한 후배님들은 일찍이 본인의 진로를 찾아 빠르게 나아가고 전문직 시험에도 척척 붙어 가는 주변 선후배와 동기들을 보며 방황하는 과거의 제 모습이었나 봅니다.

물론 돌아보면 저의 짧은 대학 생활 중에도 아쉬움이 곳곳에 남습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선택의 연속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학비를 내고 다녀오는 교환 학생을, 자비로 총당하기 어려운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미국의 유명 사립 대학교들이 아니라 굳이 학비가 거의 없다시피 한 독일로 가야 했을까요?’, 혹은 ‘귀국 직후 휴학을 오랜 기간 하며 학과 생활을 포기하고 RA로 송도에서 지내야 했을까요?’와 같은 질문들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교환 학생을 독일로 다녀온 덕에 3년간 배웠던 독일어를 입 밖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있었고,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 멘토링을 진행하며 가르치는 즐거움과 소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A로 1년간 활동한 덕분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코로나와 교환 학생으로 인해 부족했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들보다 더 나은 결과로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던 선택을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진로를 확정하기 전 길 주변의 꽃과 바람, 글과 음악을 즐기며 최선을 다해 방황해 본 경험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의 길에 올라 빠르게 달려가는 분들께서는 박수를, 아직 주변을 둘러보며 어느 길이 나의 길이 될지 찾아가고 있는 분들께는 응원을 전합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경영학과 24학번 김시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24학번 김시은입니다.

“Far away U're my sunshine we we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거야” 평소 밴드 노래를 즐겨듣는 분이라면 제목을 보고 알아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제가 즐겨듣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저에게 있어 대학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통해 제가 어떤 이유로 경영학과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의 여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전공 선택 이유

‘내가 경영학과 학생이라니.’ 제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가장 많이 떠올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타 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2년 정도 수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지망 학과를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쫓기듯 전공을 써 내려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순간에 저는 그 답을 스스로가 아니라 제 바깥에서 찾았습니

다. 그렇게 진학한 첫 학교에서의 생활은 재밌었지만 알 수 없는 묘한 불안함이 매일 맴돌았습니다. 3학년 진학을 목전에 둔 시점, 저는 또 다시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만 골몰했을 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주어진 기회 속에서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전공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역동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명확한 몇 가지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기에 따라 어떤 것이든 꿈꿀 수 있는 전공의 개방성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교육 목표는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영학과의 커리큘럼은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 경영학의 대표적인 세부 전공뿐만 아니라 금융, 법부터 머신러닝까지 폭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이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경영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타 학과의 강의임에도 경영학 전공 선택 과목으로 교차 인정을 받아 현재 미시·거시경제원론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학과 학생으로 공부하시게 될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본인을 몇 가지 틀과 진로에 가두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영학과의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충분히 누리며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향을 찾아나가기길 바랍니다.

2

지금까지의 대학 생활

1년간의 RC 생활

학교에 갓 입학한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1년간의 송도 생활이겠지요? 저는 연세대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이 바로 송도에서 보내는 RC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RC, 즉 Residential College란 다양한 학생들이 Residence에서 함께 생활하며 학습 활동, 공동체 활동, 문화 활동 등을 함께하는 거주형 학습 생활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R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총 12개의 하우스 중 하나를 배정받아 RC 생활 내내 함께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저는 운동주 하우스에 배정받아 1년 동안 생활했었는데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1학기 때 2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하나씩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과 함께 맞춰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학과의 1학년 학생들끼리 룸메이트가 될 텐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앞으로의 학교생활 동안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채로운 RC 프로그램은 RC 활동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RC 필수 이수 시간인 12시간을 채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유익한 활동들이 많으니 꼭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학기에 참여했던 라틴음악 연주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라틴음악은 신나고 흥겹기만 한 음악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라틴음악의 매혹적인 바이브와 스윙을 새롭게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생활 외에도 다양한 친목 활동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커리어 페어, 선배 강연)까지 알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잘 활용한다면 더욱 풍성한 송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교내 활동

제 학교생활에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학회입니다. 학교에 첫 입학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총 2개의 학회(학술동아리)를 거쳐 왔는데요. 먼저 1학년 때는 JSC PREP이라는 학술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JSC는 Junior Scholarship Club의 약자로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지식을 나누는 학회입니다. 그 중 JSC PREP은 상위 챗터 진입 전 책을 읽고 나누며



▶ JSC 총 컨퍼런스 행사 사진

기본 소양을 쌓는 학회 산하 모임입니다. JSC PREP은 연세대 유일의 국제 캠퍼스에서 열리는 학술 동아리로 1학년 학생들뿐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JSC PREP에서 활동하며 평소 접해보지 못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여러 배경의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었고 덕분에 과학, 철학 등 생소했던 분야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1학기 동안 회장으로 활동하며 책임의 중요성과 협력의 가치를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인 지금은 법을 다루는 ‘Sherpa’라는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herpa’는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산하의 법학회로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저는 법과 행정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평소 공익적인 관점에서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영학도로서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도 환경은 어떨지 궁금증이 들어 학회에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는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공부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은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지식을 키우고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당장 학회 활동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워크스테이션은 학생 주도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연세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25년 상반기 기준 200개가 넘는 팀이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은 매학기 초마다 워크스테이션 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팀을 꾸려 참가할 수도 있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에 지원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파동’이라는 워크스테이션 팀에서 활동 중입니다. ‘파동’은 잊혀 가는 실종 아동 문제를 알리고 실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팀입니다. 이처럼 워크스테이션은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만의 방식으



▶ 워크스테이션에서 준비한 커피차 행사

로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외에도 동아리 활동, RC 창의 플랫폼 대회 등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매우 많으니 관심 있는 활동이 있다면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앞으로의 학교생활

지금도 저는 여러 가치를 경험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씩 탐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herpa’에서의 활동을 통해 법률뿐만 아니라 수많은 규제와 제도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스타트업, 즉 기업에 유리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저는 기업 관점에서의 법률 자문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측면에서의 제도 ‘개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 경영, 행정 등 다양한 전공의 강의를 수강하며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 싱가포르 교환 학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허브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기업환경과 규제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싶습니다.

4

후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학교생활의 반환점에 다가가는 지금 시점에 드는 생각은 ‘나쁘기만 한 경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험이 좋을 수는 없지만 나쁘게만 보이는 경험 속에서도 본인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점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며 비로소 그 의미가 보이는 경험들

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험이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가치를 당시에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학 생활 동안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폭넓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경험, 스펙이 될 것 같은 경험 보다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만 보아도 머리로 하는 결정보다 솔직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결국 저를 위한 결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내가 오롯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찾고 스스로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 25년 아카라카 축제 현장

또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처럼 세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 동안 혹여나 좌절, 실패, 공허함을 주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대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파이팅!

나의 진로이야기



경영학과 24학번 이현중

1

전공 선택 이유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21학번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과의 특성상 특정 학문을 깊이 있게 배우기보다는 국제 사회의 여러 안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육 방식에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자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후 2022년 9월에 군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책도 많이 읽고 여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경제와 금융의 세계'에 가장 큰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심은 군 시절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조언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제와 금융 전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입대 전까지 주식 투자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고 매출을 분석하는 등의 경험을 쌓으며 더욱 그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군 복무 시절의 고민을 바탕으로 저는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관련 지식을 한층 심화시키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군대에서 입시에 재도전하였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현재 2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며 관심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그러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사는 이미 마음속에 있던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

대학 생활

지금까지의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SC prep 학술 동아리 활동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이 신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학년 때 송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송도에서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송도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독서 토론 학술 동아리인 JSC prep에 가입하였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지도 교수님의 참관 아래에 독서 토론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기에, 동아리에서의 활동은 전역 후에도 꾸준히 독서를 습관화하고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서는 간접적인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는 과정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꾸준히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A 활동

저에게 있어 1학년 때의 RC 생활은 매우 특별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서 취미 개발, 진로 탐색,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업 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학년이 되자 단순히 하우스의 일원이 아니라 하우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입장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하우스 RA로 지원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송도와 신촌



을 오가야 한다는 점이 다소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에서든 동아리 임원진이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운영자'의 관점에서 참여해 본다는 것은 큰 배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RC 생활이 즐거웠던 분들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 기획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RA 활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혹은 장학금을 목표로 도전 하셔도 좋습니다.

3

준비 중인 진로 이야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가장 어렵고 막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저의 관심사가 경영 및 투자에 있는 만큼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전공 지식을 한층 심화하고, 제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그 결과 CPA 취득이

가장 효과적인 목표라고 판단하여 이를 당면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영학과는 대형 학과로서 회계, 마케팅, 투자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 혹은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을 설정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저학년일지라도 일정이 되신다면 기업 설명회나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학교 공부에서 접할 수 없는 실무 경험과 현직자의 이야기는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후배에게 한마디

경영학과의 졸업 요건에는 '경제학개론'과 '통계학입문'이 필수 교양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1학년 때 송도에서 많이들 수강하는 편입니다. 위의 교양들은 단순히 졸업 요건의 충족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경영학 전공과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핵심 과목들입니다. 따라서 두 과목을 경영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가능해 보는 척도로 삼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수강 신청 때부터 이미 학점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2학년부터는 마일리지 제도로 수강 신청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총 이수 학점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수업을 안정적으로 듣고 싶다면, 저학년 때부터 미리 학점을 많이 들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영학과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사례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점에서,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워서 어디에 쓰지?"라는 고민을 비교적 적게 할 수 있고 그렇기에 배움의 성취감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며 저 역시 지난 대학 생활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년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계획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식(physics)대학 물리학 전공

*

물리학과 24학번 신해민

1

물리학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이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감각이 포착하는 대부분의 역학적 사건(예컨대 총돌, 변형, 마찰, 지탱력 등)을 연결하는 힘인 전자기력이 단순한 네 개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니, 세상이 거대한 언어 체계로 짜여 있는 듯한 감각을 주었습니다. '물리학은 우주의 언어다. 수학은 모든 과학의 언어다.' 이 문장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물리학은 단순히 고등 교육 과정의 한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문제집 속 몇 줄짜리 수식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으로 우아했습니다. 감정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성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쁨은 저에게 가장 깊은 형태의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고, 자연과 대화하는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물리학과로 이끌었습니다.

2

2년간의 대학 생활

1학년, 국제캠퍼스의 RC교육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RC 생활 특성상 동기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기숙사 세미나실을 대여해 시험기간에 동기들과 밤새워 공부하고 천원의 아침을 먹거나 캠퍼스타운의 국밥집에 터덜터덜 걸어가며 느꼈던 아침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동기들은 '국밥올림'이라는 식당을 좋아했지만, 저의 최고 국밥집은 '양평해장국'이었습니다. 우거지해장국이 제가 가장 애정하는 메뉴였습니다. 사실상 동기들과의 공부는 함께하는 식사가 즐거워서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과 공부를 하다 배달시켜 먹는 간식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빙수, 육회 등 다양한 배달 음식을 도장 깨기를 하듯 도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먹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 글을 쓰니 공부는 별로 한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기숙사는 집중해서 공부하기에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물리학과 특성상 한 주제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동기들이 많아, 한번 토론이 시작되면 3시간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중력이었습니다. 중력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학부 1학년의 한정된 얇은 지식으로 나눴던 대화였지만 그 순수한 궁금증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열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수강하는 일반 과목(일반물리학, 일반화학 등)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다른 전공의 수업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천문우주학개론을 수강하였습니다. 우주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욕



▶ 물리학과 24학번 단체사진

심으로 결정한 것이었지만 전공 이해를 한층 넓혀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구름 끼지 않은 밤이면 항상 캠퍼스에 나와 목성을 관측했습니다. 국제 캠퍼스가 도심지에 비해 공터가 넓고 밝지 않은 공간이 많아 밤하늘을 관측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외에도 날씨가 좋으면 동기들과 도서관 앞 벤치에 누워 별자리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때론 철학적이고 때론 유머러스했던 대화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2학년이 되고 신촌 캠퍼스에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전공의 깊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전공과목들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문제를 풀고 이론을 정리할수록 그 논리가 얼마나 정교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물리학의 매력을 감정적으로 느꼈다면, 2학년이 된 후에는 그것을 논리로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며 중요하다고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링과 수학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물리학은 수학적 사고 없이는 서술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끈기 있게 수식을 전개하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복잡하게만 보이던 문제 속에서도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과하게 복잡해 보인다면,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모델링입니다. 현상을 단순화하면서도 본질적인 물리적 의미를 잃지 않는 모델을 세우는 능력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가장 간결하면서 가장 복잡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미묘한 균형이 물리학의 묘미입니다.

신촌 캠퍼스는 국제 캠퍼스와 달리 다양한 학번과 전공의 학생이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자연스럽게 교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양자 정보 동아리에 가입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접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개념과 선형대수, 양자역학적 사고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학술적인 영역 외에도 밴드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이과대학 락밴드 동아리 '가이야'에 가입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공의 사람들과 함께 합주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기타 연습을 하며 느낀 작은 성취감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주는 좋은 균형점이 되었습니다.

3

물리학과 학우들의 진로

물리학과에 진학한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모든 이공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먼저,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리학과 대학원은 크게 핵·입자·천체 물리학, 응집물질물리학, 응용물리학 3가지 주요 분야로 나뉩니다.

핵·입자·천체 물리학 분야는 자연을 구성하는 가장 미시적인 기본입자부터 거대한 천체와 블랙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연의 기본 단위를 양자장의 들뜸으로 이해하며, 입자와 장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분야이며 대표적으로 힉스 보손, 뮤온, 뉴트리노와 같은 입자들에 대한 실험 및 이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미시 세계의 법칙이 거시적 우주의 구조 형성과 진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집물질물리학은 물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준입자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이해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고체물리학에서는 주기적으로 배열된 원자 격자 속에서 전자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통해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을 설명합니다. 초전도나 양자스핀액체와 같은 미시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거시적 질서를 분석합니다.

응용물리학은 물리학의 원리와 지식을 실제 기술과 공학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반도체물리학(물질의 전자 구조와 소자 응용 연구), 광물리학(전자기 복사의 성질과 제어 연구), 생물물리학(물리 개념을 생명현상에 적용하는 융합 분야)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리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경우 물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 재산권 분쟁이나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며 쌓은 사고력과 논리적 분석력을 기반으로 기술 기반 법률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를 졸업한 이후 취업을 한다면 복수 전공을 통한 진로 확장이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공과대학의 전공을 복수 전공하여 전자, 에너지, 기계 산업 등 기술 기반 기업의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영학, 경제학, 응용통계학 등 상경계열의 전공을 복수 전공하여 데이터 분석, 금융, 컨설팅 등 사무직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리학 전공을 살려 교직 이수를 통해 과학 교사로 진출하거나 교육 업계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물리학과는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그만큼 길을 잃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만큼 오래 살아온 것도, 대단하게 이론 성취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은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보다 훨씬 길고 다양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여정이며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나름의 인생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더라도 추구하는 방향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조금씩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이 대학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내기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야기



화학과 23학번 최민정

안녕하세요! 화학과 23학번 최민정입니다. 글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짧지만 제 경험이 여러분께 어떤 방향으로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화학을 선택한 이유

학과를 선택해야하는 시기에 스스로 좋아하는 일과 관심을 가졌던 공부를 천천히 생각해봤어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만큼은 현실과 동떨어져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인간의 손을 타지 않는 모든 자연적인 일을 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학을 선택한 건 이런 호기심을 가장 멋지게 풀어줄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화학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연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설명하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분야가 다양합니다. 하나만 깊이 공부하는 데 소질이 없던 제게는 화학을 선택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해결책이었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저는 경험한 적 없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직접 해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동기들과 나가서 놀기도 해야 하고, 강의도 들어야 하고, 학교 주변의 맛집도 전부 가 봐야 하고, 몰아치는 과제도 기한 내 제출해야 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탓에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 하루를 꽉 채워 보냈던 것 같네요. 새내기 시절 경험한 많은 것들 중에서도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들이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씩 꼭 도전해 보길 바라요.

학기 초에 사진 동아리와 밴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다양한 과의 신입생과 선배들이 가득해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기에 한 번 있는 큰 공연이나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에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열정을 쏟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때 맺은 인연들은 아직까지 잘 만나고 있답니다. 학기 초에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에서는 연달아 동아리 박람회를 해요. 교내 동아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꼭 돌아다니면서 하나쯤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신촌 캠퍼스에서만 활동한다면 조금 힘들겠지만 찾아보면 국제 캠퍼스 활동을 따로 하는 동아리들도 많습니.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에요. 그 자체로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저는 RC창의플랫폼이라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 대회에 참여했어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끼리 약 1년 동안 자유롭게 사회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만나 회의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점차 발전하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기한이 1년이나 되는 만큼 열정의 정도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시간에 열심인 것보다 장기간에 걸친 꾸준함이 훨씬 보람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좌절과 실패가 당연하게 뒤따라오지만 함께 겪는 팀원들과 그만큼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또 저는 라이프아카데미-RC연계 교과목을 수강했어요. 한 번 수강 신청하면 1년 동안 진행되는 교과목입니다. 1학기에는 사회봉사, 여름 학기에는 1학점 계절 과목으로, 2학기에는 3학점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에요. 지금은 개설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이 과

목은 통상적인 수업 방식을 벗어나 학생의 주도로 수업이 진행돼요. 저명하신 분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주저 않고 의견을 말하고 생각하는 바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고전 문학, 예술, 경제, 과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다루면서 저도 몰랐던 제 관심사를 찾게 되었지요. 지금까지도 관련 서적을 읽는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꼭 이 과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과목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꿀강만 찾지 말고 이런 과목을 수강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라이프아카데미 수료식

저는 학교 밖의 상황에도 참 관심이 많았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기자단 서포터즈를 하게 되어 학생 기자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 글을 썼습니다. 객관적인 면모와 약간의 주관적인 의견을 섞어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쓰는 일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2년 간 활동하다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에요. '캠퍼스픽'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외 활동, 공모전, 스터디 모집 같은 여러 홍보글이 올라와요. 자신에게 꼭 맞는 활동을 찾을 수도 있으니 자주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저는 단과대학 학생회 부원으로 일을 했어요. 단과대학 행사나 과 행사 등을 담당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걸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머리를 싸매며 고민했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팀원이 다 같이 고생해 작은 성공을 이루는 일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회 부원 경험을 살려 2학년에 과 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면 기회가 찾아오기 쉬운 것 같아요. 지금은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요. 종종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행사 기획부원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외에도 다른 교내 행사 부원들을 모집하기도 하니 관심 있으시면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새내기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안팎으로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걱정 없이 도전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공부도 과제도 물론 열심히 해야 하지만 가끔은 그들을 조금 미루어두고 더 넓은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길 바라요.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새내기는 무얼 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알기 전에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시기이니깐요.

3

진로 이야기

화학과를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부분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많은 길이 있습니다. 화학은 기본적으로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을 배워요. 이 네 가지 과목을 기본으로 여러 갈래가 존재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세분화 된 과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무기신소재화학이나 물리유기화학이 있겠네요. 여러 갈래를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길 바라요.

저는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분야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방학 중에 연구실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저는 타 대학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대학교에서 인턴을 지냈어요. 이론으로 공부하던 것을 실험실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대학원을 고려하기 시작했지요. 보통 연구실 인턴은 2학년부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새내기 때 미리 조금 알아두었다가 신촌 캠퍼스로 와서 여러 분야를 도전해보길 바라요.

저와 같이 조금 더 공부해 보고자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졸업 후 취업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공과대학 복수 전공 후 반도체 기업으로 가거나 생명시스템대학 복수 전공 후 바이오, 제약 회사 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외에도 화학 이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복수 전공해 여러 갈래로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 필수는 아니지만 선택의 다양성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

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화학과에 진학했다고 무조건 화학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소수이지만 본인의 적성을 찾아 아예 다른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CPA 혹은 보험 계리사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동기들도 꽤 있어요. 이런 경우 휴학을 통해 잠시 쉬면서 관심이 생긴 시험에 대해서 공부해보거나 혹은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사용해도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선택보다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데 속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얼마가 걸리든 자신이 갈 길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할 때 뿌듯함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일 때 불안함을 느끼는지처럼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기 바라요. 진로를 고민하는 건 신촌 캠퍼스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4

후배에게 보내는 말

다양한 사람과 인연을 맺어 보세요. 학과,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각자의 고민들도 많이 털어놓으시고요.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도 좋지만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서로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보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견이 점차 변하게 되어요. 그런 순간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미리 단정 짓는 버릇이 있다면 꼭 고쳐 보세요. 공부나 성적, 혹은 도전해 볼까 싶은 모든 것에 대해서요. 설사 빠른 결과를 가졌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 포기한 과목도 있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하지 않기로 한 활동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어려웠던 공부는 조금만 파고들면 금방 깨우칠 수 있었고, 하지 않기로 한 활동은 지금으로서는 다시 시작할 수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니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내 볼 걸 하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학금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정말 많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가능한 재단을 중점으로 꼭 한 번 찾아보고 신청해 보는 걸 추천해요. 대부분 교수님 추천서가 필요할 텐데 연세 포탈 서비스에서 학부 교수님과 면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추천서를 요청드리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니 꼭 신청해 보세요.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학부 생활 중 고민이 있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면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니 이 점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송도 해돋이공원]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국제 캠퍼스와 멀지 않으니 꼭 가보세요!

저는 워낙 다양한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보았어요. 한 사람의 경험담이다 생각하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골라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대학 생활은 본인의 자유이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만의 멋진 대학 생활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멀리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에 질문하고 나만의 답을 탐험하자



천문우주학과 대학원 25학번 김연수

1

전공 선택 이유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갱의 그림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현자가 고민한 문제이다. 언뜻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은 인류가 세상을 탐구하게 만든 근원적 동력이었다. 우주 탐사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거대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극한의 환경을 건디는 기술의 총합이자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에 대한 과학적 답변이다. NASA의 주요 미션들은 ‘우주와 태양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Origins)’, ‘세상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가(World)’,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가(Life)’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철학의 세 축인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의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인류는 기술이 있어서 우주를 탐험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기술을 만들어 왔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존재”라고 했다.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의 증명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이며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상호 작용을 할 때 문명이 발생하고 발전한다. 즉,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사유가 현실로 구현되는 형태이며 현대 과학 기술의 최전선인 우주 탐사는 그 사유의 정점에 있다. 나 또한 세상에 질문하는 인간으로서 현대 문

명의 탐험선과도 같은 우주 미션에 매료되었고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이 거대한 지적 모험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우주 분야의 연구자를 꿈꾸며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 들어왔다.

2

나의 대학 생활

대외활동

그러나 내가 입학하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생활이 전면 중단되며 나의 대학 생활은 처음부터 조금 어긋났다. 대학 선배와 교수님 등 멘토와의 접점이 사라지고 혼자 길을 잃은 듯한 시간을 보내던 나는 문득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올랐다. 좋아 보이는 일도 흉이 될 수 있고, 나빠 보이는 일도 복이 될 수 있다는 뜻처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회로 볼지 장애물로 볼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에서 팀원들과 멘토링 활동, 문제집 공유 활동, 학생 심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며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 대입을 위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면서도 대학교에서는 꼭 이런 일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휴학을 한 이때,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다시 해 보자는 마음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팀은 당시 뉴스에서 팬데믹 상황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해 소외되는 지체 장애인의 이야기를 접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이에 복지관을 통해 지체 장애인과 인터뷰를 하고 시중의 장애 보조 용구를 분석하며 기존 제품들이 스마트폰 조작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강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마우스, Mouth Mouse”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작동하는 10배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이를 출품하여 연세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우수상(60팀 중 상위 5팀),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Workstation Show-

off Festa II Best Choice Award(200팀 중 2팀), 그리고 BK21 대학원생 창업경진 대회 우수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였으며 2022년 ‘구강을 이용한 조종 장치’로 특허원부에 등록하였다. 첨부한 사진은 캠퍼스타운의 지원을 받아 신촌 유플렉스 전광판에 우리 제품의 광고를 게재했을 때 촬영한 사진이다.



신입생 시절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진 못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을 정말 나만의 경험으로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었고 향후 내가 다양한 일에 도전하는데 큰 자신감이 되었다.

교환 학생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나는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미국 UCLA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제어 공학을 처음 접했다. 제어는 입력과 출력의 상호 작용에 대한 학문이다. 입력은 시스템을 거치고 변형되어 다른 형태로 출력된다. 이에 따라 나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출력될 수도 있지만 시스템을 잘 이해한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위성 제어에서 지구 질량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J2 섭동은 위성 궤도에 변형을 주는 요인이지만 이 효과를 잘 이용하여 별다른 추력 없이 자동으로 태양동기궤도를 유지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제어는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내며, 이러한 성질이 내가 추구하는 바와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게 되었다.

또한 NASA JPL 박사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Spacecraft Design” 수업을 들으며 Psyche, JUNO, Mars Rover 등 다양한 미션에 참여했던 연구원분들의 강연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 미션을 직접 설계해 보았다. 이때 10명의 조원을 이끄는 팀의 조장(System Engineer)이 되어 Comet Sampler Mission의 전반을 설계하고 영어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

서 우주 탐사에서 위성과 탐사선 제어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은 지구와 다른 환경에서 오는 불확실성임을 알게 되었다. 우주선 제어의 핵심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보상할 수 있는 강건한 제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나는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보상하는 제어 기법을 연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교환 학생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의 “Robust Control”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며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한국에 돌아온 뒤 2025년부터는 연세대학교 Autonomous Spacecraft and Robotic Systems (ASPROS) 연구실에서 강건 제어 및 자동 제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진로 계획

연구 배경 및 내용

우주 탐사는 미지의 영역을 탐사해야 하므로 물리적 환경, 질량 변화, 위치-자세 결정의 노이즈, 통신 및 제어 지연, 시스템 상호 의존성, 장기 미션에 의한 요인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우주 미션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Verification & Validation(V & V)을 수행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샘플러 미션과 랜더 미션은 높은 과학적 가치를 지녔지만 큰 불확실성과 정밀한 제어를 요구하여 막대한 개발 비용과 장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이미 풍부한 임무 경험을 보유한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건 제어(Robust Control)는 불확실성을 설계 요소로 고려하는 제어 기법으로 고전 제어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체계화되어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우주 분야에는 아직 광범위하게 도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강건 제어 기법은 모델 불확실성과 외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AI 기반 기법 대비 높은 검증 가능성과 신뢰성을 가지므로 향후 우주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로보틱스, 차량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어 우주 기술과의 결합 시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나는 2025년부터 연세대학교 ASPROS Lab에서 학부 인턴으로 활동하며 여러 불확실성 요소 중 제어 간격에 의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제어 기법인 Variable-step Time Delay Control(VTDC)을 개발하였다. 위성 제어에서 제어 간격의 설정은 제어 성능과 안정성, 연료 효율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짧은 제어 간격은 제어 정확도를 높이지만 잦은 제어로 연료가 낭비될 수 있으며 지연에 취약하다. 반면에 긴 제어 간격은 연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제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로 인해 적절한 제어 간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시스템과 외란에 따라 상이하여 결정하기 어렵다. VTDC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스템의 변화를 기반으로 제어 간격을 조절한다. 이 제어 기법을 위성 편대 유지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결과 제어기가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 간격을 조절해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성과를 6월 한국항공우주학회 주관 2025년도 우주학술대회와 10월 국제 학술대회인 2025 APISAT에서 발표하였다. 이후에는 자세 제어 환경으로 확장하여 성공적으로 제어를 수행하였고 이를 11월 예정된 2025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제어기의 이론적, 수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환경에서 장비를 이용한 자세 제어 실험을 후 연구 결과를 SCIE 저널에 출판하고자 한다.

연구 확장 계획

현재 나의 연구는 물리적 환경의 불확실성, 위성 질량의 불확실성,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고려하나 위성의 위치와 자세 결정에 의한 불확실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우주 상황 인식 (Space Situation Awareness, SSA)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센서 노이즈 및 추정 오차를 고려한 강건제어 구조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센서-제어 루프 통합(System-level Robustness)”의 개념을 확장하고 관측 불확실성까지

지 포함하는 실질적 제어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큐브 위성은 저비용·고효율의 실험 플랫폼으로 향후 심우주 소형 탐사 임무의 핵심 Testbed가 될 것이다. 실제로 2018년 화성 InSight 미션에 동반된 두 대의 큐브 위성 (MarCO-A, B)은 착륙선의 EDL(Entry, Descent, Landing) 과정을 성공적으로 중계하며 심우주 큐브 위성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SPROS 연구실은 현재 화성 EDL 제어 과제를 수행 중이다. 나는 석사과정 동안 연구한 VTDC 및 SSA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러한 화성 EDL 보조 미션의 제어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여 실제 임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석사 학위 취득 후 계획

연구자로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실제 우주 미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미션이 과학적 성과로 이어져 내가 세상에 던졌던 질문인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의 단서가 되길 바란다. 현대 사회는 환경, 갈등, 자원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도 복잡해서 어디부터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에 들어서며 기술을 통해 복잡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낸 사례가 많다.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예측한 인구 문제가 농업 기술의 발달로 해결된 것이 그 예다. 현재 누군가는 인류의 화성 이주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또 우주의 많은 자원들을 상용화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는 그런 미션에 참여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고 싶다.

이를 위해 석사 졸업 후에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우주선의 비선형 동역학 제어와 항법 시스템을 더욱 심화해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NASA JPL 등에서 진행 중인 우주 탐사선의 제어·항법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제 미션 운용 경험을 쌓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설계가 결합된 연구자로 성장하고 향후 국제 공동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서 제어 및 항법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고자 한다. 나의 연구가 인류의 탐사 여정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적 통찰로 답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탐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세상에는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 그러나 바로 그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경험이 되곤 한다.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자산이 된다. 나는 2023년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장학재단에 지원서를 내고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미국에서 연구실 인턴을 해보고 싶어 여러 곳에 메일을 보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 오기가 미션 디자인 수업 팀장이나 대학원 수업 도전으로 나를 이끌었고 지금 연구 주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디로 도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후배들에게는 스스로와 깊이 대화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내 안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묻다 보면 언젠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그 답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코로나 시절 방황하던 나도 단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Mouth Mouse’를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내 대학 시절 최고의 경험이 되었다. 그러니 완벽한 계획보다 진심에서 출발한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그 발걸음이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서 살아가는 법



대기과학과 23학번 이수윤

1

대기과학과가 뭐가요?

주변에 대기과학과에 다닌다고 하면, 대부분은 무슨 과인지 모르거나 졸업 후 기상청에 가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기과학과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학과입니다! 여러 이상 기후와 기후 변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21세기에 대기과학은 교양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중요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과학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기초 과학 지식과 야외 관측, 원격탐사, 수치 모형, 슈퍼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일기와 기후, 대기의 물리-화학적 현상의 이해와 예측 및 대기환경의 핵심 문제들을 연구하는 첨단 학문입니다. 대기과학과 학과 소개에는 워처럼 어렵게 적혀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당장 몇 시간 후의 날씨를 예측하기부터 100년 후 지구의 기후변화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대기현상을 분석 및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단순히 지구과학 교과목 속에서 배운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의 변화에서 대기과학이라는 학문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겨 대기과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막상 진학하여 전공과목을 들어보니 우리 삶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매력적인 학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요즈음 장마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작년에는 추석까지 무더운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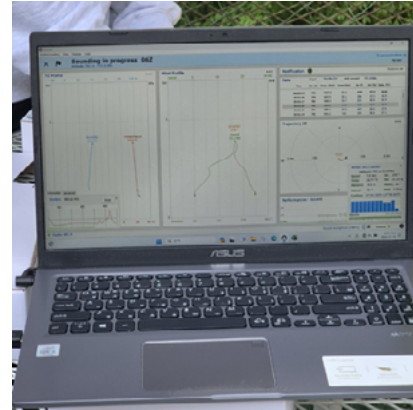
가 유지되거나,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기후가 진짜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기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등의 무서운 기후 변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실제로 대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 바로 대기과학입니다.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인 대기과학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2

나의 대학 생활

대기과학과는 한 학년마다 대략 30명 내외로, 소수 과에 해당합니다. 소수 과에 대해 편견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학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사람이 적은 만큼 학과 사람들끼리 모두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친해지기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이후에 신촌에서 전공 수업을 듣다보면 과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 후배들과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어 손쉽게 과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 성비도 1대1로, 이과대학 내부에서 화학과 다음으로 여학우가 많은 학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수 과라고 하더라도 남녀 고루 친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현재 3학년 2학기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남자 동기, 곧 졸업하는 선배를 포함하여 같은 학번 친구들과 열댓 명과 얼마 전 캠핑을 다녀올 정도로 학과 사람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중입니다! 또한 과 내에 '247'이라는 밴드동아리도 있어 밴드 동아리를 하면서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기과학과의 특별한 학과 생활을 이야기하자면, MT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과는 연세대학교에서 유일하게 MT에서 라디오존데를 날리는 학과입니다. 라디오존데란, 하늘에 헬륨 풍선을 여러 센서와 함께 띄워 대기 연직 상층의 기상 상태, 주로 온도, 습도, 기압 등을 측정하는 기상 관측 장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 하늘로 띄운 라디오존데의 센서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대기층의 온도, 바람 그래프



▶ MT에서 라디오존데를 띄우고 있는 모습

있지만, 라디오존데를 한번 날릴 때마다 3~40만 원 정도 들고 전국적으로도 날리는 지점이 많지 않아 학과 MT에서 이를 날려 관측해볼 수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저는 벌써 2년째 MT에 참가하여 2번의 라디오존데 날리기를 경험해보았는데, 전공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실제 기상상태는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학과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와 연계하여 매년 체육대회도 함께하고, 합동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생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기상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무관, 기상 전문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학과 선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3

나의 진로 이야기

개인적으로 저는 수학과 컴퓨터, 코딩 등에 약해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대기과학과에 오면 더 이상 수학과 코딩은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과학과는 이과대학 안에서도 필수 수강 수학 과목이 많은 편이고, 놀랍게도 모두 전공과목에

서 수학 내용이 요긴히 쓰입니다. 저도 2학년 때까지는 배우면서 왜 수학을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3학년을 지내면서 전공과목을 많이 듣게 되며 대기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학 공식과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기과학 연구는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일기도를 손으로 그리며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코딩은 필수적입니다. 수학과 코딩 모두와 친하지 않았던 저는 대학에 들어온 후 두 분야 모두 열심히 배워야 했습니다. 수학은 아직 잘 하진 못하지만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었고, 코딩은 파이썬 기초도 잘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배운 결과 현재는 학부 인턴으로 일하는 연구실에서 코딩으로 모든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수학적으로 머리가 뛰어나거나, 컴퓨터적 지식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부에 대한 열의와 노력만 있다면 결국에는 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진로에 있어서 ‘쓸데없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싶었던 많은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돌고 돌아 모두 튼튼한 나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2학년 여름 방학에 첫 학부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주변에서는 너무 일찍부터 인턴을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다면 일찍 인턴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공부와 연구실에서 하는 공부는 많이 다르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내의 다른 학과생들은 타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과학과는 국내에 많지 않고, 기상직 5급(기상사무관)도 매년 연세대 출신이 붙을 정도로 연세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자대 대학원 진학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학과 공부가 재미있고 본인이 뜻이 있다면 교수님과 컨택하여 학부 인턴생으로 연구실 생활을 경험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교내에 자대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라면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지원하면 대학원 등록금을 장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도 있으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지난 3년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공부를 오래 하는 생각으로 입학했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와 공부를 해보니 주변에는 저보다 공부

를 잘하는 학생들로 수두룩했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돈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부생 인턴을 해보았던 것이 제가 마음을 굳히는 데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막상 인턴을 해보니 학교 공부와는 또 다른 식의 공부였고, 제가 만든 자료로 모델을 돌린 결과가 실제로 변화가 있고, 이전 방식에 비해 어떤 발전을 이룬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가며 이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알아보며 점점 전문성을 갖춰 나가는 것이 현재 저의 진로입니다. 아직 석,박 통합과정을 할지, 어떤 세부분야를 연구 분야로 삼을지 등 자세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고민하고 경험해보면서 잘 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대학 생활동안 주저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면서 가장 나은 길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너무 대기과학과에 대해 어렵게만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학과 자체가 작고 연구 풀이 좁은 만큼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과학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과학입니다. 지금도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첫 출시 전 성능 테스트를 위해 기상예측 수치예보 모델을 돌려보고 확인할 정도로, 대기과학 분야는 컴퓨터 기술 발전에 굉장히 예민한 분야입니다. 양자컴퓨터와 AI를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대기과학은 그러한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면, 대기과학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코딩, AI 등에 자신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대기과학과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대기과학을 공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겁내지 말고 뭐든지 자유롭게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을 넘어 산업의 흐름을 읽는 시야를 기르자!



화공생명공학과 22학번 지현욱

1

전공 선택 이유

고등학교 시절, 화학 실험 동아리에서 2년간 활동하며 화학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실험을 직접 해보며 작은 조건의 변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전공을 살려 사회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학과 공학, 이 두 가지 관심사를 모두 충족시키는 전공은 바로 화공생명공학이었습니다. 특히 화학공학은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수많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반 학문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가능성을 가진 전공을 선택한다면 대학 생활을 하며 구체적으로 길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저는 대학 생활을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 다양한 이들과의 교류와 확장

고등학교 시절에는 모두가 '대입'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렸고 성인이 된 직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유독 길었습니다. 저는 이 고립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번과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 내 '진로 네트워킹 학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동료, 선배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지 들으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과연 최선일까?'라고 끊임없이 되묻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또한 학과에서 주최하는 '화공맛톡'처럼 학계 및 산업 전문가를 모시는 자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다양한 시각을 접하려 노력했습니다. 후배 여러분도 대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수많은 교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 동기 및 선배와의 단체사진

둘째, '연결': 전공과 산업의 연결 고리 찾기

공과대학 학생으로서 저는 늦어도 3학년 2학기까지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본인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연구자의 삶보다는 산업 현장이 더 맞다고 판단하여 ‘학사 취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후, 제가 배운 전공 지식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 필수 과목인 ‘물질이동론’이나 ‘유체역학’이 반도체 공정이나 배터리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에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이 상당히 활용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심화된 학습을 위해 학과 내 ‘반도체 학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학회원들과 함께 각 공정에 어떤 화학학적 원리가 숨어있는지 스테디하고 발표하며 제 관심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나갔습니다.



▶ 반도체학회 단체사진

셋째, 흐름: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 방향성 탐구

학사 취업을 결심했다면 학점이나 어학 성적 같은 스펙보다 더 중요하지만 많은 대학생이 간과하는 것이 ‘산업의 경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산업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매 학기 학교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와 채용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직자분들에게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묻고 생생한 답변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주식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해당 기업의 동향은 물론 관련 산업과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거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생활 동안 전공 공부에만 매몰되는 평범한 공과대학 학생이 아닌 산업, 경제 그리고 사회의 큰 흐름을 함께 읽어내는 힘을 기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3

졸업 후 진로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의 진로는 크게 ‘대학원 진학’과 ‘취업’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취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정유사와 석유화학 분야가 가장 각광받던 시기였습니다. 흔히 이 산업이 저희 학과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공정 자동화나 글로벌 산업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지금은 새로운 분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과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선호하는 분야는 반도체, 이차 전지, 그리고 방위 산업 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과 역시 이러한 산업 경향을 발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공정개론’, ‘전기화학공학’, ‘에너지공학’과 같은 과목을 적극적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최신 산업 트렌드에 맞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화공생명공학과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공은 하나의 직무, 하나의 산업만을 바라보는 좁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뚜렷하게 관심 있는 산업이나 직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학과에 진학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길을 천천히 찾아가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화공생명공학과’라고 한다면 단순히 ‘화학’이 좋아서 혹은 화학을 잘해서 이 전공을 희망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상 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의 비중은 수학 50%, 물리 40%, 화학 1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수학적 모델링과 물리적 법칙을 훨씬 더 깊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 수학과 물리에 큰 거부감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로와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여러분께 ‘진로’ 그 자체보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회사에 가야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먼저 정립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 삶을 이루기 위해 다음 진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답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공학도가 되기 위해 전공 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경제 그리고 사회의 큰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넓은 시야를 기르는 것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학 생활, ‘나’를 알아가는 과정



전기전자공학부 21학번 강현진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 강현진입니다. 이렇게 글을 통해 후배들과 마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아직 고민이 많은 학생이지만 대학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을 상상하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적성? 취업? 전공,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도 흔히 말하는 ‘대2병’을 겪으며 진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에게 되돌아온 답은 “네 행복의 기준은 뭐야?”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들으며 느낀 건, 조언은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수많은 경우의 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언은 감사히 듣되 그 안에 매몰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제 말 역시 그중 하나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사회에 진출해 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부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인만의 선택 기준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저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선택할까’보다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까'를 더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언제 행복한지 돌이켜보고 그룹화해서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날씨가 좋을 때마다' 행복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사람이라서 날씨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드니와 같은 화창한 날씨의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해외에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이 무엇인지 쫓다 보니 지금의 제 히스토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사색할 시간이 충분하니 '내 삶의 추구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고 본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인의 삶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에 맞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교수님, 선후배 동기들과 고민 나눠 보시길 바라요!

2

대학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주의적 사고방식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 중에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겪어보기 전엔 모른다"라는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앞서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타인의 성공 방식을 따라 하는 건 정말 좋은 접근법이지만 사실 내가 실행할 때는 또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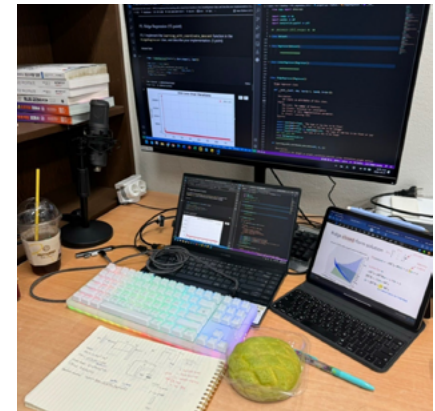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접근법을 실행하는 사람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산 사람이 성공했지? 어떤 방법이 더 성공할 수 있지?'를 고민할 시간에 빠르게 따라해 보고 전환해 가며 나와 맞는 삶의 방식의 레퍼런스를 찾는 방법이 실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창 진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시절 많은 교수님과 선배들께 진로 상담을 부탁드렸습니다. 교수님들은 당연하고 주변 선배들도 대학원생이 여럿 있었기에 공학 박사라는 타이틀은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교수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기술을 다루는 자만이 산업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공학 박사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막연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많은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이 그렇듯 취업과 대학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진로 고민이 몇 달째 이어지던 찰나 한 선배님이 "고민하는 건 좋은데, 머리로는 고민을 하되 몸은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어느 방향이든 일단 나아가면서 Next step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연구실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라고 해도 선배님들의 발표를 그저 듣기만 하고, 교수님께서 주신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 정도였지만 지금 저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수님께서 논문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걸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와 같은 공학적 고민을 하시는 교수님과 달리 "그 기업이 이걸로 돈을 번 건가? 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해야 사람들이 좋아 할까?"와 같은 비즈니스적 고민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막연히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싶어



공학 박사를 꿈꾸던 저에게 대학원이라는 옷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새로운 분야의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원 생활을 엿보기 위한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대학원에 가면 무엇인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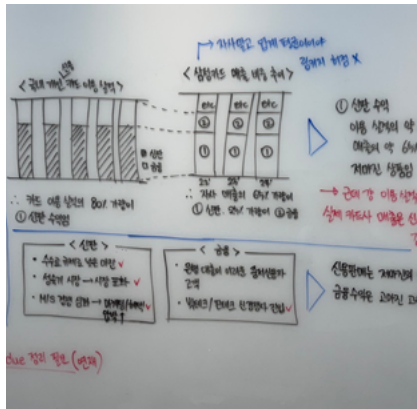
“하나를 경험하면 한 가지 교훈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경험주의적 사고방식 덕분에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삶의 교훈을 차곡차곡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이번 경험에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를 떠올리며 성패에 상관없이 늘 이상향하는 성장 곡선을 그리시기를 기원합니다.

3

진로계획

승리의 전략을 설계하는 컨설턴트

저는 전략 컨설팅이라는 경영학의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컨설턴트는 ‘기업의 의사’ 같은 역할로 해당 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처방전)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떡볶이집의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을 때 컨설턴트는 1) 떡볶이집의 맛이 변했는지, 2) 유동 인구가 감소했는지, 3) 주변 상권에 경쟁자가 등장했는지, 4) 소비자 트렌드가 변화했는지, 5) 소비 심리가 위축됐는지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만약 유동 인구가 감소했고 알고 보니 그 원인이 주변 도로의 공사였다면 공사 완료 전까지 매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떡볶이집을 운영해야 하



는지를 제안합니다.

전기전자에서 전략 컨설팅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요약하자면 서포터즈/창업 등의 대외 활동이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영학과랑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지인들도 여럿 동의했기에 경영학과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경영전략학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전략 컨설팅이라는 분야에 매료되어 전략 컨설턴트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양한 진로를 넘어 전기전자 학우분들께 전략 컨설팅의 매력을 간단히 영업해 보고자 매력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략 컨설턴트는 1) 임원급 의사 결정을 하는 실무자이면서 2) 합리적 판단이 최우선 가치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3) 긴 휴가 기간을 가진 고소득 직업입니다. 업무 강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Fact Finding’과 열띤 토론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생동감 넘치게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취업을 해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순 없지만 국내 대기업은 제조업, 특히나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대생들이 진출하였을 때 본인만의 개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는 진로들과 달리 제너럴리스트지만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성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단적 성장을 추구하고 퀄리티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서로 좋은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략 학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함범섭 교수님께서 ‘기초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해 주신 말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False Negative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False Negative란 ‘오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답이었던’ 오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충 아무거나 정답이라고 했다가 틀리는 것보다 오답을 고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 정답을 놓치는 게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 지능 이론을 우리네 인생에 적용해 보면 “해야지! 아 하지 말걸...”보다 “하지 말자! 아 할 걸...”의 후회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즉, 해 보지 않고 후회하는 일을 줄이는 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Actual	
		Positive	Negative
Predicted	Positive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Nega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FOMO(Fear of Missing Out)

연세대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훌륭한 선후배 동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뛰어난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낸다는 것은 성장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들 대학원 가는데 나도 일단 가볼까?”, “다들 서둘러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안간힘 쓰는데 나도 빨리 해야 하나?”와 같은 두려움을 저도 꽤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중요한 가치와 삶의 궤적이 다른데 타인과의 속도에 발 맞추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속력보다 방향이니까요. 솔직히 우리는 젊으니가 방향도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무작정 걷다가 돌아오기도 해 본 사람이 방향에 대한 감을 더 빨리 잡을 테니까요. 대학 생활 동안 FOMO에 빠져 본인이 원치 않는 선택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Connecting the dots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s’ 격언을 참 좋아하는데요. “삶의 궤적은 최적화할 수 없고, 지나고 나면 나만의 히스토리가 완성된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하는 고민은 “삶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즉 방향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다 보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통해서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설계된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효율적으로 정해진 루트를 잘 밟는 것이 삶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 격언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늘 용기와 도전과 성장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전기전자공학 커리큘럼을 DIY

복잡한 전공 선택, 나만의 로드맵을 설계하자!



전기전자공학부 21학번 나인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나인열입니다. 비록 저도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대학 생활 동안 제가 해온 진로 고민의 과정과 나름의 결론들을 후배님들께 공유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전기전자공학부처럼 전공 분야의 스펙트럼이 넓은 학과일수록 진로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입학할 땐 고점이던 내 전공이, 졸업할 땐 저점이라고?!

제가 전기전자공학을 선택했던 과정은 사실 단순합니다. 제가 입시를 치르던 2021년, 삼성전자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글로벌 테크 대기업이었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세계 1위 지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 좌우명은 “큰 배를 탄 사람이 되자”입니다. 멀리 나아가기 위해, 즉 큰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는 노는 물이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분야인 반도체 산업, 그리고 그 분야의 일류 기업인 삼성전자를 자연스럽게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기전자공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당시 제일 고점이던 분야를 제 전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과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입학 후 졸업까지는 최소 4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남자는 군대를 다녀올 경우 이 기간은 6년까지 늘어나며, 이 긴 시간 동안 시장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에는 흔히 '실리콘 사이클(Silicon Cycle)' 또는 '반도체 사이클(Semiconductor Cycle)'이 존재합니다. 이 현상은 3~4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호황기와 불황기의 순환 사이클이며, 메모리 슈퍼 사이클은 이 전체 사이클 중 이례적으로 길고 강한 호황기를 지칭합니다. 제가 입학하던 때가 바로 이 메모리 슈퍼 사이클 시점, 즉 고점이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불황기를 겪었으며, 이는 해당 분야의 취업 시장에도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취업 시장의 침체가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만의 영향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술 및 경제의 급격한 사이클 변화는 비단 반도체 분야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로를 선택할 때 멀리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본인이 선택한 분야가 잘 나가더라도 실제로 해당 산업에 뛰어들었을 땐 상황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참여할 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 즉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뉘앙스에 속지 말자

‘전공선택’(전선) 과목이 ‘전공필수’(전필) 과목보다 중요할 수 있다.

전기전자공학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집적한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부는 'VLSI 및 컴퓨터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재료 분야', '마이크로파 및 광파 분야', '바이오 분야', '전력 및 제어 분야', '인공 지능 및 신호 처리 분야'와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로 나뉘어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공 분야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진로의 풀(pool)이 방대하지만, 그만큼 선택의 고민 또한 깊어집니다. 따라서 학과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과목 트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목 트리는 각 분야별 전공과목들을 듣는 순서와 연계성을 보여주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의 교과목 트리를 조합하는 것이 커리큘럼 구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듣는 전필 과목보다 본인이 선택해서 듣는 전선 과목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 자유롭게 나만의 커리큘럼을 짜는 것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진로 선택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전선 과목을 강조하기에 앞서 전필 과목을 제대로 수강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필 과목들은 모든 전공의 기반이 되며 무엇보다도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를 소거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신호 및 시스템 과목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에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를 제외했으며, 전자기학(1) 또한 잘 맞지 않아 마이크로파 및 광파 분야 역시 진로에서 소거했습니다.

3

DIY 커리큘럼의 시작

3학년, 전선과 인턴십으로 나만의 지도를 그려라

진로의 길을 찾기 위한 핵심 시기는 3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커리큘럼 구상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전필 과목 수강 경험을 통해 관심 없는 분야는 제외하고 3학년 초반에는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선 과목을 수강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1학기에 저는 디지털/아날로그 회로 설계 관련 전자회로(2)와 디지털 전자회로를, 컴퓨터 VLSI 관련 컴퓨터 구조를, 반도체 소자 관련 물리전자를, 그리고 AI 관련 기초 인공지능을 들었습니다. 수강 후, 디지털과 VLSI, AI, 그리고 소자 쪽이 나의 적합성(fit)에 부합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맞지 않았던 과목들은 성적이 비교적 낮았지만 진로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어 적절한 타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철회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여러 개였기에 이 분야들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경험하고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해답으로 아키텍처, 인공지능, 반도체 칩 설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첨단융합공학부 김상엽 교수님의 AI 가속기 연구실에 1학기 여름 방학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꼭 전기전자공학부의 연구실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둔다면 시스템반도체공학, 지능형반도체공학, 신소재공학 등 전기전자와 연계성이 짙은 타 학과 교수님들의 연구실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 분야는 2학기에 전기전자재료 및 반도체 물성을 수강하는 것으로 보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



야들을 다 강화하여 경험했으며 소자 쪽이 가장 적합하다는 확신이 들어 관련 분야 교수님 연구실로 옮길 의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과정은 첫째, 전필 과목 수강 경험을 통해 최대한 진로 후보를 소거하고, 둘째, 3학년 초반에 전선을 최대한 다양하게 들어본 뒤, 셋째, 관심이 가는 분야의 교과목 트리를 참고하여 관련 전선 과목을 듣거나 관련 분야 연구실 인턴을 통해 경험을 강화하는 순서였습니다. 이처럼 주도적인 탐색을 하면 3학년 2학기 말미에는 확실히 내 관심 분야를 찾을 가능성이 올라가며 4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분야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나만의 진로 로드맵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전기전자공학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만의 커리큘럼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노력을 일찍이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처럼 전기전자 분야가 고점일 때 이 전공을 선택하여 지금 약간 침체된 상황에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공 안에는 여전히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골라 깊게 파다 보면 반드시 돌아올 부흥기의 파도에 잘 올라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어느 분야든 적성이 맞는다면 몇 수 앞을 내다본 뒤 취업 시기에 가장 유망할 분야를 전략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취업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사이클은 언제나 돌아오므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봐야 한다고 느낍니다. 현재 전기전자 분야의 채용 시장이 전반적인 한국의 취업난과 맞물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클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에 메모리 사이클은 AI 반도체인 HBM(고 대역폭 메모리)과 서버용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강력한 수요에 의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몇 년 간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분야의 긍정적인 신호는 전반적인 전기전자 분야 취업 시장에도 다시 활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침체기가 있으면 부흥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미래를 길게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대학 생활은 나에게 맞는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우리 전공의 복잡한 커리큘럼은 여러분이 그 지도를 직접 그릴 수 있는 최고의 도화지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나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멋진 로드맵을 완성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지지훤, 가 보자고



전기전자공학부 22학번 이지훤

반갑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22학번 이지훤입니다.

여러분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보다 다큐멘터리를 더 좋아합니다. 인간극장 같은 휴먼 다큐를 특히 좋아해요. 멋있는 주인공의 특별한 초능력과 우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서서히 느끼다 보면 문득 그 속에서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저는 제 입시 스토리와 요즘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학 입시는 제게 가장 오래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쏟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꿔놓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거창하진 않지만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지지지원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한 학년에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고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당시에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언제 한 번은 “자기 미래 배우자는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물론 진지하게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제 꿈은 삼성 전자에 취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자공학과에 진학한 이유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2019년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운 좋게도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신촌 ‘꼰노리’에서 과팅을 했었는데 이때 느꼈던 신촌의 분위기가 너무 부러워서 반수를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서강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을 기대하던 찰나 코로나19 범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 틈틈이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동아리장도 맡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성격이 한층 노련해졌고 자신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종의 이유이지만 이 시기 즈음에 다섯 해 동안 좋아했던 짝사랑은 그 무렵 끝이 났습니다.

1학년을 마친 2021년, 저는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힘들 것만 같았던 군 생활은 생각보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쩌다 보니 봉사 동아리에서 알던 친구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약학 대학으로 반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혹시 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성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서 자극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예쁘고 착하고 유복하기까지 한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그 친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극을 계기로 반수를 결심하여 오늘의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아쉽게도 이 짝사랑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군 복무를 마친 후 지금의 학교에서 세 번째 1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송도 캠퍼스에서요.

2

연세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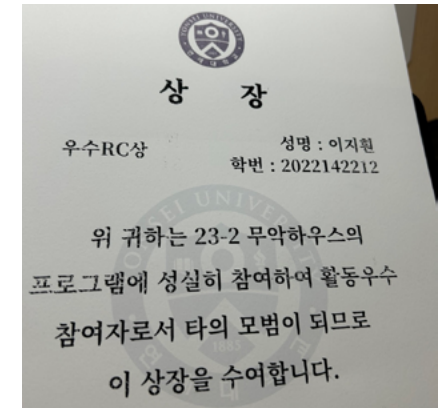
솔직히 말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고요. 인하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 이미 두 번의 1학년을 경험했던 탓인지 연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다소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기의 저는 학점에 대해 스스로 평가 절하를 하며 자기합리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ChatGPT가 있는 세상에서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을 조금 후회합니다. 최소한의 성적은 챙겨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공부 대신 학교 밖의 경험들을 선택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주는 내적 변화에 심취해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고 이루어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캠퍼스의 RC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RC 프로그램만큼 다양한 배경의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 쉬운 게 없습니다. 퍼스널 컬러 프로그램과 같이 무료로 값비싼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열정적으로 RC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에 ‘우수RC상’도 받았습니다.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해 보았습니다. 교내 봉사 동아리 KUSA와 YDMC에서 활동하였고 ‘서울동행’이라는 서울시 봉사 플랫폼에서 우리 학교 대표로 봉사 프로젝트도 운영했습니다.

그게 공부를 제쳐둘 만큼 대단한 일이나 몰을실 수도 있겠지만 삶의 우선순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성명	이지현	봉사일	20230902
주소	[2198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대로 88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제2기사우생 202호		
학교명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학년	22
봉사기간	2023-03-04 ~ 2023-11-27	봉사시간	113시간 58분

위는 저마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처럼 개성이 뚜렷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류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살아가기보다 가치관을 탐색하고 앞으로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를 세밀히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달릴지를 먼저 고민하는 일처럼요.

3

요즘, 그리고 앞으로의 저는

현재 저는 전력망 분야 연구실에 진학하기 위해 학부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언젠가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 지역의 전력망 발전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뿌듯한 순간 중 하나는 이 분야에 대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때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잘 모를 때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역시 이 분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했는데 직접 연구실에서 일해 보니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자기객관화의 여정은 한참 남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견뎌야 하는 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외국어 회화 능력에서도 크게 느꼈습니다. 전력망 분야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강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방학에는 중국어 회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전공 기초 과목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시험을 위한 공부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 내용들이 내가 배우는 전력망 관련 과목들과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초 과목 개념 체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겨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글을 읽는 공과대학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는 개개인에게 생산성을 은연중에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의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자'라는 말을 습관처럼 받아들이다 스스로를 효율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며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앞부분에서 열정과 노력, 성취를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그것들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건방진 엉터리 철학이 되지는 않을까봐 걱정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선택한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실존주의를 아시나요? '기투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삶을 스스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성에 젖고, 지치고 무의미함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서의 방향이 언젠가 방향이 되기를



도시공학과 19학번 채지원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저는 2019년에 도시공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원 세부 전공으로 도시설계를 선택하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둔 채지원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경험 이 쌓여 어느새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또한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1

도시공학이 나의 전공이 되기까지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입시를 통해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적성에 맞는지, 앞으로의 진로와 연결되는지, 더 먼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을 스스로 묻는 과정이지요. 제 경우도 꽤 오랫동안,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도 전공에 대해 명확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1학년 수업 시간에 도시공학을 처음 접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꿈꾸는 도시'를 자유롭게 그려보며 이 전공은 참 낭만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작업이 수월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즐겁게 몰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제게 친구들은 "너는 설계가 적성에 잘 맞

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전공에 대한 흥미가 급격히 식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이 전공을 좋아했던 이유는 동기들과 부대끼며 과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을 통해 느낀, 그 순수한 즐거움과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따금 프로젝트 과제를 함께하며 동기들과 협업했던 시간만큼은 여전히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는 비대면 수업 덕분에 고등학생 때 막연히 동경했던 철학·문학·콘텐츠·건축 등의 인문학적 시야를 넓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으로 예술대학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 미술, 영화, 뮤지컬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미적 감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실내건축 수업을 통해 새로운 2D·3D 프로그램을 배우며 '툴'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직무가 나한테 적합할까를 고민하면서 연구실 인턴, 회사 인턴 등의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렇게 전공의 테두리를 넘어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던 시간들이 쌓여 '넓고 얇은 지식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공과대 동기들과 진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마음이 조금해지곤 했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이 대기업에 도전하거나, 개발자로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당시 저의 현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었죠. 그 무렵 학과장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과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니?'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넓고 얇게 쌓아온 경험들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미감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 졸업 작품 FROM SINCHON BLUES TO URBAN BLUES

나아갈 수 있겠구나.’ ‘넓고 얇은 지식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전문성을 쌓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새 저만의 방향이 그려졌습니다.

이처럼 전공 선택이란 단번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불확실한 과정은 명확한 답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 속에서의 방향과 실패조차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달려가며 성과를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길을 돌아가며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단단한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대학에서의 모든 시도와 고민, 그리고 후회 없는 노력들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2

내가 대학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대학 생활 동안 여러 활동을 경험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혼자 하려고 생각하면 막막했던 한 일들이 우리 대학의 구성원이기에 가능해졌어요. 먼저 연세대학교에는 학생들의 첫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나 RC 창의플랫폼,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고등교육혁신원의 워크스테이션 사회 혁신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속한 사회를 조금 바꿔 보고 싶다는 의지로 모인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물적·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철학 교육, 그리고 코로나로 침체된 공연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매 학기 새로운 주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기획하며 주도했던 경험은 지금도 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틈틈이 국가 근로 장학 근무도 병행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확

실한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교내 근로뿐 아니라 교외 근로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운이 좋다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기관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외 근로를 통해 공학원 내 스타트업에서 연구 보조 및 디자인 업무를 맡으며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커리어 연세 현장 실습 프로그램은 방학이나 학기 중에 학점을 인정받으며 실습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 역시 대학 생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공연을 만들고 전시를 열고 직접 행사를 기획하며 함께 웃고 성장했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평생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경험은 제 대학 생활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도전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영어 성적과 생활비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으로 보낸 한 학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한 학기만 다녀온 것이 아쉬울 정도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해외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들도 잘 마련되어 있고, 교환 학기를 마친 뒤에도 해외 기업이나 연구소 인턴십으로 연계되는 기회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2020년도 공과대학X상경대학 비대면 공연기획단

3

도시공학과와 진로에 대해

우리 학과는 진로의 폭이 정말 넓은 편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직군과 직무에서 활약하고 계신 것을 보면, 도시공학이 얼마나 다방면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전공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후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과에서는 매년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과 동아리에서도 선배님들을 초청해 진로와 직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또 매년 12월에 열리는 졸업 전시회에서는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어떤 주제와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 때로는 직접 연락을 드려 선배님들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식사를 함께하며 진로와 직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먼저 연락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역시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에 기꺼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 진로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전공과목을 들으면서 도시설계 분야에 가장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공간을 탐색하고, 그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사람들이 가진 고민을 도시의 미래 모습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또 설계는 비전문가와도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분야이기에, 시각적 표현력과 전달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부터 여러 공모전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번번이 아쉬웠지만, 실패를 통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학원에 다니며 공모전에 참여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 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로 관심 있는 주제에 깊이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설계·계획·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실무자분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것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위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돌이켜보면, 저의 대학 생활을 채운 것은 결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과정에서 함께 웃고 고민했던 동기와 친구들, 선배들이입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나의 세상을 확장하는 공간입니다. 진로든, 학교생활이든, 공부든 혼자 오래 고민해서 좋은 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동기, 친구,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분명 자기 자신의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도 의미 있는 도전과 좋은 만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노력과 경험은 배신하지 않는다.



기계공학부 20학번 김정준

진리·자유학부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기계공학과를 대표해 전공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20학번으로 현재 학부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2026년 초 연세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짧다면 짧았지만 제 기계공학과와 시간은 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경험, 그리고 그 속의 작은 성취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이 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자유학부 학생들은 입시 단계에서 전공을 곧바로 결정하지 않았기에, 대학 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관심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확인하고, 그 위에 자신만의 전공 지도를 구체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1

자동차 만드는 학과?

기계공학과는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프라모델과 과학상자를 조립하며 ‘만든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의 짜릿함을 자주 경험했고,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제 관심을 기계공학으로 이끌었습니다. 2014년 영화 인터스텔라는 그런 선택에 확신을 더해 준 계기였습니다. 우주를 향해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우주선을 보며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학문은 무엇일까?”를 막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우주선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기계공학은 곧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동차·항공기·로봇·반도체 장비·발전설비·의료기기 등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기술이 그 원리 위에서 작동합니다. 처음엔 자동차·로봇·비행기만 떠올렸지만, 공부할수록 자율주행·드론·우주 탐사·지능형 로봇 같은 곳에도 기계공학의 근본 원리가 촘촘히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배우는 것은 최신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확장하기 위한 기초(물리·수학)와 구조적 문제 해결 사고방식입니다. 처음엔 “이게 어디에 쓰일까?” 싶던 개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기술의 출발점을 깨닫게 되었고, 제 진로 기준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단단한 원리로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길이 제가 기계공학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2

기계공학과 학생으로서

기계공학과와 공부의 폭이 넓고 손으로 익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1·2학년 때는 수학·물리·재료 등 기초 과목으로 기반을 다지고, 특히 4대 역학(고체역학·열역학·유체역학·동역학)을 중심으로 핵심 개념을 익힙니다. 이 토대가 이후 전공 과목을 이해하는 뿌리가 됩니다. 3학년부터는 응용·실험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실험’에서는 전공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메카트로닉스’에서는 아두이노·라즈베리 파이 같은 임베디드 보드로 모터의 속도·위치 제어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CAD, MATLAB, Python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이런 수업 경험을 통해 고학년이 될 수록 “이론이 실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를 체감하게 됩니다. 동시에 열·유체·제어·소재·설계 등 넓은 분야 중 자신의 흥미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 깊이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제어·메카트로닉스를 주로 들으며 연구와 연결했고, 친구들은 에너지·열 등 각자 관심 축으로 좁혀 갔습니다. 필요하다면 타과 수업을 청강·신청해 건문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 경험을 솔직히 덧붙이면, 저도 처음엔 대학원을 갈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윤준영 교수님의 정밀생산메카트로닉스 연구실에서 대학원 입학은 목표로 학부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취업과 대학원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대학원은 교수님의 노예다, 재미없다, 대학원생은 연애 못한다” 같은 부정적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학부생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인트로) 덕분에 낯설지 않게 연구실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인턴 생활은 학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학부 수업이 성적을 위한 ‘이론 숙지 → 문제 풀이’에 가깝다면, 지금은 그 이론을 응용해 ‘내가 원하는 주제’의 연구를 직접 설계·수행합니다.

연구실을 들락날락하며 선배들에게 이론을 배우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 자리도 생겼고 소속감도 커졌습니다. 어깨너머로 보고 듣고 돕는 사이 거의 2년이 흘렀고, 선배들의 졸업·개인 연구를 도우며 학부에선 접하기 어려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렌츠 힘 기반 전자기력을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보다 정밀하게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회전할 수 있는 6-자유도(6-DOF) 자기부상 스테이지를 정밀 구동해 보거나, 이러한 기술을 다양한 산업 응용으로 확장하는 일 등입니다.

학부 인턴으로 한국정밀공학회(KSPE)에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와 동기 부여를 받았습니다.

3

대외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학교 밖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입학해 제약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여러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학교 추천으로 선발된 한국공학한림원 산하 YEHS(차세대공학리더) 활동을 통해 각 전공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들을 수 있었고, 졸업생·현직자의 현실적인 이야기도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공의 언어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킹의 힘을 체감했고, 이런 연결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직접 참여하진 못했지만, 학과 동아리인 ‘로보인’, 자작차 ‘메카’, ‘연세드론’은 수업 밖에서 로봇·자동차·드론을 직접 설계·제작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외에 저는 운동을 좋아해 교내·교외 운동 동아리에도 가입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결국 대학에서의 배움은 강의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공 공부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넓혀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4

기계공학과와 진로

기계공학 전공자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반도체·로봇·항공·에너지·배터리·모빌리티 등 기계 시스템이 있는 곳마다 기계공학의 원리가 쓰입니다. 여기서는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한 진로에 집중하겠습니다.

- 산업 엔지니어: 현장에서 제품·공정 설계·개선
- 연구개발(R&D): 대학원·연구소에서 기술의 원리와 한계 확장

저는 연구실 경험을 통해 연구의 매력을 분명히 느꼈고, 지금 석·박사 통합과정을 준

노력과 경험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음은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기초 과목을 꾸준히 복습하기 (학점도 챙기기)
2. 프로젝트·동아리·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3. 자기만의 강점(무기) 만들기 (관심 분야의 톨·주제 심화)
4. 배운 것을 기록·정리하기 (노트·포트폴리오로 재사용 가능)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하느라 다소 딱딱했는지 모르지만, 대학 생활의 핵심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끼며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었던 흠어진 경험들이 결국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실험 장비를 처음 구동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예측대로 돌아갔을 때, 직접 만든 기계장치가 제대로 움직였을 때의 그 뿌듯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감정이 저를 지금의 연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대학의 시간을 단순한 공부로만 채우지 않길 바랍니다. 배움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행착오는 결국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지금의 선택과 시도들이 여러분을 단단한 20대의 공학도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비 중입니다. 실험 장비를 다루며 이론이 실제 장치 위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보면서 특히 정밀 제어에 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학교 취업 박람회에서 기업 직무 상담을 받으며 현실 비교도 했습니다. 학부 졸업 직행 취업은 돈을 빨리 벌고 사회에 먼저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100세 시대에 ‘나만의 전문성 무기’가 없으면 한계가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취업 후 산학연구원 루트로 대학원에 들어와 전문성을 쌓는 길도 있지만, 저는 학생 신분일 때 무기를 먼저 갖추고, 박사 학위 이후에는 취업뿐 아니라 학계/교수의 길까지 열어 두고 싶어 대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취업을 바로 한 동기들도 있습니다. 학부에 배운 경험을 바로 활용하여 자동차 회사에서는 열관리 시스템이나 기구설계 등,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합니다. 기계공학은 산업의 기반이기에 진로를 바꾸거나 확장하기에도 매우 유연합니다. 전공을 디딤돌로 창업(스타트업), 공공 연구기관·연구지원, 변리사(특허) 같은 기술 전문직, 기술기획·PM, 기술영업·컨설팅 등으로도 충분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계공학에서 배운 ‘문제 정의-모델링-검증’의 사고방식을 각 분야의 언어로 옮겨 적용하는 힘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설계-제어 경험이 하드웨어 기반 창업은 물론 AI·로보틱스 등 융합 기술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결국 진로는 지금 하나로 못 박아 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연구·인턴을 거치며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교수님께 첫 컨택 메일을 보낼 때 망설였지만, ‘보내지 않으면 후회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송했고, 그 작은 실행이 제 진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완벽한 확신보다 작은 실행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학, 나의 우주를 채워가다



신소재공학과 22학번 김동원

1

내가 신소재공학을 선택한 이유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희망했던 진로는 무엇이었나요? 지금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나요? “공학자.” 이 단어에 제 미래를 걸어보기로 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마비된 듯한 혼란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멈춰버린 교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시 연결되었고, 바이오 공학자들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해냈습니다. 전 세계의 물류 시스템은 재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문 앞까지 배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학의 힘이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인류가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공학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공학은 단순히 산업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공학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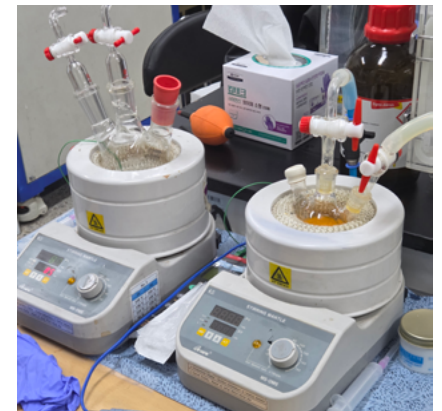
수없이 많은 공학 분야 안에서 제가 신소재공학을 찾은 이유는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은 소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 회로 설계가 있어도 그 설계를 구현할 재료가 없다면 공허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더 가볍고 튼튼한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도,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도, 그 시작점에는 항상 재료가 있습니다. 소재가 모든 혁신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신소재공학이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재료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창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를 공부합니다. 물질의 근본이 되는 원자, 분자 수준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물성(기계적, 전기적, 광학적 등)을 가지려면 어떻게 공정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식을 통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재료를 디자인하거나 기존 재료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조-물성-공정-성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재료공학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선배님들은 대부분 구조, 물성, 공정, 성능과 관련된 직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료공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의 2나노 공정, 디스플레이의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바이오의 생분해성 의료기기 등을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고, 다루는 분야가 이렇게 넓다 보니 졸업 후의 진로 역시 상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한 산업과 회사로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소의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이나 번리사의 길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료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시작했지만, 신소재공학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소재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산업이 미래에 유망해지든 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재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그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신소재공학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My universe, University

제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2022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혼재하던 시기, 저는 1학년 대부분을 송도 기숙사에서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그 일 년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궤적 속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놀고, 공부하고, 생활했던 소중한 추억들은 “1학년 추억 하나로 남은 대학 생활을 보낸다”고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는 1학년 전체가 송도에서 함께 생활 하면서 아카라카나 연고전과 같은 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기에 좋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맺은 지난 4년간의 인연이 저에게 있어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선배들과 새출발을 앞둔 동기들, 남은 대학 생활을 함께 보낼 후배들까지 모두 제가 우리 학교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제 시야를 상상 이상으로 넓혀주었습니다. 특히 주변 친구들 덕분에 저는 창업이라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길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이나 미디어로 접하는 창업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부딪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엄청난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은 저의 경험을 확장시켜 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소중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마음껏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대학 생활은 “university는 universal하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자’는 철학에 맞게 저는 전공인 신소재공학 외에도 인공지능, 전자회로, 금융공학, 경제학 등 여러 전공 교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본 전공 수업만 듣고 졸업하면 종합대학에 다니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학년 물리학 수업에서 잠깐 배운 회로가 재밌어 보여 덜컥 전기전자 전공과목을 수강했다가 선수과목을 독학하며 따라가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에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생을 통해 신소재공학이 제 적성에 가장 잘 맞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 없는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에 학과 학생회 활동을 비롯해 인공지능 아이디어 공모전, ‘삼성 샤이닝 스타’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고 현재는 연구실 인턴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이 됐든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우주를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3

앞으로의 진로 계획

지금까지 대학 생활을 통해 저만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신소재공학이라는 전공이 제 적성에 잘 맞다는 확신은 얻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여전히 나의 진로는 무엇인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대학 생활은 연구와 창업 중에서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실 인턴 생활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교환학생으로 머무는 동안 현지 스타트업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같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한 곳에서 한국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들의 일하는 방식과 열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귀국 후에는 창업 학회나 교내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팀을 꾸리고 결과물을 만드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What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How에 대해서도 꼭 의식적으로 물음표를 던지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유망해 보이는 직업이 10년 뒤에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What만을 좇다 보면 애써 정한 진로가 흔들릴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하며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와 관련해 **나**만의 가치관이 굳건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뀔지언정, 자신이 추구하는 ‘어떻게’라는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은 여러분만의 How를 형성하는 데 있어 소중한 경험을 쌓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낯선 분야에 부딪혀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는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여러분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니 진로를 정하는 일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제 솔직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만의 답을 찾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경험을 쌓으며 소신 있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로를 만드는 재료들: 신소재공학에서 찾은 나만의 방향



신소재공학과 19학번 이준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본교 신소재공학과 나노소자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신소재공학과 선배로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전공 선택, 대학 생활, 진로 고민의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풀어 보며 여러분이 자신의 방향을 고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1

내가 신소재공학을 선택한 이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변호사를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수학과 과학 시간이 점점 더 재미있어졌고 자연스럽게 ‘이론’에서 ‘현실을 바꾸는 기술’로 관심이 옮겨 갔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보조 기기와 재활 장비가 한 사람의 자립도와 안전을 크게 바꾸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공학은 사람을 돕는 일과 닿아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최전선에서 사람을 살린다면, 저는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의 측면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읽은 그래핀과 탄소 동소체 관련 책은 이런 생각을 더 구체화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원자 배열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같은 탄소가 완전히 다른 성

질을 보이고 초박막 소재 하나가 전자 소자, 센서, 에너지 소자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초전도체에 관한 기사 역시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전기가 손실 없이 전송될 수 있다면 의료, 에너지, 교통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면서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는 어떤 재료를 선택해 설계했는가에 있다'라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진로의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소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 기반이 되는 재료와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공학계열 중에서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지, 그 출발점을 고민하는 전공이었기 때문입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관계, 시행착오, 그리고 손으로 배우는 공부

입학 첫날 신입생 환영회에서 동기 형과 나란히 앉아 어색하게 이름과 나이를 묻던 장면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반나절쯤 지나서야 말을 놓고 개강 총회에 가서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1학년 송도 기숙사 생활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성향이 다른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며 부딪히기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니며 친해지기도 하면서 혼자만의 방식에서 벗어나 타인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1학년이 한 캠퍼스에 모여 지냈기에 다양한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시야가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첫날 옆자리에 앉았던 그 형과는 4년 내내 여러 활동을 함께 했고 농구 동아리에도 같이 들어가 다른 학과 친구들과도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을 묻고 선배에게 배우고 후배를 챙기는 우리 대학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 생활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화학과 물리를 좋아했던 만큼 전공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실제로 배우는 원자 구조, 결정 구조, 물성 계산은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초기에 전공과목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전공과 맞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전공을 포기하는 대신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점수가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이 개념을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이 지식이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다시 정리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복습하고, 교수님과 선배에게 질문하며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공부가 아니라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교과서 속 개념이 실제 소재와 공정, 산업 사례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고, 전공에 대한 불안은 점점 흥미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대하고 복학한 후에는 지금의 나노소자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제 전공 선택에 확신을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샘플을 준비하고, 장비를 세팅하고, 측정 데이터를 직접 얻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며 강의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곡선, 이미지, 수치로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가설이 다음 실험의 조건이 되고 실험 결과가 다시 가설을 수정하게 만드는 순환을 겪으면서 '아, 이게 진짜 공학이고 연구구나'라는 감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신소재공학과라는 선택이 단순한 진학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계속 붙들고 갈 만한 길이라는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진로 계획

넓은 선택지 속에서 나만의 길 찾기

신소재공학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에너지, 바이오소재, 의료기기, 센서, 친환경 소재, 소재·부품·장비 기업, 분석·시험 기관, 무역과 컨설팅까지 재료를 다루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신소재 전

공자가 설 자리가 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폭은 넓고 깊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하나의 분야에 갇히는 대신 1~2학년 때 다양한 내용을 접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관심 분야를 고르고 그 이후로 관련 전공·타과 강의, 세미나, 학부 연구, 인턴 경험을 통해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공이 나를 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공 안에서 스스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소재공학과는 매우 유연한 전공입니다.



저는 그 여러 갈래 중에서 연구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안전, 가스 센서, 나노 소자와 같은 실제 산업의 문제를 소재와 공정 관점에서 풀어보며 그 결과를 논문과 기술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은 실패할 때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쌓이는 전문성과 문제 해결의 경험, 함께 고민하는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대형 장비와 인프라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저의 미래를 점점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학을 통해 더 넓은 연구 환경과 시각을 경험하고, 중국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연구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길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부 연구생, 인턴, 세미나 참여 같은 작은 시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직접 발을 들여 보고 나와 맞는지 확인해 본 뒤, 맞으면 한 걸음 더 내딛고 아니라면 다른 방향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공 선택과 진로 선택 모두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맞이하는 시험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완벽한 답보다, 오늘의 한 걸음

전공 선택에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 전공을 선택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이고 이에 대해 한 줄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시작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기보다 실제로 한번 발을 들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전공 수업을 한 과목 더 들어보는 것, 연구실 세미나에 한번 앉아 보는 것, 교수님께 짧게 면담을 요청해 보는 것, 전공 밖 교양이나 동아리를 통해 다른 시선을 체험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이 길이 나와 맞는지에 대한 감각이 훨씬 또렷해질 것입니다. 전공을 잘못 고를까 봐 겁을 내기보다 작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는 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과의 인연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동기, 선배, 교수님, 다른 학과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와 조언을 얻게 됩니다. 저 역시 우연히 보였던 교수님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중요한 순간마다 방향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와 진로 찾기 외에 취미 생활을 통해 워라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학년 때 어쿠스틱 기타를 독학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루틴과 몰입의 경험이 연구와 생활을 버티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몸과 마음을 채워 줄 작은 취미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선택을 통해 한 걸음 내디뎠을 때의 경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전공에서든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 자신의 호기심을 믿어 보고 소중한 관계를 잘 쌓아 가며 오늘의 선택을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이메일 jjjoonho0304@yonsei.ac.kr

공학이란 틀 안에서 나를 최적화하다



산업공학과 25학번 송지섭

1

전공 선택 이유

사실 산업공학과는 흔히들 ‘전학기’라고 부르는 전기전자공학과나 화공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산업공학이라는 전공을 처음 알게 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 중, 친구가 산업공학과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 전공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때 “공학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기사를 읽고 산업공학이 공학 전반의 조율과 통합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 곳에서 공부하며 저는 개념을 암기하기보다는 코딩을 통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



▶ 당시 기사

다. 이러한 관심이 산업공학의 핵심 가치인 시스템적 사고와 최적화와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산업공학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연세대학교를 약 1년간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말 동기들과 함께 성장할 경험의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과 활동들도 있지만, 특히 1학년들은 모두 송도 국제 캠퍼스에 모여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청춘을 더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밤늦게 산책하고, 같이 취미활동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끈끈해지는 과정이 정말 특별합니다.

또한 연세대학교만의 독특한 축제 문화도 인상적입니다. 아카라카의 열정적인 응원과 연고전의 경쟁 속에서의 우정은, 다른 어떤 대학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응원하면서는 힘들었던 입시 시절이 떠오르며 MBTI 극단적 T인 저도 몰래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단순히 ‘학교 생활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웃고 즐기며 청춘을 공유한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바로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여러 몸을 쓰는 활동들도 하면서 같은 기숙사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공부 외의 시간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다른 과 친구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산업공학과 1학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커리큘럼은 공과대학 내 다른 학과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공대 전공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 중 2가지를 선택해 실험 관련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산업공학과는 자연과학적인 탐구보다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을 필수로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면 이게 장점일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니다



▶ 아카라카

▶ 합동응원전

보면 학점 관리도 훨씬 수월하고, 그만큼 다른 관심 분야나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3

진로 계획

저는 아직 1학년이라 구체적인 꿈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산업공학을 목표로 해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산업공학과가 함께 진행한 해커톤에 참여했고, 학과 내 학회에 가입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중입니다.

산업공학과는 크게 OMS, DS, TM 세 분야로, 먼저 OMS(Operations Management & Systems)는 생산, 물류, 품질관리 등과 같은 운영 효율화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기업의 공정이나 공급망을 분석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면 제조업, 물류기업, 컨설팅회사, 품질관리 부서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S(Data Science)는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과 분석을 다루는 분야이며, 산업공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입니다. 통계,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최적화 등을 배우며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진로로는 데이터 분석가, AI 엔지니어, 금융 데이터 전문가, IT 기획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M(Technology Management)은 기술과 경영을 함께 다루는 분야로, 기술혁신·프로젝트 관리·경영전략 등에 초점을 둡니다.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면 경영컨설턴트, 기술기획자, 스타트업 창업가, 전략기획 담당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공학은 폭넓은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공급망 관리, 헬스케어, AI 응용 등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업공학과는 복수전공이 활발한 학과입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이 산업공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응용통계학과, 경영학과, 컴퓨터과학과 등 다양한 전공을 함께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커리큘럼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게 집중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졸업 후 진로 역시 다양합니다. 일반 기업 취업뿐 아니라, 창업, 대학원 진학, 공공 기관 및 연구소 진출, 나아가 변리사나 법조인 같은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산업공학은 한 가지 길로 한정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노력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중적 성격을 지닌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미성년기를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 단계를 밟는 공간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 때문에 대학생 시기는 아직 완전한 책임을 요구받지는 않지만, 책임의 의미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회나 동아리, 학회 등 다양한 조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본질적인 일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곳을 넘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사회적 성숙을 준비하는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걸 시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차 자신만의 꿈에 대해 확고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함과 잘함 사이, 질문으로 길을 찾다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2학번 이승찬

글을 시작하기 전, 대학교가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 평소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제 글을 읽어주시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서 4년째 학교생활을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둔 22학번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진로와 적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했던 경험을 신입생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1

적성은 좋아하는 것인가 잘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곳'에서 '스스로 길을 설계하는 곳'으로 리듬이 바뀌는 공간입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선택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의 필수 과목을 이수합니다. 반면 대학에서는 공통 필수 과목을 제외하면 전공도, 과목도, 배우는 깊이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커집니다. 저는 이 점이 대학을 가장 대학답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자연과학, 그중에서도 화학을 특히 잘했습니다. 동시에 로봇과 드론 등 전자회로 제작과 프로그래밍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갈래

의 길 앞에서 오래 고민하게 됐습니다. ‘잘하는 것(화학-화공생명공학 계열)’을 따라갈 것인가, ‘좋아하는 것(기계-전기전자 계열)’을 선택할 것인가. 대학에서의 선택은 성적을 넘어 삶의 방향과 맞닿아 있기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왜 대학에서 공부하는가?” 제 답은 분명했습니다. 배운 지식과 기술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점에서 제 경험을 다시 보니, 자연과학을 배우는 지적 즐거움은 분명 컸지만 때로 느꼈던 작은 따분함의 이유도 보였습니다. 공학, 즉 엔지니어링처럼 결과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출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회로를 설계해 붙이 커지고, 코드가 의도대로 동작할 때의 몰입감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저는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세부 전공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 화학이라는 ‘잘함’도, 전자공학이라는 ‘좋아함’도 놓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에 가보기 전에는 어느 쪽이 더 ‘나답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기에, 양쪽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2

도전하는 특권을 누리는 대학 생활

이 선택은 제 대학 생활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흔히 학업, 교우관계, 대외 활동의 세 갈래로 말하곤 합니다. 저 역시 이 세 축을 균형 있게 챙기되, 매 학기 시작마다 학업과 대외 활동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학기 중에는 그 달성에 집중했습니다. 친목과 행사 등 변수가 많은 환경을 고려해 하루 단위보다는 1~2주 단위의 유연한 계획을 세우고, 한 번 정한 목표는 예외 없이 지키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학기마다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추가한다’를 원칙으로 삼아,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도 기회가 오면 먼저 시도했습니다.

이 원칙 아래 저는 학생회 3년, 축구부 4년, 두 동아리 3년, 연구실 인턴 2년을 경험했습니다. 전공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넓



▶ 축구부 활동



▶ 학생회 활동

혔고, 학생회와 축구부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팀워크의 실재를 배웠습니다.

정말 어려운 도전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2024년에 고등학교 후배들과 함께 출전했던 FIRST Tech Challenge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4월 학기 중에 세계 대회 출전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평생을 꿈꾸던 기회이자, 찾아오면 꼭 잡기로 했던 기회이지만 시험기간 직전 2주일 동안 대회를 준비하고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 너무 큰 일이라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내가 도전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더더욱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르게 후배들과 대회 준비에 착수하고 시험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때 3주간의 기억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시험공부, 학생회 업무 등을 미리 다 처리하고 미국으로 향했고, 미국에서는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대회 출전은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면 못 이뤄낼 것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매번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생회에



▶ FIRST Tech Challenge 대회 사진

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고, 연구실에서 맡은 과제를 제 시간에 완수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활동은 없다고 믿습니다. 대학생의 실패는 여전히 학습의 일부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자양분이 됩니다. 만약 '제대로 못 할까봐' 도전을 미뤘다면, 저의 약점을 정확히 마주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3

진로

대학원과 취업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여러 진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졸업과 동시에 입사하는 경로가 있고, 장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 졸업생으로 취업하거나, 연계진학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사과정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졸업 즉시 입사를 목표로 했으나,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연구실 인턴 경험이 진로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과 공부를 시작한 뒤 3학년까지는 재료과학 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맞다고 판단해 관련 전공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며 졸업 후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선배한 분이 대학원 연구실 인턴 경험을 권했고, '기회가 있으면 해 본다'는 제 원칙에 따라 학부 연구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연구 환경에서의 문제 정의와 해법 탐색 과정이 제 흥미와 적성에 잘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빨리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를 넘어, 어떤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로 성장할 것인지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격은, 물론 회사에서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대학원이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제 목표인 '대체 불가능한 엔지니어가 되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과정까지도

전해 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지원을 통해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전기전자공학과 석사-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하였으며, 2026년 3월부터 대학원생이 되어 학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4

결론

스스로 질문하는 4년이 되자!

전공의 적합성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2~3학년에 이르러서야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위해 배우는지 묻고 들으며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저의 전공을 골랐고, 전공 안에서 진로를 선택하면서도 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번 던지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그것을 위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짧은 학부 과정에서 학술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은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곳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들에게 저의 경험들이 현실적인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배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실천적 조언도 있습니다. 첫째, 질문하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다만 스스로 충분히 고민한 뒤, 어디에서 막혔는지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질문해야 생산적 토론이 가능합니다. 교수님들이 마련하신 오피스 아워(Office Hour)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길 권합니다. 수업 내용을 넘어서는 이해와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진로와 학업에 관한 상담도 성의 있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왜 대학에 다니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졸업할 때 한 가지는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목표가 서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학습과 대외 활동에 가장 유리한 기반입니다.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1학년이라

는 시간, 국제 캠퍼스라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얻고, 끊임없이 질문하여 대학 생활의 이유를 찾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세대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며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만 줄이고 매 순간순간에 집중한다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에는 그것을 도와줄 교수들도 있고, 경험들도 있으며 누구보다 현명하신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입학 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후배님들을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찾아서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23학번 **신향아**

1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과학 관련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했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함께 바이오 관련 주제로 학회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라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였습니다. 우리 학교 입학 전에 우연한 계기로 다른 학교의 디스플레이학과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수강한 '디스플레이 개론' 과목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며 색을 표현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잡한 빛의 조합이 기술로 구현될 수 있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청색 빛을 내는 소자를 왜 만들기 어려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흥미가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관련 논문을 찾아 읽고 스스로 정리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디스플레이가 단순한 화면에 표시되는 기술이 아니라 빛, 소자, 회로, 재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어 완성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더 좋은 화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 길의 출발점으로 우리 학교의 디스플레이융합공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를 폭넓게 배우며 이론과 실험 모두에 균형 잡힌 공학도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려 합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저의 대학 생활은 기숙사에 입사하기도 전, 송도 캠퍼스로 떠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과대학 오리엔테이션과 새내기 배움터를 통해 처음 만난 동기들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낯설고도 설레는 분위기는 지금 돌이켜봐도 몽글몽글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기숙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고등학교 시절의 기숙사 생활과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심지어는 국제대에 다니는 외국인 친구와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교내 활동인 'RC-창의 플랫폼'입니다. 디스플레이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생기는 충돌도 있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해가는 법을 익히며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과도 물론 기뻐지만 그보다도 과정 속에서 얻은 협력과 소통의 경험이 앞으로 연구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1학년 시절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남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1학년 때 교수님께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써보라”라는 조언을 들은 것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뜨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이 눈에 보였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수영장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또 좋아하는 작가 한 명을 정해 그 작가의 책들을 차근차근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 제게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장의 순간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는 연구실 인턴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려운 말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법, 데이터 정리하는 법, 글을 쓰는 방법 등 실제 연구에 필요한 여러 능력을 배우며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소자를 직접 제작하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험



을 통해 이론과 실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단순히 실험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헌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능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그 결과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까지가 모두 이어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전공 수업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고 공부할 때마다 배운 내용이 실제 연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대학 생활은 각 시기마다 전혀 다른 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학의 자유로움을 만끽했고 2학년 때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했으며 3학년이 된 지금은 실제 연구를 통해 전공의 깊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3

진로 계획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저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 전공 지식이 얹혀 있는 이 분야의 깊이를 알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나만의 전문성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 동안은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도 쌓기 위해 연구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찰과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결국에는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 학과의 특성상 2학년 때 진행되는 LGenius 채용에 합격하면 졸업과 동시에 LG Display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진로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디스플레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제가 직접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즉, 정해진 길 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진로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LGenius 채용은 우리 학과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언을 구할 선배도 없고 처음이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기들과 서로 도우며 “다 같이 잘되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그 과정이 오히려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협력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저처럼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를 이어가려는 친구도 있고, 창업을 꿈꾸는 친구, 혹은 빠르게 현장에 나가 실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 속에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각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를 단순히 ‘결정된 하나의 길’이 아니라 꾸준히 다듬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제 진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며 한 명의 공학도로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돌이켜보면 저에게 대학 생활은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며 점점 나만의 속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뤄야 한

다는 압박감보다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때부터는 열정을 쏟아부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학회

나 전공 관련 동아리, 연구실 인턴, 혹은 외부 세미나나 기업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스펙’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저 역시 KIDS, IMID, SID 등 여러 디스플레이 학회에 매년 참가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이해의 깊이도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 트렌드를 직접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방향의 연구를 해나가야 할지 스스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공과목을 통해 여러 기업을 방문해 실제 업무 환경과 연구 현황을 접하고 임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와는 또 다른 ‘실무’의 매력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분명 많은 기회가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오늘의 나를 보며 스스로 격려하기 바랍니다. 대학은 타인과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경험 또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결국 모든 순간이 쌓여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멋진 연세대학교 학생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스템생물학과와 나의 대학 이야기



시스템생물학과 22학번 김수린

1

시스템생물학과란?

시스템생물학과는 동물, 식물, 미생물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생명과학 분야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기면 실제로 연구까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 현상을 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서로 어떤



▶ 시스템생물학과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생물인의 날 행사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더 깊게 이해하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관심 있는 분야가 다양하더라도 학과 안에서 유연하게 진로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식물에 관심 있는 동기는 식물 연구실에서, 미생물에 관심 있는 동기는 미생물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면서 각자의 관심에 맞는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생명과학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시스템생물학과의 매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송도에서 보낸 1년

송도에서 보낸 1학년 생활은 지금도 자주 동기들과 자주 추억할 만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동기들과 다같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같이 캠퍼스 안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점심에 함께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트리플스트리트나 캠퍼스 타운에 밥을 먹으러 가는 생활을 했는데 항상 동기들과 함께라서 즐거웠던 거 같습니다. 특히 밤에 센트럴파크까지 걸어가는 산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은 1학년 때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동기들과 많이 놀고, 많이 돌아다니며 추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겁니다.)

3

1학년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1학년 때,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오기까지는 목표가 뚜렷했는데, 정작 대학에 와서는 방향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무리하게 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다양한 수업을 성실하게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우리 과에 어떤 세부 전공이 있고,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에 올라와서 전공 수업을 하나씩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저 스스로도 관심있는 연구 분야가 생겼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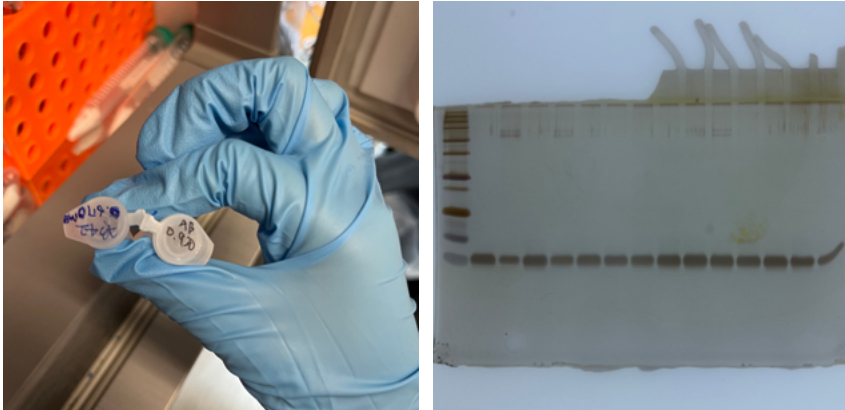
4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제 첫 연구실 경험은 2학년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연구실에서 뇌졸중 관련 연구를 하며 처음 실험을 경험하며, 동물 실험도 하고 항체를 다루는 실험도 하면서 연구가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방학에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알츠하이머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며 더 다양한 연구 기법을 익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목표가 생겨, 전공 수업과 여러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제 관심 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생명정보학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정보학은 생물학에 정보학을 더해 방대한 생명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분야 실험 데이터가 점점 많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실험 것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실험을 통해서 쌓인 방대한 생명 데이터를 분석해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해당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즐거웠던 연구실 생활

이렇게 제 진로와 관심 분야를 찾아가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서 여러 연구실을 다니며 너무 좋은 경험도 하고, 많이 배우며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분명 나와 맞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5

신촌 캠퍼스의 매력

2학년이 되면 대부분 신촌 캠퍼스로 오게 되는데, 신촌은 신촌대로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우선 걸어서 홍대와 연희동을 갈 수 있고, 버스 하나만 타면 여의도 한강 공원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과 자주 놀러가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또 신촌 캠퍼스는 학교 중앙도서관이 엄청 크고 시설이 좋고 공간이 다양해서 공부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 송도에서는 동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신촌에서는 더 많은 경험과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연세대학교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

마무리하며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을 즐기며 행복하게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추억, 새로운 배움,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 값진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멋진 미래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입학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대학 생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생명공학과 22학번 유행승

1

나에게 '생명공학'이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전공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경우 정해진 수업 시간표와 학교에서 정해준 일정한 커리큘럼을 따라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정해준 모든 것을 따르면서 고등학교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대학교에서 깊게 배울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되었는데, 먼저 가장 잘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국영수는 다 비슷했지만, 탐구 과목에서 과학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것을 보고, 이와 계열 학과로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계열 어떤 과를 진학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면서, 여러 서적들과 과별로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서 저에게 맞는 과가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데 큰 흥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생명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생명 분야가 앞으로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명공학은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학적 원리와 기술까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 의학, 식량, 환경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스스로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전공 선택에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공학이 호기심을 기반으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제 성향에 잘 맞는 전공이라고 생각했고, 현재도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며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

대학 생활, 하나의 큰 도화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 같이 학교가 바뀌게 되는 경우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적응하기에 힘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는 이때까지 느꼈던 변화가 무색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가장 작게는 등교 시간부터 가장 큰 변화는 자유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모두 제 결정이었고, 그만큼 선택의 결과도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분명 자유롭고 신선했지만,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웠고, 스스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제가 입학할 당시 22년도에는 아직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그와 더불어 과 행사나 학교 행사 등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고, 그 때문에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동기들과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대학교 입학 전에 가지고 있던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



진로 계획

생명공학과에서 공부를 이어가면서, 저는 이 분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적용하는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실험을 접하다 보니, 생명공학이 기초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분자·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교한 지식, 그리고 이를 실제로 구현해 내기 위한 공학적 설계·기술적 응용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2학년 이후 전공과목을 들으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생명 현상들도 그 뒤에 있는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 그리고 이를 다루는 실험 기술과 분석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개념들이 단절된 지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생명공학은 단순히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질문하고, 탐구하며 결국 새로운 결과 창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는 영역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은 분야가 많아졌고, 지식이 깊어질수록 해결해야 할 질문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수준의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학문적 성장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대학원에서 저는 제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며, 생명공학자로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싶습니다. 특히, 생명공학이 의학, 신약 개발, 식량,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단순히 학문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연구한 지식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대학원에서의 학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로 성장하고, 나아가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진로 계획입니다.

였습니다. 정작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캠퍼스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아무리 시간을 지나도 공동체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대학교란 공간이 저에게 너무나 낯선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창 시절 내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초반에 대학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저를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 동안 그렇게 생활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참여한 과 행사에서 뜻밖에도 저와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친구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 비로소 혼자자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계기를 시작으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학교 행사나 과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며 이전에 느끼던 고립감이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서툴고 느리긴 했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대학교라는 공간은 더 이상 낯설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내가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경험은 제 대학 생활을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학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부터 성적도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선배들과의 만남 덕분에 저는 주저앉기보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대학 생활은 제가 소제목에다가 적어둔 것처럼, 흰 도화지 위에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가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위에 제가 선택한 색을 칠하고,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서툴고 어렵더라도, 그 위에 채워지는 모든 선택들이 결국 제 대학 생활을 완성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후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누군가가 시간을 정해주거나, 해야 할 일을 알려주거나, 옆에서 일일이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정하고, 정한 길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낯설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쌓을지 모두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저처럼 시행착오도 있고, 두려움도 따라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소식 및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학교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학교 공지 사항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공부와 더불어서, 많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보고, 아카라카, 연고전 같은 축제들도 참여하고, 학교에서 열리는 유명 인사들의 강연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연세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은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 정말 재밌는 4년이 될 수도, 힘든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용기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시도라도 괜찮습니다. 그 시도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도화지를 아름답게 채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이 앞으로의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열어 가십시오. 응원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대학 생활을 해보자

생명공학과 23학번 김경은

1

전공 선택 이유

생명공학과를 선택하기까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생명과학에 깊이 매료되어 주저 없이 생명공학과를 선택하였는데, 왜 생명공학이라는 학문에 매력을 느꼈으며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명과학에 끌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학문이 가진 무한한 미지의 영역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 아직 밝혀진 것이 많이 없고, 이 작고 정교한 생명체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경이롭게 다가왔습니다. 생명 현상은 마치 우주처럼 미지의 부분이 매우 많지만, 우주와 달리 접근성이 좋기에 이 미지의 세계에서 나도 뭔가 중요한 것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도전 의식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문적인 호기심을 넘어 실제 인류 사회에 대한 기여 부분에서 매력이 더욱 커졌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코로나 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마비 상태에 빠트리는 것을 목격한 뒤,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와 같은 바이오산업의 성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였으며, 전 인류에게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 우리를 구해낼 핵심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산업이며, 이 분야에 나의 역량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생명시스템 대학 중 다른 과가 아닌 생명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학생 때부터 물리, 화학, 정보과학과 같은 다른 과학 분야도 매우 좋아하였기 때문에, 생명 과학적 발견에 '공학적인 시스템 및 응용 원리를 접목'한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공학과는 말 그대로 생명과학과 공학 시스템을 융합하여 다루는 학과로, '의생명공학', '생명소재공학', '생명정보공학'이라는 세 가지 주요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먼저 의생명공학은 의학과 관련된 약품이나 키트 등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며, 생명소재공학은 신소재 개발 및 생명 공정을 처리하는 분야, 마지막으로 생명정보공학은 단백질이나 게놈 정보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분야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와 관련된 다각적인 분야를 깊이 접해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저의 꿈을 펼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2

나의 대학생활

대학생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대학생으로서의 삶은 이전에 경험했던 중, 고등학교 생활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자율성'에 있는데, 고등학생 때는 생활 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더 적기 위해, 혹은 타인의 의무적인 강요에 의해서 활동을 했다면, 대학생은 오직 내가 '하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활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대학생활은 어떠한지 크게 학업, 동아리, 기타 제가 해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생활이라 하면 학업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는 여러 전공 수업을 들으며 저의 관심사를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번 학기에는 정보통계학, 정

보 처리 등 코딩 수업을 위주로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듣고 있는 코딩 수업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생명정보학 분야 수업을 더 들어보고 싶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수업을 듣다 보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점 받기 쉬운 수업을 듣기 보다는 학점을 받기 어렵더라도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선 여러 수업들을 주저 하지 않고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처음에는 학업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 각 교수님마다의 강의 및 시험 스타일을 먼저 알고 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매 학기마다 학점 우수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학점을 잘 받고 싶다면 '강의 시간'에 집중하는 게 나중에 시험 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학생활에는 동아리를 또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엔 동아리로는 천문 동아리를 2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제 캠퍼스에 거의 버려져 가던 동아리 방을 임원들과 힘을 모아 새롭게 단장한 활동이었는데, 낡은 공간을 직접 페인트칠하고 새로운 가구들을 배치하며, 우리들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변화시키는 작업이었지만, 사실은 그곳에 우리의 애정을 불어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밤을 새워 별을 관측하러 여러 장소를 다니던 경험 또한 매우 특별하였는데, 별을 관측한 것 그 자체보다는 동기들과 새벽에 추워서 함께 덜덜 떨면서도 서로에게 핫 팩을 나누어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과정들은 아직까지

도 잊히지 않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이처럼 동아리는 저에게 학업 외적인 즐거움과 함께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공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동아리 활동을 그만 둔 상황이지만, RA (Residential assistant)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학년 당시 송도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RC 프로그램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그 프로그램들





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 현재 2학기째 2학사 D동 청송 하우스에서 RA로 활동 하는 중입니다. RA로 활동하며 ‘청송 흑시 야구선수예요’, ‘청송 펜팔 서비스’, ‘청송 기자단’, ‘잔말말고 연고전 굿즈 만들러와라잉’ 등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RA 활동을 통해 학교 법인 카드를 써보거나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특히 미디어 팀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포스터 및 디자인 업무 진행 등 학생회나 특정 조직이 아니면 경험하기 힘든 실무적인 활동들 또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봉사를 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기획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MT, 연고전, 아카라카 등 연세대학교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즐겨보는 편 이었는데,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학교생활을 매우 즐기



면서 한 편이지만, 후배분들 이라면 저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며 대학생활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꼭 해야 한다’고 의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생활의 성과는 오롯이 여러분이 하는 만큼 결정됩니다. 이 무한한 자유가 대학 생활을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많은 활동을 해봐라! 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각자가 어떤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지 그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3

진로계획

학부생일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자

저희 생명공학과에서는 매년 11월에 교수님들께서 각 연구실에선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학부생들에게 소개하는 ‘랩 투어’가 열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랩 투어에 참여하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진행되는 최신 연구 동향과 논문들을 직접 알아보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는 무엇일까’에 대한 진로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였고, 이 시간을 활용하여 각 연구실의 분위기, 주요 연구 주제, 연구 스타일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 이상 학부생이라면 여름 또는 겨울 방학에 특정 연구실에서 200시간 이상 동안 인턴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 학기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저는 랩 투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겨울 방학 동안 관심 연구실에서 랩 인턴을 지낼 예정입니다. 방학 인턴십 이후에도 학기 중에 인턴 생활을 계속 이어가며, 제가 정말 어떤 연구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교수님 아래에서 대학원 공부를 이어가고 싶은지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계획입니다. 물론 랩 인턴십은 꼭 연세대학교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타 학교의 연구실에서도 충분히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컨택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외에도, 학부 시절에 꼭 글로벌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년 2학기에 교환 학생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번 학년에는 전공 공부와 토플 공부를 병행하며 준비해왔는데, 다행히 교환 학생 파견 가능 성적을 확보하여 현재는 어떤 해외 대학을 선택할지 즐거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교환을 가진 않았지만, 교환을 갔다 온 여러 선배들 말을 들어보니 물론 연세대에서도 정말 좋은 교수님들 하에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해외 유명 대학이나 교수님 아래에서 연세대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던 다양한 바이오 분야의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며,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을 넘어, 해외 연구실에서 인턴 활동을 해보거나, 국제적인 학술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보는 등 학문적, 개인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학부 시절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졸업 후엔 내가 정말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랩실에 들어가 대학원 생활을 하며 여러 연구 및 논문 실적을 올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키트나 신약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와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 회사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해외에서 하였던 인턴 생활에 흥미가 생긴다면 해외 대학원 생활을 하며 박사 과정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졸업 후에 계획은 두리뭉실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학부 시절 여러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후배 여러분들도 학부생으로써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모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험 하나하나가 나중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엄청난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아마도 어떤 후배님들은 아직 자신의 진정한 흥미와 열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새내기로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외부의 시선이나

단순한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선 학부 생활 때 해 볼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주저하지 않고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학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리 활동, 교내외 프로젝트 등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에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밴드 동아리에서 기타를 치고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는 데에 강렬한 희열을 느낀다면, '나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팀원과 팀워크를 맞춰 가는 과정이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준비한 것을 선보이는 과정 등을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기 인식이 될 겁니다. 이러한 작은 경험들은 나중에 결국 쌓여서 여러분의 진정한 성향을 나 자신에게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대학생활은 1부터 100까지 모두 '자율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즉, 여러분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대학생활입니다.

후배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대학 생활의 모든 기회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적인 도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가장 빛나는 자산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멋진 시작을 응원합니다!

꽃꽂할 힘을 기르는 대학 생활



컴퓨터과학과 24학번 이하람

안녕하세요! 컴퓨터과학과 2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이하람입니다. 학생자치단체 선무리의 단장을 맡고 있고, 모르고리즘, Ybigta에서 활동 중이며 무악하우스 RA로 송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과를 대표하여 글을 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컴퓨터과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컴퓨터과학과는 보통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과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즐기거나,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그저 점수가 맞거나... 돌이켜보면 저는 세 가지 모두에 조금씩 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과학과에는 무언가에 깊게 몰두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 교양 위주로 수강하는 1학년과 달리 2학년이 되어 신촌 캠퍼스에서 본격적인 전공 수업을 듣게 되면 만만찮은 공부량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컴퓨터과학과에서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컴퓨터의 사고방식 그 자체를 배웁니다.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법(자료 구조)과, 어떤 문제를 가장 논리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알고리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컴퓨

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컴퓨터 구조), 스스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운영체제) 그 근본 원리를 파고듭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논리를 파헤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 커리큘럼 자체가 이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루며 뽀뽀하게 짜여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개발이나 알고리즘, 수학에 뛰어난 동기나 선배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저는 그 속에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버티고 감당해야 할 공부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최근 우리 학부가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시스템학과로 세분화되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시 모델을 활용하거나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치는 과정 자체에서 희열을 느낀다면 컴퓨터과학과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가 데이터와 모델링, 그리고 그 응용에 더 집중하고, 인공지능시스템학과가 시를 구동하는 하드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현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컴퓨터과학과는 이 모든 기술의 뿌리가 되는 컴퓨팅의 본질과 논리의 뼈대를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결과물 이전에 어떤 기술이든 소화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와 원리를 먼저 쌓고 싶은 학생에게 이 전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2

길 잃음의 연속, 그 속의 인연

누군가는 송도 유배라 부르는 1학년의 생활이지만 제게 그 1년은 동기들끼리 가장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다시는 오지 않을 밀도 높은 단체 생활의 경험이었습니다. 송도에서의 1년은 우리가 연세인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순수하게 뭉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목이 터져라 외쳤던 합동 응원전의 함성, 내 옆의 학과 동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깨동무를 하고 기차를 돌았던 연고전의 그 뜨거운 열기를 기억합니다. 또한 돌아보면 무악하우스에서 보낸 RC 활동은 다양한 사람과 경험을 만나는 가장 유익했

던 창구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악 허브 가든 활동은 제게 가장 재밌고 뜻깊은 기억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텃밭 가꾸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송도에서 동기들과 함께 직접 상추와 허브를 기르고 수확해서 다 같이 나눠 먹었던 그 순간의 뿌듯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학기가 마치고 RC 포트폴리오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해외 대학에서도 연세대학교의 RC 교육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특별한 경험과 도움, 그 뜨거웠던 공동체의 기억을 다음 후배들에게도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RA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현재 1년 차 무악하우스 RA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동아리·학회, 무얼 해야 할까?

저는 이 년 동안 수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 동아리 '모르고리즘' 활동입니다. 모르고리즘은 하나의 주제에 경이로울 정도로 몰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함께 밤을 새우는 그들의 열정에서 순수한 지적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대회를 준비하며 어려운 문제 앞에서의 좌절보다 동료들과 함께 도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자치 단체 '선뚜리'에서의 활동입니다. 후배들을 돕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은 전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그리고 '왜'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방향을 나누고 같은 목표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가진 힘과 그 속에서 성장하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의 언어를 배웁니다. 0과 1, 명확한 논리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명확함의 세계에 매몰되어 사람과의 교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 사람과의 인연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는 학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것을 쉽게 단정 짓거나 대학 생활에 있어 학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타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대학 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4

성장을 유예하며 곳곳이 방향하기

특히 최근 생성형 AI의 놀라운 발전은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매일 던지고 있습니다. 당장 코드를 짜는 단순한 코더의 역할은 머지않아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계를 다루는 AI 연구자라는 더 높은 곳을 강박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거대한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불안감이 들 때마다 저는 다시 우리가 배우는 컴퓨팅의 본질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코딩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생성형 AI가 훌륭한 도구인 것은 맞지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의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시가 내놓은 답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그 결과를 시스템에 통합하는 능력은 컴퓨터과학의 근본 원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코더는 대체될지 몰라도 기술의 이유를 묻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자와 공학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 공부가 바로 그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4년, 약 1,460일의 대학 생활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저는 그 절반을 향해 숨 가쁘게 걸어가는 중입니다. 저는 대략 600일쯤에 있겠고요. 늘 대학 4년이 어찌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인이 되는 것을 유예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어른이 되기 전에 나만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예 기간 동안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 년의 대학 생활을 보내며 느낀 것은 생각보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 언제든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학 생활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을 마음껏 방향하거나, 깊게 집중하거나, 무언가에 걸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애써 빚어낸 결과물이 초라할지언정, 그 초라함을 딛고 언제나 곳곳할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누구라도 붙잡고 꼭 뭐라도 물어보시고, 안된다면 제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스타그램 @_ram_mma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



인공지능학과 24학번 **고현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고현진입니다.

이 글에 저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나 용기로 남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1

전공 선택 이유

어렸을 적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뇌파로 드론을 움직이는 체험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머리에 낫선 뇌파 측정 장치를 쓰고 초콜릿을 먹는 상상을 하자, 드론의 프로펠러가 눈앞에서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놀랍고 신기했던 그 순간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고, 인간의 뇌와 기술을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에 관심을 두며 뇌 공학자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정보 수업에서 인공지능경망을 배우며 인간의 뇌를 모방한 구조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학급과 학교, 나아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론으로만 접했던 기술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인공 지능을 통해 사회에 의미 있

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인공지능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의 대학 생활은 세 가지의 큰 흐름으로 이어져 온 듯합니다.

대학 입학 후의 슬럼프와 극복

입학 초, ‘나는 인공지능을 통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은 걸까?’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내리지 못해 방향했습니다. 그때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공과 배경의 동기들과 협력하며, 조금씩 답을 찾기보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제 가능성을 하나씩 발견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없던 분야의 RC 프로그램에도 일부러 참여하며 낯선 도전을 즐기는 마음가짐을 키웠습니다.

‘2024 연세-넥슨 \sqrt{i} RC 창의플랫폼’에서는 AI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며 팀원들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어 ‘2025 Global College Startup Camp’에서 한·일 대학생들과 협업해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돕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와 관점의 차이를 넘어 공통의 가치를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협업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우승이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4-2 IHEI Winter Workstation’에서는 배달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앱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문제의식을 사용자의 pain point와 연결하며 솔루션과 맞물리도록 설계하는 중요성, 그리고 팀의 다양한 역량을 조율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결과보다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도전

2학년이 된 지금도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순간은 지원서를 쓰며 저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원하는 활동을 경험해보기 위해서는 기관이 찾는 인재상과 본인을 설득력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처음 대외 활동에 지원할 때만 해도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심 끝에 작성한 지원서가 하나 둘 쌓이고 저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전공 외 분야의 지원서도 자신 있게 써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Wellesley-Yonsei Language Buddy Program, 연세중국어학당, 국제기구 진출 아카데미, 인공 지능 경영 융합 심화 전공 등을 통해 다문화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길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르고리즘, 서우회 등 교내 동아리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골프와 요트 같은 운동 수업으로 균형 있는 일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콜로키움이나 북콘서트, 포럼에 참여해 학문과 사회의 접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합니다.

도움을 청하고 주고받는 보람

1학년 1학기 ‘시민 사회와 자원 봉사’ 수업을 계기로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봉사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하신 말씀이 당시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2학년이 되어 대학생 연합 경영컨설팅학회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 지원 정책, 온라인 채널, 마케팅 등 작은 제안이 실제로 가게에 적용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신념과 철학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현재는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매주 통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올해 해외여행 중 응급실에서 겪은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낯선 의료 시스템 속에서 발을 다친 채로 막막함을 느꼈던 기억, 그리고 그런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의료

진에 대한 감사함이 선명합니다. “몸 조심하세요.”라는 짧은 말 한 마디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지만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보람을 얻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또한 청년 봉사단의 정기 봉사에도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은 도움을 나누려면 먼저 도움을 청하고 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동기와 선배, 사회에서 만난 다양한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내민 손을 누군가 기꺼이 잡아주는 따뜻한 경험이 훗날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3

진로 계획

현재 저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1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산업체, 공공기관, NGO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제가 가진 전공 지식과 능력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입학 초에는 ‘아직 정해진 길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울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설렘이 더 큼니다. 가치관과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그 방향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이 쌓여 저의 길이 되고 그 모든 시도가 값진 배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학회 활동, 랩실 인턴, 송도 RA, 유럽 교환 학생 등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여 진로 때문에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 무엇이라도 부딪쳐 경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작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양한 진로 검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부설 코칭 상담센터의 심리 검사, 심리 상담센터의 진로 및 자기이해 검사, 어세스타 STRONG 직업 흥미 검사, 뇌인지적성 검사 기반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학교에 방문하는 시기를 커리어 탐색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세 커리어 브릿지 페어, 현직자 직무 특강, 연세 취업 박람회, 정기 연고제 학술제, 채용 설명회 등 기회는 많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생 기업 탐방 행사나 커리어 연세 현장 실습 프로그램, 랩실 인턴 역시 좋은 기회입니다.

4

후배들에게 한 마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나요? 저는 방향의 시간을 보냈던 1학년 때, 제게 어떤 가치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알아가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학년의 끝을 앞둔 지금, 그 목표를 꾸준히 이뤄오며 3학년에는 전공 경험에 더욱 집중해 보려 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장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만의 길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인스타그램 @o.hvunzin
✉ 이메일 hyunjin@yonsei.ac.kr

HEART OF YONSEI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신학과 20학번 이광호

1

전공 선택 이유와 전공 이모저모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20학번 이광호입니다. 저는 학부 신학과 졸업 이후,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아래 상담코칭학 석사 1학기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전공 선택에 있어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던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대해 조사하면서 특히 상담코칭학 전공이 유명함을 고등학생 때부터 알게 되었고 상담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신학생을 지망했던 이유는 본래 크리스천이기도 하였고 고등학교에서 3년 간 기숙사 단체 생활을 하던 중 다양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꿈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신학 전공은 다소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도 단연 한 번씩 들어 보았을 수 있는 “신학과? 너 목사되려고?” 등의 전공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질문을 받았던 점입니다. 여느 신학교의 신학과와 달리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가지는 차이점은 종합대학 안에서 타 전공과의 학제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즉 단편적이고 통상적으로 보이는 목회에만 진로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학과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의 정도나 신앙의 유무, 종교의 종류, 희망

진로 등 너무나도 다양한 차원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간혹 연세대학교 신학과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신앙을 잃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지레 겁을 먹는 크리스천 학우들도 있지만 그것은 철저히 각 교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 여기는 교회가 아닌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각 교단에서 오는 보수적인 성향 등의 교리 차이나 틀에 굳어진 신앙 체계와 달리 연세 신학은 학문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포괄하여 접근하는 초교파=에큐메니칼 신학을 추구하기에 생겨난 오해일 뿐이니 혹시 그 부분에 관하여 고민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공교롭게도 저는 코로나19를 직격으로 맞은 학번이라 첫 대면 학기가 3학년 2학기였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업에 매진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대학생생활, 특히 학업과 관련한 팁을 드리려 합니다. 사실 대면 학기를 1년만 하고 졸업했을 뿐 학업에 있어서는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수강신청 및 학점 관리 팁입니다. 학점은 취업 준비나, 복수전공, 대학원 입시(특히 로스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학점의 7할은 수강신청에서 결정되는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새내기 후배 분들의 경우 선착순 수강신청을 하실 텐데 소위 말하는 좋은 강의만을 다 담지 마시고 에브리타임 어플의 수강 후기 3점대 강의 평을 꼼꼼히 읽어보고 적절히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무난한 시간표가 완성될 것입니다.

신학과 수업의 경우 시험보다는 레포트 형식의 글쓰기 과제가 많은 편입니다. 전공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복수전공 고려 시 전공 선택과목을 3학점 기준 다섯 과목만 수강하면 필요 학점도 잘 채워지는 편입니다. 신앙이나 성경 베이스가 없어 자신이 없다면 상담코칭학, 교회사,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윤리학, 종교철학, 선교학 분야의 교과목을 수강하셔도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신학과는 타과에 비해 마일리지 수강신청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복수전공이나 인기 교양을 잡기 한층 수월하다

진로 이야기

는 이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생활 내내 수강신청을 다 성공했습니다. 신학과 학생으로서 가지는 이점을 충실히 활용한다면 더욱 풍성한 학교생활이 될 것입니다. 일부 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시 인기가 많아 본 전공생들도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신학과에서 아낀 마일리지로 인기 전공 및 교양의 수업을 복수전공생으로 다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복수전공으로 심리학을 선택하였습니다. 복수전공을 위해서 학점 관리를 성실히 하시고 관심 있는 타 전공 수업을 미리 들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SU 제도도 잘 활용하면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관심있는 전공분야를 탐색할 수도 있고 지원 시 어필도 되니 이 점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추천합니다. 체감상 그리고 시기상 개인적으로 복수전공 지원은 2학년 2학기 직후 정도를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다 채우고 2학년 때 신학 수업을 다 듣고 3학년 때 심리학 수업을 다 수강하였습니다. 굳이 2학년 2학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신학 시간표와 희망하는 타 전공의 필수 수업이 겹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신학 수업을 듣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수강 학점을 잘 미리미리 채워들으면 마일리지 수강신청의 경우 내내 유리하니 학점을 가급적 19학점 정도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대면 대학 생활과 맞바꾼 학점 치타로서의 삶(?)은 저를 학석사 연계과정 및 조기 졸업으로 이끌었습니다. 군 강좌 포함 이미 3학년 2학기에 졸업 학점을 채워서 저는 여러모로 시간이 남았는데요. 상담 진로를 희망한다면 석사 학위가 최소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대학원 신학과 아래 있는 상담코칭학 전공에 지원하여 학석사 연계과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전액 장학금이라 저와 같이 필수적으로 석사과정이 필요한 분들께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신학과 상담코칭학 석사과정의 경우 무려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도 졸업이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사 제도를 이용하여 4학년 1학기에 대학원 수업을 미리 듣고 여유롭게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졸업과 우등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면 신학생들에게만 따로 TO를 편성해서 운영되는 장학금도 일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학교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과에는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고 실제로 여러 분야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세 신학이기에 특정적으로 한정된 진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심리상담사, NGO, 기업 취직, 해외 대학원 진학, 로스쿨 진학 및 변호사, 행정고시, 교사, 사교육 강사, 언론 및 미디어 분야, 창업, 게임과 같은 콘텐츠 작가 등 다양한 분야를 준비하고 실제로 해 나가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AI 시대에 새로

이 생겨나는 윤리 문제들에 대한 제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상담코칭학과의 경우 TV 프로그램 이혼속려캠프 토론자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유영권 교수님, 권수영 교수님을 필두로 여러 상담 분야의 선배들이 넓게 포진해 있어 네트워킹이 꽤나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크나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코칭학 분야의 경우 수련 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피해야 하는데 거기서 오는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원 수업 커리큘럼을 통해 상담 수련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입니다.



후배에게 한 마디

신학의 경우 인문학 분야이고 대부분 보고서나 성찰을 요하는 커리큘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삶에서 다루는 실질적인 고민들을 다룰 수 있답니다. ‘대2병’이라고 불리는 혼란한 시기를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신과대학 내 상담코칭지원센터에서도 용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니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요즘 특히 ‘납득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세대’인 만큼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



갈지 이유를 찾기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나의 삶을, 그리고 주변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는 것 역시 신학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신앙 여부를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잃어버린 사랑의 가치를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낭만을 찾는 발자취로써 연세 신학에서 메마른 세상 속 촉촉한 단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연세 신학에 오신 모든 후배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열심히 말고, 재미있게 잘하면 됩니다.



행정학과 & 사회복지학과 학부 19학번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25학번 권태진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로 만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권태진입니다. 2019년 연세대에 입학하여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 했고, 2025년 학부를 졸업한 뒤에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학의 여러 개념 중 ‘경로 의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연”으로 마주하게 된 어떤 순간과 결정이 만든 “경로” 덕분에 상상해 본 적 없던 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게 된 여러분의 우연이 행정학을 선택하는 경로로 안내하기를, 다른 학과를 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의 학부 생활을 상상해 본 적 없던 근사한 결과로 안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1

행정학? 유능한 정부,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학문!

대체 행정학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림잡아 고등학교 1층에 있던 행정실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남성이라면 군대의 기술행정병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학의 영문 명칭을 생각해 보면 행정학의 정체성을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Public Administration, 더 풀어서 쓰면 우리 학교 행정학과의 영문 이름처럼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공공 정책을 설계하고, 그 공공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 기관을 현명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 공공의 가치가 끊임없이 창출되도록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 중 가장 현실의 시사 문제에 맞닿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고민을 쏟는 실용 학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랬듯 저도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의 꿈을 오랫동안 꾸기도 했고요. 좋은 법을 제안하고 설계하여 우리 사회의 공공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는 어릴 적의 부푼 꿈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학이 아닌 행정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두 학문이 지향하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져서였습니다. 정치학은 우리 사회의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과 이념, 가치를 논의하고 사회의 ‘정의’를 고민합니다. 행정학은 그렇게 배분된 권력을 그래서 “어떻게” 실현해야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징수해야 할까?’, ‘폐기물 소각장을 짓기 위해 주민들의 합의는 어떻게 얻어내지?’, ‘공무원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사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설계할까?’, ‘이상 기후 속에서 주거 취약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지?’, ‘가뭄과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는 어떻게 역할을 분배해야 할까?’, ‘인공 지능을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정부의 서비스를 더 손쉽게 제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습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단어 이면에 담는 수많은 의미는 사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넘어서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는 공공의 영역 저변에 닿아 있잖아요?

행정학은 우리의 일상을 더 좋게 발전시키려는 고민에서 시작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언뜻 “Public, 공공”이란 단어가 정치학과 비슷해 보일 때도 있지만 “Management, 관리”라는 단어처럼 마치 회사가 비즈니스 전략을 짜듯이 경영학 같은 면모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Policy, 정책”을 연구하면서 경제, 사회, 교육, 노동, 사회복지, 군사·안보, 문화예술, 보건의료, 도시·건축, 과학기술, 기후·환경, 심지어 우주까지……. 다양한 세부 분야 이론과 지식을 접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요람에서 우주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지식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학문이죠. 융합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문제를 찾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싶다면,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정부가 더 똑똑해지는 해법을 만들고 싶다면, 연세대학교의 행정학과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025년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행정학 부문 세계 6위를 차지한 이곳을!!!)



2

“하고 싶은 것을 재미있게 하다 보면 잘하게 돼.”

학교를 입학하고 나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수업도 전부 내가 선택해야 하고 동아리나 외부 활동도 ‘지나치도록’ 내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마치 새로 들어간 식당에서 처음 본 메뉴가 너무나 많을 때 그저 멀뚱멀뚱해지는 것처럼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학부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책 읽는 것이 좋아서 공짜 책을 매 주 받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Junior

Scholar Club (JSC) “프렙” 챗터에서의 1학년, 행정학과 PLAY 활동에 참여하여 지방 공동체를 직접 견학하고 친구들과 개선점을 고민해 발표했던 2019년의 여름,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는 없었지만 집에서 피아노 코드 반주를 독학했던 2학년, 군 생활을 마친 후에는 저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미국 버지니아의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년, LA를 누비고 다녔던 3학년 1학기, G20 정상 회의의 대한민국 청년 대표가 되어 인도에서 세계의 친구들과 기후 변화 대응을 논의했던 2023년 여름, 열심히 익힌 피아노를 혼자만 치기 심심해서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 ‘셋별’에서 열심히 공연했던 학부의 마지막 세 학기, 이제 좀 그리워질 때면 어김없이 돌아왔던 아카라카와 정기 연구전에서 “파란”을 수혈하던 봄과 가을, 그리고 하고 있는 공부가 재미있어서 Junior Scholar Club “사회과학” 챗터에서 부원들과 함께 논문을 읽고 마침내 행정학과 학석 연계 과정생이 되어 지도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뛰어들었던 선택, 그 모든 순간이 저의 대학 생활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공 생활과 학과 공부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곳은 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학점 관리는 참 중요한 일이죠. 저 역시도 사회과학대학 최우등 졸업자로 학부 과정을 마쳤

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다른 많은 곳 이상으로 좋은 이유는 단지 좋은 지식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전혀 해 보지 못한 경험에 흠뻑 빠져들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더 많이, 깊게 던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 위 명	행정학사, 문학사
교 과 목 명	
*: 영어로 진행된 교과목	
[수상 기록]	
2019학년도 1학기 - 최우등생	
2019학년도 2학기 - 우수생	
2020학년도 1학기 - 우수생	
2020학년도 2학기 - 우수생	
2024학년도 1학기 - 최우등생	
최우등졸업생	

다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는 것, 재미있는 수업을 들으며 새벽까지 발표를 준비해도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것처럼요. 우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많이 들어 왔어요. 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다면 그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재미’를 찾으면 됩니다.

제게는 그 재미가 행정학 공부에 있었고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기후 정책을 연구해서 정부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해법을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행정부 공무원이 되어 제안을 넘어 실제로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재미를 느낀다면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행정고시)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는 법률을 해석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싶다면, 기업과 조직의 회계 속에서 무언가 흥미가 느껴진다면, 시장과 민간 조직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싶다면, 아니면 그런 조직을 내가 직접 꾸려보고 싶다면,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인가에 재미가 느껴진다면 그에 맞는 진로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남들도 이런 길을 걸으니깐’의 이유로 자신의 길을 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 본인의 일에 가장 푹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는 것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문득 하고 싶은 일을 꽤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행정학이 말하는 “Public, 공공”의 가치와 생각을 한 스펀 정도 엮었다면 그것만큼 근사한 일이 있을까요?

3

대학은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연습하는 곳

지나고 보면 대학교 학부 생활 4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학점을 잘 채워 수강하다 보면 어느새 학위를 수여 받는 날이 옵니다. 점점 세상은 대학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면 뭐에 써먹어?”, “졸업해서 뭐 먹고 살래?”라는 질문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주칠 것입니다. ‘취준생’이라는 이름표를



최대한 적게 달고자 고군분투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 공부의 의미가 단지 ‘써먹는 것’에만 있지는 않아요. 대학 university의 어원인 라틴어 universitas는 중세 시대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복합체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소통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정해진 답을 외우기 전에 수많은 질문을 만들어 사람들과 대화해 가는 것이 대학이 갖는 근원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

어진 답을 외우는 데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을지 훈련하면 됩니다. 운이 좋게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나라, 사회, 공동체란 이름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공공의 과제와 도전에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과 해법을 모색하는 행정학과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한다는 약간의 사명감과 ‘새로운 생각’으로 맞이하는 수많은 즐거움을 이곳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 인스타그램 @kwon_taejin_

주체적인 대학 생활



사회복지학과 24학번 임재혁

1

전공선택 이유

저는 과 생활 적응, 추구미, 유망성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저는 입학 당시에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입생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학기인 24년도 가을 학기부터 학교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후발 주자인 저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줄 착한 친구들이 있을만한 학과를 골랐고 그 중 사회복지학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힘든 사람들을 돕고, 모두가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전문적 지식을 통해 제도적으로, 실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들었고, 제 추구미에 맞는 것 같아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기계화로 점점 대체되는 사회 속에서 대체되지 않는 직종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지식은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라 생각했기에 유망성이 있다 판단했고, 이러한 이유들로 사회복지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학문적인 대인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대학 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저는 인문사회학회 '한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한누리는 인문·사회과학적 주제에 대한 자료를 읽고, 각자 글을 쓴 뒤 토론하는 학회입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매주 토론을 반복하면서 제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학술부로 활동하며 다른 학회원들의 자료를 정리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후에 학회장으로서 학회를 이끌며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MT 및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저는 24학번 사회복지학과 학번대표로서 학우들 간의 소통을 담당했습니다. 과잠바 공동 구매를 총괄하며 디자인 선정, 견적 조율, 예산 관리 등 실무를 했습니다. 또한 학과 회식과 공지사항 관리도 맡았습니다. 학과의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25학번 새내기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새맛단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맛단은 신입생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부새맛단장을 맡아 OT, 새로배움터, 정모 등의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수강 신청, RC생활, 동아리 추천 등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새맛단을 하며 후배들에게 도움도 주고 친분을 쌓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현재는 지원하우스 RA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A는 RC학생들의 생활 적응과 공동체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A를 하면서 다른 과에 속해 있는 같은 하우스 RA들 및 RM 교수님과 의사소통 및 번업을 통해 협력심을 기르고 대인 관계술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송도치원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조원들과 함께 구역 청소를 하며 걷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RC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뿌듯함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저는 희망원정대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소외지역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화순으로 일주일간 내려가 아이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밤에는 같이 간 캠프원들과 놀며 교류했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에 여태까지 한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활동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멘티들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에는 한국어학당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교환학생 Roron과 파트너가 되어 활동했습니다. 함께 볼링을 치고, 노래방에 가고, 흥대를 구경하면서 방학 동안 단짝 친구가 되어 서로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던 저에게 이런 언어 교환 프로그램은 부담 없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고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저의 대학 생활은 공동체 속에서 저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가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진로 계획

저의 진로 목표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논리에 근거하여 형성된 법의 조문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절차적 정의에 근거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멋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위해 현재 법 관련 수업을 적극적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행정법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판결의 재구성』, 『사람이 싫다』와 같은 법조계 관련 서적을 읽으며 법조계에서 일하는 나를 상상해봅니다.

더불어 연세 고전 200 목록에 있는 도서와 리트 추천 도서를 꾸준히 읽으며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수업도 열심히 들어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대학은 자신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누리 학회, RA활동, 봉사활동, 언어교환 등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시도해보길 바랍니다. 대학은 여러분이 마음먹은 만큼 빛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문화인류학과 21학번 박규현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인류학과 21학번 박규현입니다. 지금은 여섯 번째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군 휴학으로 2년을 보내고 2025년 1학기부터 복학했는데, 진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후배분들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 들께는 입학 5년차와 3학년 2학기 둘 다 먼 일로만 들릴 것 같지만,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전공선택 이유

제 전공인 문화인류학과는 올해로 16년째인 오래되지 않은 학과입니다. 한 학년에 20명 내외로 입학하기 때문에 낯선 학과명에 이 글을 읽게 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과 학생들은 '문화인류학과에서는 뭐 배우요?'라는 질문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교양이나 대외 활동에서 학과를 소개해야 할 일이 종종 생겼는데,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인터뷰하고 글쓰는 수업이라며 어물쩍 넘기는 게 1학년 땐 괜히 자존심이 상하곤 했습니다. '인간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며 학과 홈페이지 문구 그대로 외워서 설명도 해봤고 유명한 학자와 이론을 소개해보기도 했지만 저도 잘 모

르는 내용을 설명하는 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 과제로 수행했던 작은 연구 주제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인류학을 배우는 수업에서는 조원들과 실내 클라이밍장을 수차례 방문해 '초보 클라이머'로 스포츠 현장에 참여관찰하고 암장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심층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기록을 글로 풀어가며 초보 클라이머가 동작에 익숙해지고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주목하였고 인류학뿐 아니라 철학, 현상학, 스포츠과학 등 여러 이론을 찾아 설명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서울의 한 코리빙 하우스를 배경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거주자들의 엇갈리는 인식을 포착해보려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인류학의 대표적인 방법론을 두고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문화기술지를 작성한다고 말합니다. 문화인류학과 전공 수업에는 개인 혹은 조별 기술지를 작성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호흡이 긴 글을 완성하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교수님께 피드백 받거나 중간·기말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프로젝트나 조모임이 잦은 만큼 성향에 따라 시험을 보는 과목보다 더 고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현상에 관해 당사자와 만나고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며 여러 시각을 얻는 일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제게 여러 영향을 남겼습니다.

2

대학 생활

문화인류학과 학부생활의 꽃은 2번의 필드워크(학과 현지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2학기에 열리는 한 학기 동안의 학과 연구 활동으로 2번 이상 참가해야 졸업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학과 답사를 떠나는 것처럼 저희도 3박 4일간 현장연구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참여관찰도 하고 사전 연구 과정에서 섭외한 분들과 심층 면담을 수행하기도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기억에는 8명 내외의 인원이 한 조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학교 생활 동안 한 번 할까 말까 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인류학과 과방과 홈페이지에 학우들이 완성한 기술지가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 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필

드워크에 참가했고, 2학년엔 학과 학생회장 겸 필드워크추진위원장으로 필드워크 준비와 진행을 맡았습니다. 필드워크추진위원회로 활동하며 여름방학부터 조장을 모집하고 조장 지원자,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 후보지를 추려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2022년 필드워크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부산의 '부산-스러움'을 대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필드워크 경험 모두 대면 체제의 연구자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학과 생활의 몇 안 되는 아쉬움이지만, 관광 이미지와 SNS/도시재생/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하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는 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녀살 좋게 인터뷰를 이끌어가는 연구자의 역할이 아직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수업의 틀 안에서 원하는 주제를 탐구하고 잘 다듬어보는 과정이 제가 입학 당시 기대했던 대학 생활의 모습과 유사했던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해하던 사회적·문화적 현상을 다루다 보니 과제 중간에 제 생각을 뒤집거나 결과물에 소소한 애정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연구 현장에 나눈 말들과 우리가 본 것을 조합해 해석하고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업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자유학부의 현재 운영계획에는 문화인류학과가 모집단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흥미롭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인류학에 관심이 생겼다면 전공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문화인류학과가 문화의 여러 방면을 폭넓게 배우는 덕분에 전공 수업 중 선수과목이나 이론적 배경에 있어 부담이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과는 전공강의 마일리지 신청도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니 시간표 짤 때 편람에서 흥미로운 강의를 있을지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3

진로

나는 어떻게 전공이 세 개가 되었나

저는 문화인류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접했습니다. 질적 연구로 쓰인 한 책을 읽고 책

날개에서 처음 접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진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서 배우는 공부는 이게 가장 제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전공이 뭐가 되었든 관광과 여행, 축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 진로에 축제 연구자라는 모호한 직업을 써내고 문화인류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말 전역할 때까지도 해도, 복학해서 한 학기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진 뒤 문화인류학과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장학금 지원과 함께 학부생들에게 대학원 수업 학점을 미리 수강할 수 있게 하여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관광/여행에 관한 인류학 공부를 조금 더 한 후에 관련 연구 진로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번 학기에 새롭게 복수 전공과 연계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대학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아직 관광이라는 큰 틀 이외에는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잡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수 전공으로 공과대학의 도시공학을, 연계 전공은 문화비평학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축제의 장소인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도시공학을 택했고, 문화를 어떻게 글로 잘 다루어야 할지 배우고 싶어 문화비평학에 골랐습니다.

복학 한 학기만에 이 정도로 졸업 계획이 바뀐 것은 전공할 학과보다 관심 분야가 먼저 정해져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2학년부터 전공 학점을 많이 들었던 것도 복수 전공에 지원할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3학년 2학기까지 여러 교양과 관심사를 탐색한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다음 학기 수강편람에서 다른 과 수업은 무엇이 열리는지 꼭 읽어보고 합니다. 더군다나 단일 전공으로 졸업하려면 다른 과의 전공 강의를 들어 3·4000단위 학점을 꾸준히 채우는 것이 유리하므로, 제가 주로 찾아본 키워드는 도시나 예술, 문화 등이었습니다. 저는 연계 전공 제도의 존재를 2학년이 되고 나서야 알았지만, 교양이나 타과 전공에서 골라 들은 수업들의 결이 문화비평학의 전공 인정 과목과 유사하여 빠르게 이수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면 내가 알고 싶은 화제에 대해 한 학기 동안 대학 전공자와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학 생활의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인류학처럼 자기 관점을 가지고 글로 풀어내는 학문에서는 여러 분야를 접하는 것이 뾰족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1학년 전공 첫 수업에서 들었던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인사

연세대학교에는 정말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4년은 신입생 때 보는 것보다 긴 시간이니, 일찍이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빠르게 진로와 목표를 정하고 계획대로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후배분들께서는 아직 졸업 이후가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닌 저는 대학만큼 적은 기회비용으로 전문 분야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는 곳은 앞으로 경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아동가족학과와 놀이학회인 '소꿉판'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에 관한 언급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 관련 학회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옥상정원영화제 서포터즈와 연고제 기획단에도 참가하며 바쁜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점 관리나 소위 말하는 '꿀강'을 찾는 것도 대학 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저처럼 관심사가 학과 수업과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는 내 생각을 넓혀 줄 수 있는 경험을 직접 찾아나서 보는 편이 진로 계획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수님들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고학번이 되어 느낀 것인데, 교수님들께 예의를 잘 지킬 수 있다면 교수님들께서 진로나 공부에 관해 적

절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도시공학 복수 전공과 문화비평학 연계 전공을 이수하고 있으며 아동가족학과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꽤나 특이한 이력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중 세가지는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일들입니다. 저는 졸업까지 남은 세 학기를 제 관심사인 관광, 여행, 축제에 관해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속 찾아보며 생활할 계획입니다. 대학 생활에 있어서 후배분들께 충분히 추진력을 모으고 부지런히 달려봐도 괜찮지 않나 싶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군생활을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발굴병으로 보냈습니다. 글에 적힌 제 대학 생활에 관한 대화나 병 생활에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응원합니다.

✉ 이메일 pahk@yonsei.ac.kr



융합 학문에서 나의 진로 찾기



의류환경학과 21학번 오늘온빛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환경학과 21학번으로 올해 2월 본교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학 석사 연계 과정으로 패션마케팅 연구실 석사 2학기를 지내고 있는 오늘온빛입니다. 2025 학년도부터 전공 자율 선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여러분의 의류환경학 전공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1

내가 의류환경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저는 과학고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 예체능에 두루두루 관심이 많아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학과로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인간공학'에 관심이 많았고 순수 과학보다는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과를 고민하던 중 의류학은 제 경험과 관심사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재의 특성과 기능성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적 관점, 소비자 행동과 시장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관점, 그리고 인간과 의복의 관계를 미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관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류학은 융합 학문이라는 점에서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1학년 1학기를 지내보니 전공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제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진로를 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에도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들으니 여러 가지로 많은 한계가 있어 고민하다가 서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간 코너에서 고른 책이 모두 기술 관련 서적이어서 제 관심사가 기술 분야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븐테크』라는 책이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책에서 인용된 자료를 다시 찾아보며 이를 의류학과 연결해 보는 방식으로 관심사를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XR과 AI라는 키워드를 얻게 되었고 그로부터 제 관심 주제를 더욱 발전시켜 갈 수 있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이렇게 찾은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1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기반 XR-AI 학회 XREAL에 들어가 가상 현실 아바타의 의상과 문화를 연구하고 칼럼을 작성했으며, 제1회 XREAL Metaverse Conference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부터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서 팀 대표로 AR 특허 기술을 적용한 뷰티 AI 플랫폼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연세대-고려대 연합 잡지 NERD에서는 가상세계와 AI에 관한 기고 및 전시를 기획했고, 디지털 아트 플랫폼 피셜(PIECIAL)에서 '메타아트버스' 전시 기획과 프로모션을 담당하며 제 생각을 글과 시각 콘텐츠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며 2학년에 진입한 후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류산업유통론 수업을 계기로 패션마케팅 연구실 인턴을 시작했고, XR과 AI를 패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학회 발표를 준비하며 다양한 논문을 읽고 연구방법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연세대-고려대 연합 창업 학회 '인사이드스'에 가입하여 10만원으로 1주일간 수익 창출하기, 유니콘 기업 벤치마킹, MVP(Minimum Viable Product) 검

중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을 만나 졸업 후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3학년에 진학한 후에는 '내가 잘하는 것을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학석사 연계 과정과 경영학 복수전공을 시작하며 활동을 심화했습니다. 먼저 연구 측면에서 패션마케팅 연구실에서 제가 작성한 논문으로 여러 차례 국제 학회에서 발표했으며,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럭셔리 패션 광고 논문은 'Best Conference Paper Award'를 수상했습니다. 창업 측면에서는 학과 동기들과 연세대학교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AI 기반 시각장애인용 패션 쇼핑 플랫폼' 프로젝트를 기획해 연세대학교 창업 표창을 받았고, 교육부 장관 인증 2023학년도 학생 창업팀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창작 측면에서는 생성형 AI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국제 학회 메인 영상 및 갤러리 라메르 '아트힐 아트페어'에 전시했으며, 이를 교육에 접목한 교과목을 기획해 사회 혁신 교육 제언에서 1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연구가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패션 마케팅 연구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창작 활동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연구는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학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한국, 이탈리아, 미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서 패션 AI 연구를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에 많은 학회 참석자들이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해 질문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같은 학회에서 동기들과 함께 한복 패션쇼를 기획하고 직접 한복 모델로 무대에 섰으며,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연구자로서의 진로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앞으로의 진로 계획

현재 저는 XR,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산업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패션과 기술의 융합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더해 '안전'이라는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류의 본래 목적은 몸을 보호하는 데 있고 생명을 지키는 이러한 보호 기능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안전 의복 개발, XR 기반 안전 의복 교육 프로그램 및 소비자 인식 연구,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등 패션과 기술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 마디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꼭 나열했는데, 돌이켜 보면 1학년 1학기 때 찾았던 XR과 AI라는 작은 관심사가 이제 졸업을 앞둔 지금 제 졸업 논문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해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와 이를 실천하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의류환경학은 융

합 학문이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 가능한 분야이니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오늘 하루를 최대한 열심히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씩만 해도 일년에 300개가 넘는 일을 할 수 있고, 3년이면 1,000개가 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shapefuture@yonsei.ac.kr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의미 있기를, 그리고 많은 성장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 이메일 ac.kshapefuture@yonsei.ac.kr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하게



실내건축학과 23학번 정태윤

안녕하세요. 저는 실내건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정태윤이라고 합니다. 후배분들의 전공 선택과 대학 생활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내가 실내건축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

저의 경우, 처음부터 실내건축학을 지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성향 자체가 호불호를 따지지 않는 무던한 편이어서 큰 미련 없이 실내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학과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한 학년이 30명 내외다 보니 다른 큰 학과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 특성상 ‘야작’(야간 작업)도 많았기에 설계실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더 친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기들과 친해지면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더욱이 송도에서 RC를 경험하게 된 것이 엄청난 시너지를 낸 것 같습니다. 혹자는 “송도 유배”라는 말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송도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들과 같이 붙어서 공부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동기들을 만나 많은 시



간을 송도에서 함께 보내며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기에 1학년부터 저희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바로 학과 수업과 학과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과 동기들이 좋고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하더라도, 학과 수업이 적성에 맞지 않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면 저희 학과에 이 정도까지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진국 교수님의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AI 등 현재의 최신 트렌드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서 실내건축학과 연계된 비전에 대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속해 있는 이 분야가 빠르게 변해가는 현 사회의 트렌드에 발맞춰 움직일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공에 더 흥미가 가고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고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론 수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스튜디오 수업들이 있어서 참 좋았고, 이론과 실무의 통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저는 2학년 때 1년 동안 단과대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을 즐겁게 보내며 자연스럽게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님의 권유로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낮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이런 활동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고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너무나도 즐거웠던 1학년 생활이 저를 이런 활동으로까지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동료 학우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뛰어다니는 학생회를 안에서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학과를 넘어 단과대에 대한 소속감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의 저처럼 이런 활동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걱정 말고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 대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RA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A는 Residential Assistant의 약자로, RC 학생들을 돕는 선배를 가리킵니다. 이것 역시 학생회 선배의 권유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송도에서 보냈던 기억이 워낙 좋았던 터라 제가 경험했던 즐거움을 신입생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RC 학생들을 관리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 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RA 활동은 저에게 지금까지의 학교생활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함께 일하는 동료 RA들과 RC 학생들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 시야도 넓어지고 많이 성장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RC 올림픽에서 축구를 맡아 약 두 달간 15명 가까이 되는 RC 학생들을 관리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우승으로까지 이어졌던 그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3

나의 진로 계획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이 글을 쓰기 위해 제 대학 생활을 돌아보니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해 참 감사합니다. 1학년 때 좋은 동기들을 만나 RC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학생회 및 RA 활동들까지 모두 감사한 기억들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 본 것이 아니었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제 앞에 놓인 일들을 해 나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등 많은 고민을 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속 편한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여 본인의 길을 잘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저의 진로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할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한 마음을 가진 채 역지로 이 활동, 저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알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낄지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모두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되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가족학을 통해 '사람'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게 된 여정



아동·가족학과 23학번 우연수

1

전공 선택 이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학문적인 시선으로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특정한 직업을 꿈꾸기 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연결되는 마음의 온기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성향은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학문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아동가족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공은 단순히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넘어, 인간의 발달과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



합니다. 학과 수업을 통해 애착이론, 가족체계이론, 발달심리, 상담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사람에 대한 저의 관심이 '감정'의 차원을 넘어 전문적 지식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아동가족학이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제 애착 유형을 탐색하고, 저희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인간관계에서의 행동 패턴을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덕분에 대학생활에서도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공부하고, 웃고, 실패하며 성장했습니다. 전공 공부가 제게 '사람의 내면을 탐구하는 렌즈'를 주었다면, 다양한 대학생활은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매 순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커질수록, 저는 제 선택이 얼마나 잘 맞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도전 속에서 배운 리더십과 공동체의 의미

대학에 입학한 뒤 저는 단순히 주어진 배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확장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준비-도전-성과-결실'의 순환이자, 저 자신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학문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 아래, 배운 이론을 실제 경험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와 아동가족학과 학생회에서 동시에 활동하게 되었고, 크고 작은 행사의 기획과 실행을 맡으며 조직 내 조율, 협력, 그리고 책임감을 체득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낀 경험은 '아동가족학과 대표 독수리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기존의 독수리 로고는 아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 위에 올라탄 모양으로,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학과가 지닌 학문적 깊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뒤에 '가계도'를 배치하여 가족의 관계망과 전 생애 발달의 흐름을 상징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 시도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학과의 '사람 중심 생태학적 시각'을 담으려는 학문적 고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디자인이 1위를 차지했고, 이후 아동가족학과 과감바, 신입생 웰컴키트, 제 35대 아동가족학과 학생회 '길벗' 카드뉴스 템플릿등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기획력과 디자인 역량, 그리고 학문적 이해가 결합된 결실이었습니다.

전공 외적으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스트릿댄스 중앙 동아리 'HARIE'에서는 걸리쉬, 힙합,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에 섰고, 여러 학과 친구들과 교류하며 예술적 에너지



와 협동심을 키웠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복싱 중앙동아리 ‘연세복서’에 합류하여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했습니다. 현재는 주 2회 정기 훈련을 이어가며, 언젠가 직접 경기 선수로 출전할 그날을 꿈꾸며 꾸준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RC(Residential College)교육원 특임 RA(Residential Assistant)로 활동 중입니다. 이 역할은 단순히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해외에서 성장한 경험 덕분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화합과 상호 존중을 촉진했습니다. RC 공통 프로그램 기획·운영, 커리어연세 등록·관리, 홍보물 제작, 영상 편집 등 실무적 능력을 발휘하며 RC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처음 RA에 지원할 때는 ‘리더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함께 성장하는 리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솔선수범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의 진로에서도 공동체를 이끄는 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3

진로계획

아동 상담을 통해 가족과 사회로 이어지는 회복의 연쇄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가족 안에서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제 학문적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아동가족학을 전공하며 가족의 구조, 애착, 발달심리, 상담이론 등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인간의 성장과 관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얽혀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동’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은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갈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아동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등 다양한 요인 속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깊이 탐구하며 ‘가족상담가’로서의 방향을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들

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다루는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안의 아이 한 명이 겪는 상처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을까?” 이 물음이 제 진로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는 아동상담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치유와 변화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동상담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아이의 내면 세계와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안의 감정과 욕구를 해석해주는 매우 섬세하고 과학적인 실천 영역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며, 가족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통로를 얻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학기에 예정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의 아동상담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현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상담 접근법을 탐구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아동권리 중심의 상담 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으며, 다문화 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있어 통합적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의 상담관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시켜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귀국 후에는 상담심리 분야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아동의 정서 조절 메커니즘과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실무적으로는 상담사 자격 취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상담가로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며,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위기 아동 대응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가족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상담 모델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이나 복지 제도가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면, 상담은 그 구조 속 개인의 기능 회복을 직접적으로 돕는 미시적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상담은 발달 초기의 정서적 결핍과 애착 문제를 교정함으로써, 이후의 행동·가족관계·사회적 적응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상담이야말로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동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 마디

스스로를 다듬는 시간, 성장의 공간 대학교

제 대학 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대학을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답게 다듬는 공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에 나가면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법',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신뢰를 쌓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회와 동아리, RA 활동을 통해 그 능력을 배웠고, 그것이 앞으로 상담가로서의 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든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책임감'과 '주도성'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움직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전문성이 되고, 그 진심이 쌓여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의 신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저 역시 매 순간 제 진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아동가족학을 공부하며 배운 것은 '사람을 향한 탐구 자세와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진심과, 그 마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아동가족학은 제게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주었고, 그 배움은 지금도 제 진로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yeonsoowoo

✉ 이메일 wys20050205@yonsei.ac.kr

머무르고, 돌아보고, 다시 선택하기



교육학과 22학번 이주영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후배님들.

저는 교육학과 22학번 이주영입니다. 저는 현재 4학년 1학기 재학 중으로 평생 교육 관련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에 이번 기회에 후배님들께 교육학과에도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 '선배들의 진로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추천 받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큰 흥미를 가지지는 못한 채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송부 선배의 추천으로 교육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시 초등학교 교사를 목표로 생활 기록부를 준비하게 되었지만,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할수록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방식과 구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에듀테크에 흥미를 갖게 되어 제가 정말 배

우고 싶은 것은 교육공학, 교육평가 등 '교육학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철학, 비교교육, 기업교육 등 교육학의 여러 분야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관계 속에서 확장된 나의 대학 생활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후, 송도 기숙사에서 보낸 첫 1년은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해진 일정과 목표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대학 입학 후 갑작스레 주어진 큰 자유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에 무작정 참여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속도로 살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혼자 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보내는 고요한 시간도 제게는 중요한 쉼이 되었습니다. 송도의 넓고 상쾌한 환경에서 보낸 이 시기는 매일을 바쁘게 보내지 않아도 괜찮으며, 나만의 속도로 대학 생활을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제가 학과 활동과 진로 탐색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에는 '같이에듀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며 대학에서의 첫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활동이 낯설게 느껴지던 시기였기에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멘토링'을 선택했지만 이 활동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관계와 경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 2회 90분씩 zoom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수학과 영어 기초를 보완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제가 담당한 학생은 처음에는 과묵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대화를 이어가며 작은 성공 경험을 함께 만들다 보니 신뢰가 쌓여가는 순간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학 때에는 에끌레어 만들기나 반지 만들기와 같은 문화 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진로 고민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멘토링은 단순히 학습 지도를 넘어 한 사람의 일상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점은, 2년 뒤 다시 멘토링에 참여했을 때 같은 학생을 다시 만났던 일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동안 쌓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경험이었습니.

또한, 두 번의 활동 모두 활동 우수상과 팀 우수상을 받으며 사무국장님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멘토 활동의 기획 방식과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체 멘토 대상 보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MC 역할을 맡아 아나운서 분과 함께 진행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고 이때 함께 활동했던 멘토들과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은 저에게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과 경험의 축적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 신촌 캠퍼스로 오면서 다양한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학과 내에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학교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을 직접 듣고 싶다는 마



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지만 연합 국제정치·외교 동아리 'PAZ'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던 국제 이슈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단순한 관심에서 출발했지만, 매주 '우-러 전쟁의 발생 원인'과 같은 주제로 논문을 읽고 발제하며 토론하는 경험은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스스로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러닝 팀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수님 연사를 직접 섭외하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기획하는 등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실천과 연결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공에 국한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 말하고, 듣고, 질문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제게는 특히 소중한 기억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여러 대학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관점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배우는 폭이 넓고 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학과에서의 관계가 안정적인 '기반'이었다면, 연합 활동에서의 관계는 저에게 새로운 생각과 시야가 열리는 창과 같았습니다.

3

진로계획

진로는 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흔히 교육학과라고 하면 교직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 학번에서도 교직 이수를 준비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였고 일부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LEET·CPA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비율은 기업으로 진출하며, 특히 교육학을 기반으로 인사(HR) 또는 HRD 직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여러 길을 직접 경험하며 제게 맞는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 연구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학문적 질문을 깊게 파고들고 새로운 이론적 해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저의 흥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스쿨 진학을 고민했지만 법학 자체에 큰 흥미가 없었고 장기간 시험 준비 과정도 제 생활 리듬과는 맞

지 않았습니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낀 순간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선택, 관다과외 등 비대면 과외 플랫폼을 통해 약 20명의 학생을 지도했고, 설명을 듣고 학생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원 강사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해 보고자 두세 곳의 학원 면접을 보고 현재는 3개월째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내신 영어 수업을 진행하며 대면 수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과외, 학원 수업을 병행하느라 시간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학생과 눈을 맞추고 말의 호흡을 함께 맞추는 순간은 여전히 제게 가장 큰 보람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교육 시장의 구조, 학령 인구 감소, 직업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일을 평생의 진로로 삼기에는 고민이 남아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치며 제 관심은 점차 교육의 개념을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전반에서 이어지는 과정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도달한 곳이 평생 교육 분야입니다. 평생 교육은 제도권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포함하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시니어 재교육, 직무 전환, 지역 기반 시민 교육 등 앞으로 더 중요해질 영역입니다.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사 과정 중 평생교육방법론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론을 수강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과 역할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은 수강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교수님께 질문하거나 사례를 더 깊게 듣기 좋은 환경이고 평생 교육 기관이나 기업 교육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맡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교수님께서 "평생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이다"라고 하셨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은 특정 시기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처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한 가지 진로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 교육, HRD, 학습자 지원,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중심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 번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이해가 조금씩 쌓이고 선택이 서서히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그 변화의 속도를 존중하며 배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조율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 마디

후배님들, 연세대학교 입학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에서 보내게 될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또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1학년 때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해 많이 고민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선택과 방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시기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혼자 감당하기에 벅찰 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씩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 장소, 활동을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저 역시 진로의 단서 대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과 경험 속에서 얻었습니다. 머무르고, 돌아보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 본인의 속도와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교육학과 나오면 선생님 하는 거야?

*

교육학과 23학번 최현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통합디자인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최현서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학교에 먼저 입학한 선배로서 제가 대학 생활과 진로에 대해 경험하고 깨달은 점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전공 선택 이유

왜 교육학과와 통합디자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중등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과목을 미리 공부하여 칠판 앞에서 친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도 좋아했고, 교육 봉사를 다니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교사가 되는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책들을 읽어나가며 꿈을 키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자 주변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버니 돈을 많이 버는 학과를 가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말들에 설득되어 교사라는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대학을 왔음에도 신기하게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과를 선택할 때 중학교 시절 가졌던 꿈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교육학과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의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육학과를 본전공으로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던 중 주변 친구들이 전부 복수전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복수전공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전공이 적당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교원자격증을 따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과목을 복수전공하는 친구도 있었고 경영학, 심리학 등을 선택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통합디자인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제 복수전공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서는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육'과 '디자인'은 얼핏 보서는 전혀 공통점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디자인학과를 복수전공하게 된 것은 저의 개인적 흥미도 있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디자인학과를 통해 여러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AI 디자인이 널리 퍼지고 있어 디자인 공부에 따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할 때에도 디자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공부하면 이를 교육에 적용하여 학습 자료도 더 이해가 잘 가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소 뜬금없다고 느껴질 만한 교육학과 + 통합디자인학과 조합의 복수전공을 설계했습니다.

2

나의 대학 생활

송도 탐험기와 새로운 인연

저는 대학 1학년 때 조금 방황을 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초반에는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지 못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

아요. 적응하지 못해서 혼자 송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집에 무척 자주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을 좀 더 사귀어 보자는 생각에 제 취미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운 좋게도 취미가 비슷한 친구들을 몇 명 사귀게 되어 그 친구들과 자주 놀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같이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덕분에 송도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플 스트리트에는 풍선자판기가 여러 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겠나 싶겠지만 친구들과 하나씩 뽑아서 풍선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던 기억은 무척이나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캠퍼스타운역과 가까운 센트럴파크역에 들러서 보트를 타기도 하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 들러 그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송도라는 낯설었던 공간에서 즐길 거리를 하나씩 찾아내어 체험하다 보니 장소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1학년 때의 일들이 전부 긍정적인 경험으로 추억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친구들과는 계속해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규모로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던 것이 점차 한 명씩 같은 취미의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지금은 35명이 넘는 상당히 대규모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각자 보고 싶은 공연이나 전시를 같이 즐기고 자유 주제의 발표 모임 등을 가지면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학년 초만 해도 친구 문제로 고민하던 저였지만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활용할 지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진로와 관련된 교내 강의들을 신청하여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영어공부를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에 토익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황했던



시간이 길어 그 시간을 온전히 생산적으로 쓰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결론적으로 그 시기에 다양한 길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진로 선택

교육학과 나오면 선생님 하는 거야?

제가 본제목과 소제목에 쓴 문장이 교육학과에 들어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 어본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학과를 나와서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교육학과는 교사가 되는 것이 목적인 학과와는 방향이 아예 다른 학과입니다.

실제로 교육학과를 나온 사람들의 진로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했습니다. 로스쿨을 나 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HRD를 전문으로 하여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사가 된 분들도 있고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여 회사에 취업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전공과는 전혀 관 련이 없는 길을 걷는 이들도 여러 분 계셨죠. 교육학과라는 전공에서 이렇게 다양한 진로 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입학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교육행정공무원이 되고자 준비 중입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와 똑 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행정공무원은 행정 쪽의 일을 하는 완전 히 다른 직업입니다. 어쩌다 보니 전공을 잘 살린 진로를 잡게 되었네요. 가르치는 일도 좋지만, 교육이란 것에 정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교육행정공무원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이런 성 향이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진로를 교육행정공무원 하나로만 한정 짓지 않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로 를 하나로만 정하여 그곳에 매몰되는 것이 사람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하는 것 같아요. 지

금 진로를 생각해 두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직업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 정해 둔 진로 와 관련 없는 능력들도 어느 정도 키워 두려 하고 있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한계를 단정 짓지 말 것!

전공과 진로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공이 다르면 안 될 것 같고,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흔 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배움이나 능력의 범위에 스스로 선을 긋고 그 이상 혹은 그 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 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서 하나의 분야에만 머 무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많은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들어온 마당에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거나 당장 쓸모없다고 느 끼지는 경험도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특강이나 다양한 비교 과 프로그램, 전혀 다른 전공의 수업 수강, 대학 도서관에 가득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 동 아리나 학회, 프로젝트 활동 등은 모두 대학생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영감을 얻거나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진로의 방향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 시절을 특정한 전공과 관련 진로에만 매몰시키지 말고 '나'라는 사람의 폭과 깊 이를 넓혀 보는 시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자신의 한계를 단정 짓지 말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 보세요. 저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선배들의 진로 이야기



연세대학교
학부대학